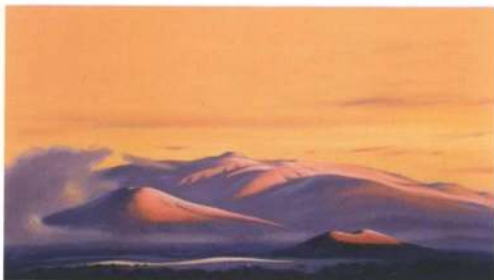


한라산총서 개정증보판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5-01

한라산총서 7

한라산의 문학과예술



한라산-이어도를 꿈꾸다(2020)

채기선 | 蔡基善, Chae Ki-seon

제주대학교, 경기대학교 대학원 서양화전공 졸업
(논문: 한라산 형상의 심상표현연구)

수상

2002년 대한민국미술대전 서양화 대상 '像-한라산'(국립현대미술관)

주요작품소장처

국립현대미술관 미술은행 (한라의 봄, 100호)
수원지방방법원 (한라산, 300호)
서울지법 고양지원 (한라산, 300호)
제주도 문화진흥원(범섬, 20호)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한라산, 1000호)
제주KCTV방송국 (일출봉, 200호)
한라병원(섬지코지의 아침, 1000호)
서울지방방법원 (한라산, 300호, 150호)
한라일보사 (한라산, 300호)
기담미술관 (한라산 영원의 빛, 50호)
KBS 제주방송총국 (한라산 영원의 빛, 500호)
제주도립미술관 (마음의 풍경-한라산, 300호)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100호 한라산)

MONO12023000004040

915.1985 -23-9

한라산총서 7

한라산의 문학과예술

0002959385



2023.02.13(기증)

인쇄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일 2021년 12월 30일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

디자인·인쇄 디자인리더제주 (064-746-0775)

발간등록번호 79-6500000-000825-01

ISBN 979-11-977355-6-1

※ 이 책에 실린 사진과 자료 중에는 저작권 보호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인용·복제할 경우 사전 문의 바랍니다.

문의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산림과(064-710-2752) · 한라산생태문화연구소(064-757-1008)

목 차

제1장 한라산과 문학

1. 한라산, 그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	11
2. 옛글 속의 한라산	15
유배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16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	23
신광수와 한라산	35
제주 유림들의 한시 속에 나타난 한라산	38
3. 제주 작가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한라산	41
마음의 고향 혹은 정신의 상징	41
한라산 절경을 노래함	45
설문대할망의 산, 한라산	54
4. 사람의 산, 한라산	57
오성찬의 《한라산》, 그 방목의 공간	57
한라산의 얼굴	61
무너지는 한라산	65

5. 한라산, 그 아름다움과 비애	67
제주 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68
현기영, 기억 속의 한라산	75
4·3과 겨울 산에서의 생활	79
김석범 《화산도》의 한라산	81
외지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83
6. 외부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86
정지용의 백록담, 그리고 생태계를 노래함	86
서정과 상상력의 공간	92
고은과 한라산	102
이은상의 한글 기행산문	105
7.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107
8. 평화와 통일의 상징, 한라산	114
9. 한라, 그 마음의 고향	121

제2장 한라산과 음악

1. 제주음악의 시작	127
2. 안익태와 제주음악	129
제주와의 인연	131
서귀포 공연	133
3. 노동요에 나타난 한라산	136
4. 제주도 교가에 나타난 한라산	140
5. 기타 '한라산'을 그린 작품들	191
제주국제합창제 창작 작품	191
한라문화제 음악제 공연 작품	195
<제주교육의 노래>	196
<서귀포시 노래>	198
이교숙의 <한라산>	198
강문칠 창작 작품	199

제3장 한라산을 소재로 한 그림

1. 조선 시대 한라산 그림	208
한라산의 상징성	208
한라산의 회화적 의미	209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210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	217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	218
정재민의 <영주십경도(瀛州十景圖)>	220
2. 현대의 한라산 그림	224
박생광의 <녹담만설>	224
양창보의 <설경>	226
강용택의 <한라산>	228
부현일의 <한라산, 서귀포에서>	229
김인지의 <한라산>	230
양인옥의 <한라산의 봄>	231
송영옥의 <제주도 한라산 풍경>	234
변시지의 <폭풍>	235

김택화의 <한라산>.....	237
조영호의 <한라산의 잔설>	239
강태석의 <한라산>	240
김병화의 <한라산>.....	242
강요배의 <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	243
제주 화가들의 <한라산> 그림	245
3. 그림 속에 표현된 한라산의 의미	246

한라산
총서 7

한라산의 문학과 예술



제 1 장

한라산과 문학



여 백

1. 한라산, 그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공간이며, 사유의 지평이다. 한라산 자락의 사람들은 오랜 옛날부터 한라가 거느린 수천수만의 얼굴로부터 자양분을 거둬들였다.

갑갑한 도시의 세계를 벗어나고 싶을 때, 현실의 부박한 삶을 부러놓고 싶을 때 우리는 그를 만나러 간다. 한라산은 그 산자락에 누운 우리네 삶의 배경이며, 문학·미술·음악 전 예술의 장르에 걸쳐 하나의 배경이 되었다.

그렇다면, 문학 속에서 한라산은 어떤 존재였을까. 인간의 유일한 인간다움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데 있을 것이다. 그 상상력의 원천을 떠올리게 만드는 공간이 한라산이다.



그림 1-1. 한라산은 영원한 상상력의 원천이다.

저 멀리 수렴시대의 한라산신들이 떠돌던 곳, 한라산 아흔아홉골에 흐르는 서사무가의 본풀이를 품고 있는 산. 한라산은 신과 사람이 뒤엉켜 유장한 언어를 쏟아낸다.

고려 말에서 조선조 말까지 수많은 정치범들이 격리되었던 이 절해고도의 나침반은 한라산이었다. 이 섬에 유배된 자들은 한라, 거기에 마음을 의탁했다. 그 유배지로 직함을 부여받아 제주섬으로 잠시 살러 왔던 권력자 관리들도 한라산에 사로잡혔다. 제주 유림들 또한 모든 것의 배경이 된 한라산을 일필휘지, 한시로 노래했다.

무릇 제주섬을 모태로 둔 이 땅의 문인들이야 말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들은 한라를 위해 끝없는 헌사를 바쳤으며, 산의 표피적인 감상에서 벗어나 내적인 성찰을 하기 위해 산의 능선을 타듯 언어의 능선을 누볐다. 누구라도 이 산에 오른 자, 깊숙이 빠지지 않을 수 없었다. 생애에 단 한 번 한라를 오르려고 했고, 그 한 번의 꿈



그림 1-2. 서귀포시 보목동 해안에 비친 한라산. 신비감을 자아낸다.

을 이룬 자는 운이 좋았다. 제주 밖의 사람들이 왜 제주를 찾았겠는가. 바로 한라산이 있어서이다.

한라산을 올랐던 옛사람들은 이 산에 깊숙이 매료되었다. 하여 그 꿈의 산, 한라를 찾아 바다를 건너온 이들은 그 매혹의 증거를 글로 써서 남겨 놓았다. 산과 하직하면서 그들은 작정한 듯 시를 적었고, 산문을 남겨 놓았다. 그들은 그때 발견한 것들을 남겨 놓음으로써 후일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한라산의 풍경들과 정신의 진수를 만날 수 있게 했다.

허나, 글을 쓴 이들은 산의 넓고 우람하거나 오밀조밀함, 엄청난 변화를 주거나 하는 것 이상의 묘한 매력을 필력으로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옛 문장을 따를 현대 문사들의 글은 그리 쉬이 보이지 않는다.



그림 1-3. 한라산에 대해 글을 쓴 많은 이들은 산이 주는 묘한 매력을 온전히 담지 못함을 자탄했다.

한라산 바람 신의 음덕을 입지 않았다고 한 이가 있다면, 그는 정말 모진 인간일 것이다. 만약 누군가 장엄한 한라산 문학의 일부를 이뤘다고 한다면 그 문학적 감성의 팔 할은 이 산이 키워낸 것일 것이다. 작가가 한라산을 쓴 것이 아니라 한라산이 문학으로 온 것이므로, 한라산은 그 자체가 이미 문학이다.

또한, 한라의 얼굴은 응시하는 시선에 따라 각각 다르듯이, 이 지역 문인들의 눈에 비친 한라산과 바다를 건너온 문인들에게 비치는 한라산의 모습은 분명 달랐으리라.

과거와 현재의 시공간 속에서 과연 당대의 문장가들은 한라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오늘의 작가들에게 한라산은 어떤 존재일까. 그리고 무엇을 그리고 있을까.

2. 옛글 속의 한라산

옛 한라산의 모습은 왕조시대 형을 살려 와야 했던 유배객들이나 제주에 부임했던 목사 등 관직의 이름으로 잠시 기거했던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 수목담채 같은 풍취로 살아난다. 그윽한 문학적 향취와 정경 묘사가 도드라진 그들의 한라산 이야기는 경합하듯 화려하다. 그것은 하나의 기행문학이며 산악 기록문학이라 할 것이다. 아무도 겪지 못한 경험을 풀어 놓고 있는 그 글들은 싱싱한 산의 기운으로 넘쳐난다.

산악문학은 인간정신을 확장시킨다고 누가 그랬던가. 김치, 임제, 김상헌, 이형상, 이원조, 최익현, 이은상... 그들의 한라산 등정기는 빼어난 기행문학의 전형이라 할 만하다. 문장을 한다는 옛사람들이 남긴 한시와 기행산문에서 우리는 또 다른 한라산의 얼굴을 본다.



그림 1-4. 옛사람들의 글 속에서는 수목담채 같은 한라의 풍취가 살아난다.

유배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물 막힌 섬, 제주도는 살아서 죄를 묻는 이들에게 가장 가혹한 공간이었다. 죽임을 당해야 할 자 차마 죽이지 못해 귀양 보내던 곳, 최악의 유배지였다. 이곳으로 유배를 오는 순간부터 유배인들은 살아서 돌아갈 일을 아득해 하며, 때로 자애로운 한라의 품에 안겨 마음을 수습해야 했다.

절망의 벼랑 위에선 자신을 돌아보며 죽지 않고 살아 있음을, 존재증명처럼 한시나마 견디게 해줬던 그 산은 내면의 해방구였는지 모를 일이다. 세상에 관여했던 현실 정치인이 유배지에서 부르는 ‘은둔자의 노래’에서 울적한 심사를 감지한다.

충암(靄庵) 김정(金淨, 1486~1521). 사림파의 개혁정치가 좌절되던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로 이미 죽임을 당할 주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훗날 유배왔던 북



그림 1-5. 유배인들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현 김춘택이 “학문과 도덕이 유림의 사표였던 사람”이라고 했던 그는 조광조와 함께 투옥되었다. 금산으로 정배되었으나 진도로 옮겨지고, 다시 제주도로 안치되었다. 그에게 한라산은 절대고독의 공간이었다.

“한라산 북쪽에 달이 뜨니 / 바다는 예나 지금이나 근심스럽구나(漢拏山北月/溟海古今愁)”(〈獨立〉일절)에서 비치는 심사처럼 건널 수 없는 절해고도, 심해공간은 그를 극도의 절망감과 고독으로 무장하게 했다. 충암은 1년의 제주 유배 중에도 제주도의 동쪽 끝을 노래한 <우도가> 등 여러 편의 시를 지었고, ‘한라산 기우제문’을 지어주기도 했다.

하지만 “대저 오려 해도 오지 못하는 수도 있고, 오지 않으려 해도 면할 수 없는 것이 있으니 이 또한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는 듯하다. 어찌 탄식할 것이냐.”고 하며 체념 반으로 발을 디딘 땅이었다. 울적한 심사여선지 그는 이 섬에서 글 아는 자가 매우 적다거나 운무가 항상 음침하게 가리운다면서 스스로 불운해 했다. 그의 노골적인 편견은 날씨가 타타하게 했으나 한라산에 대해서는 매우 관대하였다.

닫힌 공간이 주는 그 막막함 속에서 한 올의 희망을 붙잡고 싶었던 그는 비장한 마음으로 한라산을 올라야 했다. 그때는 공교롭게도 왕의 명령을 받아 스스로 죽어야 했던 바로 그 해였다. 그의 꿈은 산에 묻어야 했다. 484년 전, 젊은 충암이 발로 쓴 기록은 제주 유배의 산물로 남긴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이다.

형벌에 매인 몸이지만 한라산에서는 월출산과 무등산 등 육지의 여러 산도 바라볼 수 있어 옛날 이태백이 이른바 구름은 대붕(大鵬)의 날개처럼 바다를 덮고, 파도는 큰 물고기가 빠져들어 가듯이 커다랗게 출렁거린다는 경지를 이 광경을 보고 느낄 수 있을 뿐이네.

심적인 불안감이야 말할 수 있으랴.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던 이 행동하던 지식인은 “사나이로 태어나 이 큰 바다를 가로질러 이국적인 정서를 맛보는 것도 한 번쯤은 해볼 만한 일”이라고 애써 위안한다. 이 또한 전생에 정해진 인연이 아닌가 하고

말이다. 그의 한라산 묘사는 춤췄다.

그리고 이 섬 가운데는 큰 산(한라산)이 솟아있는데 이 산도 역시 흙이 적은 돌산으로서 금강산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네. 지난 옛날 내가 많이 보아 오던 전의(全義)나 청주(淸州) 등지에 있는 것 같은 토산(土山)은 찾아볼 수가 없네. 또한 정상은 가마솥처럼 파인 채 진흙 구덩이로 되어 있어 멧부리가 없는 것이 이곳 산들의 또 다른 특징이라네. 한라산 정상에 오르면 사방으로 푸른 바다를 볼 수 있는데 남극의 노인성도 여기서 바라볼 수 있다네.

절정에 이른 사람들은 누구나 노인성을 보고 싶어 했다. 그 노인성이 어떤 별이더냐. “노인성의 크기는 셋별만 하고, 남극의 중심에 있으니 지상에 나오지 않으므로 만약 이 별을 보게 되면 장수한다는 상서로운 별이지만 한라산과 남악에서만 이 별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충암의 이 노인성 관찰은 후일 수많은 등산객을 혹하게 하는 지침이 되었다. 노인성을 보면 오래 산다 했는가. 너도 나도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하나였나 보다. 수많은 묵객이 한라산을 우러러 반짝이는 신령스러운 별 하나를 찾느라 애썼다. 그것을 타할 수 없다.

그러나, 충암에게 절실했던 노인성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그의 나이 불과 서른다섯 살, 학문이 채 이뤄지기도 전이었다. 개혁을 꿈꾸며 정치일선에 나섰던 그는 절명해야 했다.

다음 주목해야 할 이는 북헌(北軒) 김춘택(金春澤, 1670~1717)이다. 그와 제주와의 인연은 예상롭지가 않다. 그는 부친 김진구가 1689년(숙종 15)부터 1694년(숙종 20)까지 제주에서 적거하는 동안 부친을 따라와 체류했다. 그러나 그 자신이 유생 임보 등의 상소로 1707년(숙종 32)에서 1711년(숙종 37)까지 대를 이은 유배자의 신분으로 제주도로 살러 오는 비운을 맞는다. 은거지 또한 부친이 적거하던 동천과 산지

(山池)였다.

“훗날 누가 나를 기록해 주겠는가.”하고 자문하면서 향토지를 쓴 것을 보면 자신의 존재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당대에 그를 따를 문장가가 없으리란 자존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서포 김만중을 스승이자 작은할아버지로 두었던 그였기에 더 그러했으리라.

그러나 그는 5년여에 걸친 제주 시절 속에서 한 번도 한라산을 오르지 못했다. 그 연유를 알 길이 없다. 허나 그가 남긴 시문 곳곳엔 한라산에 대한 흥미를 빼놓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내 비록 갇혀 있어도 위로가 안 되겠는가/ 가슴 속에 진정 한라산이 있으니”라는 말, 그 이상 무엇이 필요하랴.

“擎山高歷稱瀛蓬(한라산 또한 진정 신선계라네)” 혹은 술에 취해 장난삼아 지은 시 속에서도 “擎山海水長如春(한라산아, 바닷물아, 봄날처럼 영원하라)”이라 읊었다. 또한 가을의 흥취 속에서 그의 심사는 “萬里紫門海上村/擎山愁色對黃昏(만리 떠난 사립문의 바닷가 마을/한라산의 수심 띠 빛 황혼이 지네)(김춘택〈秋興其一〉중)으로 함축된다.

유배를 사는 북헌의 심사가 한라산에 질게 드리워 있다. 그러한 저변이 더 질게 깔린 한시는 이렇하다.

只是人生長有愁	다만 인생은 긴 수심뿐
天時代謝自悠悠	천시가 대신 물리쳐 저절로 유유하네
擎山屹與吾相對	한라산 우뚝 솟아 나와 상대하니
也復經秋白盡頭	다시 가을 지나면 머리엔 하얀 눈이겠지

(雜吟其二 / 김익수 역)

마침내 그는 해배되어 떠날 수 있었다. 살아 돌아가기 어렵다는 섬에서 살아 돌아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격해 하면서 그러한 마음을 솔직하게 드러내면서 쓴 시의 구절에서 그는 “仙山の 정상에 묵은 빗 값지 못하고”를 쓴 이유를 “나는 무릇 두

번 제주에 도착했지만 끝내 한 번도 한라산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제5구를 말한 것이다.”라 하고 있다.

이익(李穡, 1559~1624)은 제주에 사는 동안 많은 제자를 양성한 사람이다. 그는 광해군 때 장령(掌令)으로서 상소문에 “태아를 거꾸로 하여”라는 문구 때문에 1618년 (광해군 10)에 제주에 유배되어 고흥진, 김진용 등을 가르쳐 학문을 일으켰다. 그는 또 한라산을 통해 얼마나 정신의 고양을 꿈꿨던가.

영주산 꼭대기 바윗돌 위에
술 취하고 누웠더니
해는 지려 하는구나
산이 높으니 노인성도 팔 수 없고
바다 건너 멀리 있는 무등산도 찰 것 같네
호호탕탕 시원하게 한번 길이 노래하니
기운 격양하여 해천(海天)도 좁아지네
어지러운 진세(塵世)에서 살 생각이 전혀 없어
차라리 백록 타고 선경에 있고 싶다
영주산 제일봉에 우두커니 홀로 서서
하늘 보고 바다 보니 아득하여 가이없네
성역(聖域)에서 실컷 놀며 앞뒤를 바라보니
동산(東山) 올라 노국(魯國) 작다함 이제 바로 믿겠네

“이 산은 그 혜택이 백성과 나라에 미치고 있는 것이니, 지리산이나 금강산처럼 사람의 관광이나 제공하는 산들과 비길 수 있겠는가. 오직 이 산은 유독 바다 한가운데 있어 청고(淸高)하고 기운도 낮으므로, 뜻 세움이 굳고 근골이 건장한 자가 아니면 결코 오르지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이 산에 오르는 사람이 또한 수백 년 동안

에 관장(官長)된 자 몇 사람에게 불과했을 뿐이다.”

이렇게 한라산에 대한 외경심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감정을 누르지 못하고 기록으로라도 후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했던 이는 저 조선조 말의 유림, 면암 최익현(1833~1906)이다.

1873년(고종 10), 대원군의 폭정을 노골적으로 비판한 계유상소로 결국 대원군을 하야시켰지만 부자간을 이간시켰다는 이유로 제주도에서 1년 3개월을 보내게 된 면암. 그러나 그에게는 운이 따랐다. 1875년(고종 12) 2월 방면되고 나서였지만 꿈에도 그리던 한라산에 안길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나이 마흔둘이었다.

제주도에서 최익현은 안으로는 송시열에게 물두했다. 또한 밖으로는 한라산에 깊이 매료되었다. 그는 후일 “유배 중 가장 큰 소득이야말로 한라산 유람이었노라.”고 친구들에게 자랑했다.

김상헌의 《남사록》에서 얻어낸 정보로 그는 묘시(오전 6시)를 기다리며 남극에 있는 노인성을 보려고 별렀지만, 또 구름이 희룡을 부려 꿈을 이룰 수 없었다.

유장한 필치로 써 내려간 <유한라산기>는 굵이굵이 서린 한라의 설화들을 캐어 새김질하고 있다. 또한 한라산에 오르고 있는 자신에 대한 한없는 자부심이 깃들여 있다. 그 산의 신령스러운 기운은 그로 하여금 부처를 보게 한다.

“안개 속에서 우러러보니 백록담을 에워싸고 있는 석벽이 대나무를 깨어 깎아 세운 성채와 같고, 높은 하늘을 어루만지고 있는데, 기기괴괴 형형색색이다. 이는 석가여래가 장삼을 입은 모습이다.”

그의 한라산 예찬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시 10리쯤 가서 영실에 이르렀을 때, 그는 오백장군의 형상에 압도당한다.

높은 봉우리와 깊은 골짜기에 우뚝우뚝한 괴석이 웅위하여 늘어서 있었는데, 도무지 다 부쳐 모습이요, 그 수효가 다못 백천으로 헤아릴 수 없었다. 이곳의 이름을 천불암 혹은 오백장군이라 하였다.

한라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진다. 그 마음은 저절로 “허공에 떠 바람을 다스리고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오른다(憑虛御風 羽化登仙).”는 소동파의 <적벽가>를 떠올리게 하며, 어떻게 그 기분이 적벽에만 적합한 말인가 하고 반문하고 있다. 뿐이라. 주자(朱子)의 시 “낭랑하게 읊조리며 측룡봉을 내려온다(朗吟飛下 祝融峯)”고 읊조리며 하산한다. 한라산을 맞본 면암, 그 역시 이미 소동파처럼, 주자처럼 느끼지 못할 까닭이 없었을 것이다.

한 말의 대표적 지식인으로 고통스러운 격변의 역사를 몸으로 받아들여야 했던 명문장가 윤양 김윤식(1835~1922). 그는 을미사변의 연좌로 뒤늦게 종신유형을 받아 제주섬으로 귀양 온다. 적객의 신세가 된 그는 제주 유배기간(1897~1907) 중에 쓴 <속음청사>를 통해 ‘역사적인 일기’를 세상에 내놓는다. 그의 한라산행은 수많은 선배 적객들의 글을 숙독하고 떠난, 준비된 길이었다. 그의 눈에는 오름의 풍광마저 순박하게 보였다. 따스한 시선이다. 그때 느낀 그 자신의 문장은 이렇다.

오직 보이는 것은 하늘과 구름과 한라산뿐이었다. 산 밑까지 걸어서 이십 리, 상상봉까지는 칠십 리가 좋을 걸린다는 한라산은 눈이 허열게 덮인 우람한 자태를 보이고 있어서 한겨울에도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어쩌다 눈이 와도 금방 녹아버리는 이곳 해변 속세와는 달리 함부로 범접 못 할 신령스러운 비경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산세는 조금도 험준하지 않고 완만하고 너그러웠다. 동서로 끝 간 데 없이 밋밋하게 뻗어 내린 산맥 밑으로 마소를 방목하는 목장이 질편하게 펼쳐져 있어 내려오는데, 양순한 암소가 엮드린 듯, 경주 고분이 솟아오른 듯 평편집한 야산들이 띄엄띄엄 평지에 솟아 있었다. 이어진 산맥도 없이 평지에 불룩 솟아오른 이 야산들을 섬사람은 산이라 하지 않고 오름이라는 부드러운 말로 부른다는데 이 얹전하게 생긴 야산에게는 꼭 어울리는 호칭인 듯싶었다. 산세를 좇아 사람이 난다고 했으니 이 섬 백성들이 다른 변경 지방과 달리 풍속이 순박하다고 일컬어지는 것도 이러한 산세 때문인 듯싶었다.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

유배객들과 달리 관직을 부여받고 제주 바다를 건너온 이들에게 한라산은 아마 유람의 공간이었을 것이다. 아무리 유배 1번지라 한들 잠시 머무르다 귀향할 곳이다. 전근이 아닌가. 도임 기간 중 한라산 한 번 오르리라는 자신과 약속을 하면서 말이다. 그러나 그것은 꿈꾼다고 될 일이 아니다. 날씨가 도와줘야 한다. 때문에 그들은 날씨가 개면 하늘이 잠시 빌려준 것으로 생각하며 한라산 유람을 했다.

1604년(선조 37) 제주구황어사(濟州救荒御使) 조성립(趙誠立, 1568~1638)은 제주에 와서 많은 굶주린 사람들을 구했다. 그는 꿈에도 한라산을 그렸던 모양이다. 얼마나 한라산을 품었으면 꿈속에 한라산이 나타났을까. 그는 꿈속에서 ‘옛님’이라 부르는 한 여인을 만난다. 그는 그 달콤한 여운이 가시기 전 “아, 이상하도다. 그래서 한 절구를 읊어 산을 구경한 자취를 남긴다.”며 글을 적는다.

부용성(芙蓉城) 속 꽃밭에서 헤어지니
상전(桑田)이 동해 되도록 몇 번이나 물결이 뒤집혔나
이번 선녀를 영주(瀛洲)길에서 만나
등 위엔 선녀의 손톱에 굽힌 자국만 남았네

(조성립 시)

1609년(광해군 1) 3월, 제주 판관으로 왔다가 1610년 9월 떠난 김치(金緻, 1577~1625). 그는 제주로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한라산을 만만하게 보았다. 다행이었다. 오르고자 하여도 함부로 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한라산. 그를 한라산이 불렀다. “이미 탐라의 바다를 건너왔는데도 한라산을 보지 않는다면 이는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의도하는 거나 다름없다.”던 그였다. 살아서 한라산을 한번 오르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펼 수 있었던 삼십 대의 그는 <등한라산기(登漢拏山紀)>를 남

졌다. 400여 년 전의 문장이다.

한라산을 멀리서 보았는지 “그리 심하게 높지 않고 큰 산과 거대한 기슭이 가로로 한 면을 누르고 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속으로 “세상에서 이른바 영주(瀛洲)라는 것이 곧 이 산이다. 신선 사는 세 개의 산 가운데 하나인데, 어찌 이름과 실체가 서로 부합되지 않을까? 아니면, 사람 마음이 귀로 듣는 것만 귀하게 여기고 눈으로 보는 것을 천하게 여기는 것일까? 어찌 가서 탐험하고 따져 의혹을 깨뜨리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 4월 8일, 드디어 열정적으로 산에 오르던 김치는 철쭉과 진달래가 바위 사이에서 빛을 내며 피어 있는 것을 보고 흡사 ‘그림 속에 있는 것 같은’ 착각에 빠져들게 된다. 그의 순발력은 “녹음 아래에서 청량한 바람이 삽상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혼골(魂骨, 영혼과 뼈마디) 모두가 상쾌함을 갑자기 깨닫게 하였다.”



그림 1-6. 한라산 정상체가 풍화되면서 빚어낸 형상들이 산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는 말로 튀어나온다.

결국 한라산 정상에 선 김치. 그때 그는 한라산에 선 자신의 존재가 우주로까지 확산됨을 느낀 모양이다. “참으로 신선의 골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라면 어찌 능히 이러한 유람을 갖추겠습니까?” 하는 수정(修淨)스님의 헌사까지 받았다. “홀쩍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몸에 날개가 돌아 신선이 되어 오르는 듯한 기분은, 말이나 글로 가히 그려낼 수 없다. 지난날 마음속에 의혹이 있었던 것도 말끔히 풀리고 비로소 그 실상이 있으므로 반드시 이름이 있음을 믿게 되었다.”고 솔직한 심정을 털어 놓는다.

옛 풍류객들이 그러했을까. 말 타고 혹은 말에 내려 걸으면서 하산하던 김치는 그윽한 숲 향이 나는 계곡에서 발을 멈춘다. 다시 이고 온 술동을 다 비워내고 달빛을 타고 내려왔다니! 이날의 감흥이 가시기 전 그는 여러 편의 시를 남겼다. 그 가운데 〈백록담〉시 전문은 이렇다.

돌칼들이 하늘을 받친 듯 험한 길 자욱
넝쿨 휘어잡고 곧바로 오르니 해는 지려네
하늘 위로 부는 바람 산들거려 신발 끝에 향 내음
산안개 흩날려 밤이면 푸른 물방울
흰 학의 동지 곁엔 늙은 주목들
검은 솔개 머문 곳에 구름 스쳐 날아가네
머리를 돌리니 약수가 삼천리나 펼쳐
굽어보노라니 어느 날에 돌아간단 기약하라

(번역 김봉옥)

김치에 이어 등반한 이는 당시 그림으로 그린 제주지도 《탐라순력도》를 기획했던 이형상 목사(1653~1733)이다. 그가 한라산에 오른 것은 1702년(숙종28) 3월이었다.

하산길. 이형상은 큰 화탈섬, 작은 화탈섬에 펼쳐지는 신비한 광경을 목격한다. 누군들 황홀경 앞에서는 할 말을 잃게 되는 법. 온갖 어휘를 동원하여도 미흡할 뿐이다. 다만 자신이 한없이 작은 존재로 여겨질 일이다.

북쪽 바다 일면은 자수를 놓은 병풍과도 같았다. 떨어지는 노을이 쇠잔한 햇살이 물안개에 가리어 반짝이다 사라졌다. 형형색색이 움직일 때마다 가히 탄성을 보낼 만하였다. 생각건대, 하늘이 나의 도량이 좁음을 가련히 여기고 내 마음 씀이 소루함을 민망히 여기어서, 이를 큰 바다로써 넓히고 이를 섬세히 새기어 치장함으로써, 나로 하여금 그 변환이 한결같지 않음을 깨우치게 하려는 것일지니, 오늘의 나들이에서는 얻는 바가 이미 많았다.

허나 이렇듯 외지인 관리들을 수행하던 탐라 백성들의 노역을 그들은 보았을까. 모를 일이다.

1578년(선조 11) 임제(1548~1587)는 제주 목사로 있던 부친 임진(林晉)을 만나러 제주에 왔다가 한라산을 동반하게 된다. 그는 제주에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해 《남명소승》이라 했다. 훗날 많은 문장가들이 이 한라산 선배의 글을 참조해 대부분 옮겨놓는다. 그것이 기록의 힘이다. 그리고 그 문장을 뛰어넘을 수 없음을 많이 통탄해했다.

문장가 중의 문장가 임제. 그는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즈음 산의 풍운조화가 심한 시기에 드디어 산행을 도모한다. 허나, 한라산 백록담에 이르는 길은 쉽지 않다.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반은 하늘이 농사를 짓는다고 했듯, 한라산으로 오르는 길 역시 날씨가 절반은 허락해야 했다.

임제도 결국 오르다 중간에서 좌절을 맛봐야 했다. “구름이 짙어 정상에 오르지 못하고 존자암에 머물렀다. 지난번 제주성 안에 있을 때, 멀리 한라산을 바라보면 산허리에 흰 구름이 항상 감겨 있었다. 지금 깨달으니, 나도 흰 구름 밖에 있는 것이다.”라고 느낀다. 그러한 산의 날씨 덕에 그는 또 하나의 깨달음을 얻었다. 산의 기운

이 하늘만 우러르던 그를 가격한 것이다. 그는 순간 겸허해야 옳았다.

그의 〈백운명편(白雲名篇)〉을 보자.

백운의 흰 색깔은 비교할 게 없고 백운의 높은 것도 헤아릴 수 없다네. 하계에서는 오직 백운이 높게 보이지만 백운 위에 사람이 있음을 알지 못한다네. 백운 위에 사람은 어찌 스스로 알라? 머리 들어 하늘 문을 바라보니 만 길일세. 활달한 가슴 속에 불평사가 있다면 하늘 문을 두들겨 온통 찢어 내려 버리게나.

또한 산정에서 진정 백록을 본 이가 있던가. 백록을 탄 노인을 본 적이 있었던가. 물론, 전설은 그러했다고 한다. 허나 그 또한 들어서 회자되는 것으로 그쳐야 했다. 임제의 호기심은 노인성에서 머무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백록은 어떤가. 그는 그것의 무리를 찾는다.

신선의 산은 만 길이나 높아서 그 모습이 푸르고 깊은 바다에까지 이르네. 그 가운데 학 머리새(鶴髮)노인이 있어서 노을을 먹으며 흰 사슴을 타고 다닌다네. 길게 두세 번 휘파람 불자 바다에 뜬 달은 천 개의 봉우리를 비춰주네.

마침내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도착한 순간이다. 임제는 예리하게 주변 풍경을 기록했다. 그의 시흥이 꿈틀거린다. “구덩이같이 함몰되었고, 돌 사닥다리로 주위를 둘러싸서 둘레가 7~8리 가량 되었다. 돌 사닥다리에 기대어 아래를 굽어보니, 물은 유리와 같고 깊이는 측량할 수가 없었다. 못 가에는 하얀 모래와 향내 나는 줄기들이 있었다. 티끌 기운이 한 올도 없었다.”

아마 그는 꿀처럼 다디단 그 산의 향기에 취해 중도 하산은 생각도 못 했을 것이다. 임제의 미려한 〈등한라산기〉는 여기서 계속된다.

속세의 풍광은 멀리 삼천리 밖에 떨어져 있었다. 난새 통소 소리를 듣는 듯하고 지초의 수레를 보는 듯하다. 그 굽어 둥그렇게 된 모습과 돌이 쌓인 모양은 마치 무등산(無等山)과 같지만, 높이와 크기는 배나 된다. 세상 사람들이 전하기를 무등산과 한라산을 형제로 삼았다고 하는데 반드시 이 때문일 것이다. 물에 담그면 뜨니 또한 이상한 일이다. 눈으로 보이는 한계를 말한다면, 해와 달이 두루 비치는 곳과 배와 차가 미치지 못하는 데에 까지 모두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사람의 시력에 한계가 있어 하늘과 물 사이에 있을 뿐이니 한스럽다.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들이 이곳에 놀러 오면 연일 소나기 비가 내리는데 오늘과 같이 맑게 갠 날은 있지 않았습시다.’라고 하였다.

그날 임제가 취했던 그 만향은 다 어디로 갔을까. 지금도 그 향취는 남아 있을까. 청음 김상헌(1570~1652). 1601년(선조 34) 어명을 받고 제주 뱃길을 탄 그는 험한 제주 해로를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그러면서 그는 뱃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기록하는 순발력을 발휘했다. 그해 9월, 제주에 들어와 4개월간 살았던 그는 한라산신제를 지내기 위해 등정한다. 금강산과 묘향산이 있다 하나 한라산의 수려함을 독점하지 못한다고 했다.

한라산신제를 올리기 위해 등산한 그는 <등한라산기>를 남겼다. 그의 스승이 되어준 길라잡이는 물론 임제의 《남명소승》. 그는 제문 속에서 한라산 신령께 엎드려 절을 하면서 이렇게 읊는다. “산은 높고 둥글게 바다 가운데 있어, 아래로는 수부(水府)에 도사리고 위로는 운공(雲空)에 닿아, 백령(百靈)이 계시며 모든 산악의 으뜸입니다. 탐라의 진산(鎭山: 나라 지키는 산)이 되고 땅은 남유(南維)의 끝이 됩니다.”

청음도 시를 남긴다. 그의 장시 <장관편(壯觀篇)>은 이렇게 시작된다.

한라산이 어찌하여 이다지도 웅장한가 / 천년 긴 세월에 남쪽 땅을 지켰네 / 두터운 뿌리는 거오(巨鰲)를 누르고 / 높다란 봉우리는 주작성(朱雀星)을 만지네 / 나라 안 여기저기 명산 있으니 / 누가 중(仲)과 백(伯)을 삼으려 하느냐 / 남쪽에는 두류산이 있고 / 북쪽

에는 장백산이 있다네 / 금강산과 묘향산이 이름이 높지마는 / 기이하고 수려함을 감히
독점 못 하리….

청음의 《남사록》은 뱃길에서도 한라산이 나침반이었음을 알려준다. “지금 사세(事勢)는 자유로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것이 한라산인데 만약 하늘이 조금 흐리면 볼 수 없는데 지금 마침 날이 청명하기 때문에 여기에 와서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라는 사공들의 말도 들린다.

한라산에 올라 시인 아닌 이 있으랴. 한라산이 시인을 만들었다. 한라산이 써주는 시를 그대로 옮겨놓기만 해도 시가 되었다. 당대의 글발들은 앞서거니 뒤서거니 산문을 쏟아내었다. 거기엔 한라산의 지리적 위치와 모양, 관련된 역사문화유산, 유람시의 흥취 등이 유려하다. 일기형태로 쓴 것들도 보인다.

헨드릭 하멜 일행이 제주에 표착하던 해인 1651년(효종 2) 58세의 나이로 제주목사로 왔던 이원진(李元鎭, 1594~1665)은 자신보다 앞서 다녀간 선배들의 한라산 시를 읽고 그것을 엮어낼 것을 기획한다. 그러한 결과물이 《탐라지》이다.

그는 여기에 이수익의 함께 동반하고 지은 시를 남겼다.

한라산 높은 봉우리가 망향대가 되었으니 천하의 등고(登高) 이 유독 장하도다. 오교의 새벽빛은 자라가 이어내고 이호의 가을빛은 기러기가 끌고 오네. 옷깃을 나누면 삼 년 별이 되겠는데 관모가 떨어지니 구일배를 사양마세. 이 저녁의 흥겨운 놀이 응당 잊지 못하리니 다른 때 혼몽이 얼마나 많이 돌아오리.

(〈동이수의등고(同李繡衣登高)〉)

또한 조선 중기의 어사 이경억(李慶億)은 영실에서 비를 만나 지은 시 〈靈室優遇〉에서 “신선의 땅 둘러보고 심취했는데 / 온 숲의 안개비 부슬부슬 내리네 / 산신이 나를 끌어다 놀려 하지만 / 도롱이를 좋은 내 옷에 덮지마라.”고 영실의 감격을 노래한다.

때는 1487년 정월. 제주 삼읍 추쇄정차관의 명을 받고 풍랑을 피해 순풍을 기다리던 최부(崔簿, 1454~1504)는 마침 제주에 새로 부임하는 목사 허희와 함께 배를 타고 제주로 온다. 그러나 부친상을 당해 다시 배에 오른 지 5리를 지나 폭풍을 만났다. “한라산의 기후가 흐렸다, 비 오다 고르지 못하면 틀림없이 폭풍으로 변하는 수가 많으니 도해하는 일은 몹시 위험한 일”이라는 경고를 들으면서 배를 탔던 그는 망망대해에서 표류하게 된다. 이때부터 두 달 남짓 표류하는 운명에 놓이게 된 그는 중국을 거쳐 조선에 도착하면서 온갖 사투를 벌인 끝에 저 유명한 《표해록》을 남긴다. 그의 《표해록》은 가히 바다 문학의 원조 격이다. 문학은 체험이라 했던가. 체험을 능가하는 문학이 나오기란 어렵다.

“맑은 날 한라산 절정에 올라 서남쪽을 바라보면 천 리 밖에 한 줄기 흰 모래와 같은 것이 있으니 곧 백해(白海)이다. 나의 본 바로서는 눈에 보이는 것이 다 은세계를 이루어 어디가 백해가 되는지 알지 못하였다.”는 구절도 거기에 나온다.

금남 최부는 제주에 있으면서 제주를 소재로 한 〈耽羅詩〉 35절을 남긴다. 그 35절은 한 소절 한 소절이 모여 서사시를 이룬다. 한라산의 기후를 보고 그날의 상황을 알 수 있었던 때였다.

“한라산 정상의 신령한 백록담은 가물에 마르지 않고 비 내려도 불지 않도다. 천둥벼락 안개구름 삼시간에 생기니 노는 사람들 누가 감히 신의 위력을 무시하라.”

(최부, 〈耽羅詩〉 중 / 김봉옥 역)

1694년(숙종 20) 제주에 도입하고 1696년에 떠난 《지영록》의 저자 이익태 목사(1633~1704). 그의 시는 신비로움과 유람의 공간으로서의 한라산을 잘 묘사하고 있다. 아마도 그는 좋은 날 산을 올랐을 것이며, 그에게 보여준 한라산은 선계였을 것이다. 그는 그곳의 신선을 찾아갔는지 않은가. 그리고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었으니 그 유람의 시 또한 가볍게 다가온다.

秋日尋眞路 丹崖琪樹間
 天低白鹿岳 雲鎖赤松間
 環海疑無地 救仙喜有山
 平生壯觀最 此遊豈等閒

가을날 신선을 찾아 나선 길은
 아름다운 나무 사이 낭떠러지
 하늘에 머리 숙인 백록담의 산에
 잠긴 구름을 적송자가 가리웠네
 바다에 둘러 있어 없는 듯한 땅
 신선을 찾는 기쁨이 있는 산일세
 평생에 으뜸가는 상쾌한 관광이니
 이번 유람을 어찌 한가롭다 하지 않겠는가

(이익태, <한라산> / 오문복 역)

“일찍이 등산하는 것이 도를 배우는 것과 같다.”고 했던 사람은 <유한라산기(遊漢攀山記)>를 쓴 이원조(李源祚, 1792~1871)였다. 1841년 7월 제주목사로 부임할 때부터 그는 굳게 산행을 도모하였다. “이미 탐라 바다를 건너와서 한라산을 보지 못하면, 이는 스스로 보지 않으려고 의도한 것”이라며 작정하고 등정을 벌렸다. 부임 5개월 후에 한라산과 조우할 수 있었던 그는 이 기행문을 적고 나서 함께 노닐던 사람들에게 선보이는 여유까지 보여주었다.

내려오는 길. 열정적인 이 문장은 은근히 늙은 성찰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글이다. 빼어난 통찰력으로 한라산을 상상력의 공간으로 끌어들인 그의 글은 물밀듯이 엄습하는 절대 고독 앞에 선 자의 기상으로 빛난다. 내면 풍경마저 포개진 그의 심상을 아래 적는다.

“착한 것을 좇는 것은 산에 오르는 듯하고, 악한 것을 좇음은 산이 무너지는 것과 같소. 착함을 버리고서 악함에 나아가는 것은 그 어려움이 또한 이 같지 않으리오? 이미 다 높은 곳에 도달하였으므로, 밑으로 내려가게 됨이 형세라고 하더라도, 이미 익혀 익숙한 것을 버리고서 새롭고 기이한 것을 좇아 나아가며, 신선과 부처에게서 도를 찾고, 패설에서 문채로움을 삼는 것은, 모두 마음과 힘을 굽어 사용하는 것이라오. 여러분들은 오늘의 유람으로써 경계를 삼으시구려!”라고 하였다.

대정현의 경계에 이른 이원조는 서남쪽의 큰 바다를 바라다보았다. 산에서 떠 있는 섬을 바라본다는 것은 놀라운 경험이다. 누군들 그 자리에 서 보라. 섬에서 섬을 보는 것과 같다. 그는 여기서 더 나아간다. 멀리서 보이는 제주의 섬들, 그 섬들에 눈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을까. 그는 이렇게 적었다.

가파섬, 송악산, 마라섬, 지귀섬과 같은 여러 섬이 큰 바다에 떠 있다가 숨어버리는 광경은 자못 기이하였다. 깎아지른 절벽에는 향나무들로 덮여 있었다. 붉은 아름드리 밑동 줄기들이 한쪽으로 쏠리어 굽어져 있었다. 위는 말라 있었고 아래로는 푸른 색깔이었다. 겨울과 봄에는 눈에 짓눌리어서 생기가 퍼져 있지 않았다. 그 사이로 철쭉들이 많았다.

목사 이약동(1416~1493). 그는 1470년(성종 1) 제주목사로 바다를 건너온다. 철저하게 부정부패를 단속하고 공물의 수량을 감하게 해 백성의 부담을 덜어주는 등 선정을 베풀어 칭송을 받았던 인물이다. 임기를 마치고 떠날 때 채찍질할 때 쓰는 회초리 한 자루를 가지고 가다가 “이것 역시 섬의 물건”이라며 관루에 걸어두고 나갔다는 예화가 전해진다.

曾聞海上岳無頭 州枕靑山海帶州
香透疎簾知近橘 風生虛閣覺今秋
伊誰不肯當時樂 却恐多添異日愁

細柳甘裳無箇事 傍人錯道武陵侯

듣건대 바다 위에 머리 없는 산 있단 말
푸른 산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
성긴 발로 향기 배어 굴밭이 가까이 있음을 알겠고
비인 누각에 바람 스치는 지금은 가을이로세
누군들 이때 향락을 즐겨하지 않으리
훗날 근심이 겹쳐질 것을 두려워하네
세류영과 감당에서 같이 백성을 생각지도 못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을 잘못 알고 무릉후라 이르네

(이약동, <흥화각>)

시적 상상력이 넘치는 한시이다. 두무악(頭無岳)은 머리가 없는 산이란 뜻의 한라산을 이른다. ‘푸른 산을 베개 삼고 바다로 떠 두른 고을’이라니!

한라산에 마애명을 남긴 정헌 조정철(靜軒趙貞喆, 175~1831)은 제주를 쉽게 잊지 못할 사람이다. 그는 두 번이나 제주에 살러 왔다. 한 번은 1771년(정조1) 홍국영의 세도와 강릉휘 등이 정조를 살해하려고 한 사건에 연루되어 그해 제주에 유배되었다. 부친상을 당해 상복을 입은 몸으로 유배되었던 그는 유배사상 가장 긴 33년간을 살았던 사람이다.

그중 28년간이나 제주도에서 절도 유배의 한을 남긴 사대부이다. 그는 제주 유배 때 제주여인 홍윤애와 애틋한 사랑을 나눈 비련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당시 홍윤애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이후여서 조정철은 그녀를 위한 시를 짓고 한라산 기슭에 버려졌던 묘를 좋은 곳(옛 전농로)으로 이장했다고 한다. 현재는 그 자손들이 묘를 유수암리 쪽으로 다시 옮겼다.

魯聖乘□意	秦皇採藥愁
那會窺是海	猶未倒斯洲
猿謫僂椽重	相看俗事休
君恩隨處大	且莫恨長流

공자는 뗏목 타고 바다에 뜨고
 시황은 약초 캐러 동남동너 보냈네.
 일찍이 이 동해를 지향했건만
 제주엔 그 자취 이르지 않았어라.
 귀양 왔으니 신선의 연분 두터웠고
 한라산 마주 보니 세속이 사라지네.
 성은이 가는 곳마다 거룩했으니
 멀리 유배됨을 어이 한할손가.

(조정철, <한라산> / 양순필 역)

이 불모의 땅에 갇힌 유배자는 자탄과 함께 임금에게 버림을 받고도 성은에 망극해 하는 심사를 담은 5언율시 <漢拏山>을 썼다. 유배를 당하고도 충정을 잃지 않는 유배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삶의 대부분을 격리된 자로 살았던 정현. 그러나 또 한 번의 제주 인연이 30여 년이 지나서 온다. 1811년(순조11) 제주목사로 부임 받아 온 것이다.

七八年來萬里遊	蓬萊餘債又瀛洲
男兒眼力方無地	仙吏笙歌更有樓
瀋泊寒輝山吐月	依微暝火海通舟
滄桑欲向癡姑問	不盡燐霞處處浮

칠팔 년 동안 만리 밖에 와서 노니니
 봉래산에 빛을 쫓는데 또 영주에도
 대장부의 눈으로는 바라볼 곳이 없는데
 신선 같은 관리는 피리 불고 노래할 다락이 있구나
 담박하고 싸늘한 빛은 산이 토해내는 달
 희미하고 어두운 불은 바다를 가고 오는 배
 마고선녀에게 상전벽해에 대해서 묻고 싶은데
 곳곳에 끝이 없이 연하가 떠 있으니

(조정철, 〈漢擎山〉)

다시 온 제주, 靜軒은 망경루에 올라 한라산을 올려다본다. ‘담박하고 싸늘한 빛’
 은 바로 한라산이 ‘토해내는 달’이 아닌가. 조선 시대 도포 자락 휘날리며 한라산을
 올려다보는 관리들의 모습 위로 가난한 탐라의 백성들이 어른거린다.

신광수와 한라산

제주에서 금부도사 벼슬을 하고 있던 석북(石北) 신광수(申光洙, 1712~1775). 그의
 제주행 바닷길은 험난했다. 폭풍 만나 제주에 혹독한 신고식을 치른다. 그는 이미
 제주에 닿기 전 멀리서 한라산을 바라보며 제주도의 첫인상을 이렇게 적어 놓았다.

淸淸天水有無間, 使者孤舟向百蠻
 一片白雲南極外, □工道是漢擎山

하늘과 물이 모두 푸르기만 해서
 있는 듯, 없는 듯

사자가 탄 외로운 배는
멀리 떨어진 섬을 찾아왔네.
한 조각 흰 구름이
남녘 끝에 걸려 있으니,
사공이 가리키며
저게 한라산이라 말하네.

(신광수, 〈至半洋望漢峯山〉 / 신석조 역)

무사히 탐라에 도착한 뒤 신광수는 40여 일 동안 관에 머물며 시를 짓기도 했다. 그의 《탐라록》은 제주도의 풍속과 민중의 삶을 읽는 당대의 코드와 같다.

신광수가 그를 찾아온 조선의 전업 화가 최북(崔北, 1712~1786)과 실학의 대가 이익의 제자였던 박수희(朴壽禧)와 함께 1765년(영조 41) 한라산을 등정한 것은 그의 나이 쉰세 살 때의 일이다. 강세황과 나란히 당대의 대가로 손꼽혔던 최북은 한쪽 눈을 제 손으로 찢어버린 비운의 화가로, 스스로 한 쪽 귀를 잘라버린 반고흐와 비견된다.

이익의 당부대로 신광수와 박수희는 백성들이 굶주리는 데 머리에 조그만 지식이 들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말며, 식사는 가난한 백성들이 먹는 잡곡밥을 두 끼 이상 먹지 못하도록 교육시켰고, 그렇게 실천하고 있었다.

신광수는 이미 당대의 참여시인이었다. 외부자의 시선임을 느끼게 하는 작품들이지만, 누렇게 부황이 든 아낙네들이 나무껍질을 벗기는 생활이 묘사된다. 신광수의 가체시 〈한라산가〉는 명시로 꼽힌다. 그러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고 쓴 것이 아니다. 한라를 눈앞에 두고도 풍우가 심하게 몰아쳐 올라가 보지 못하고 다만 바라다보면서 쓴 시로 전한다.

“자네 한라산 영기가 언뜰뜰 남녘 바다에 버티어 서 있는 걸 보지 않았는가. 옛적에 영주라 일컬은 것은 바로 이 땅이라.(...)” 한라산에 오를 일만 생각해도 가슴이 설레던 석북은 그러나 지척에서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중간에서 마음을 접어야 했



그림 1-7. 한라산의 비경이면서 최대분화구인 영실은 늘 각양각색의 얼굴을 보여준다.

다. 그 아쉬움이 얼마나 컸겠는가. 그래설까. 그의 시는 반은 자조적이다.

허허, 내가 속인이라 신선이 못되어 이러구러 꿈은 허사가 될 지로다. 선산이 지척이건만
오히려 올라보지 못하거늘 하물며 봉래방장이 아득하여 알 수 없는 일이로다. 풍파는 잊
달아 솟구치고 거어(巨漁)는 뒤척인다. 아서라, 차라리 고기잡이배 던지시 저어 강호(江
湖)로 돌아가리

(신광수, <한라산가> 중 / 신석초 역)

그때 최북이 설산의 신비로움을 그린 그림 <설산조치도>를 그려 신광수에게 준
것으로 전해진다. 석북과 최북의 따스한 우정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산이 세 고을에 솟아 하늘 속에 꽃혔는데 / 옥황상제가 항상 숨 쉬는 소리 들리

는 듯하이”(《한라산》중)라고 하면서 한라산에 대한 예찬을 아끼지 않았다. 훗날 그가 제주를 떠날 때 그동안 받은 봉록(봉급)을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백성들에게 돌려 주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제주 유림들의 한시 속에 나타난 한라산

19세기 초에서 20세기 초 사이를 살았던 제주의 유림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라봤을까.

고려 유신으로 조선 건국에 불복해 제주에 들어와 살았던 김만희(金萬希). 그는 한라산을 백이 숙제가 불사이군의 절개를 지켜 숨어 살던 서산에 비유하면서 자신도 그와 같은 마음임을 밝힌 시를 지었다. 다음은 오문복이 편역한 《영주풍아》에 소개된 그의 시이다. 한라산에 그의 심상이 투영된 작품이다.

漢山何似古西山孤竹清風遠莫攀
海變桑田人已矣出門欲往小瀛

한라산이 어떻게 옛 서산과 같으리
고죽국 맑은 바람 만질 수 없이 아득함이어
세상이 뒤바뀐 일 사람들아 말하지 말게
문밖을 나서서 작은 영주에라도 가보려 하네

(金萬希, 〈한라산〉)

제주 선비들의 눈에도 한라산은 함부로 범접 못 할 경외의 존재였던 모양이다.

텅 비인 감실엔 산달만 있고 / 구름 걷힌 골짜기 하늘이 열려 / 스님은 떠나고 불상만 남

아 / 사람도 없이 들리는 경쇠소리.

(소림 진사 오태직, <영실의 맑은 새벽>)

《탐라록》을 보면 이원조가 당시 목사로 왔다가 소림의 시에 화답한 시가 여러 수 있다. 운치 있는 시풍이 느껴진다.

대정향교 유림을 맡았던 조선조(순조)의 강사공(姜師孔)은 “촉나라 길이 험악하여 참성이 잡힐 듯하고 / 여산은 북두성에 닿았다 / 아득히 높이 솟아 / 높이가 얼마나 될까 / 바라볼 만하고 올라봄 직하니 / 한(漢)이라는 한 글자로 이름함이 마땅하다 / 산 다웁고 높기 때문에 / 그렇게 부르는 것이다.”하였다.

‘한라’는 손으로 은하를 잡는다 했던가. 한라산이 얼마나 생각보다 높았으면 이렇게 비쳤을까. 멀리서 볼 때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손에 잡힐 듯하지만 직접 대면



그림 1-8. 한라산정은 손에 잡힐 듯 하지만 만만치 않다.

하려면 이 산이 참으로 만만치 않다는 것을 느끼게 하기 때문이다.

한라(漢拏)라고 한 것이 그럴듯하지 않은가 / 맑은 은하수가 스스로 가까워서 / 한라산
과 그 사이는 한치도 못 되어서 / 직녀가 머리를 감고 / 앉아서 쪽 지을 수 있을 듯한 것은
/ 저 은하수가 낮게 있는 게 아니라 / 이 산이 높기 때문이라네.

(강사공, 〈한라산부(漢拏山賦)〉/오문복 역)

3. 제주 작가들의 심상공간으로서의 한라산

마음의 고향 혹은 정신의 상징

수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에게 한라산은 배경이었고, 창작의 원류였으며, 심상의 공간이었다. 그 작품들을 일일이 열거하는 일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다. 섬 전체가 한라산이란 이름 아래에서는 말이다. 따라서 여기에 인용할 작품들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더구나 한라산 자락에 사는 제주의 시인치고, 한라산을 올랐던 시인들치고 그 산이 왜 시로 다가오지 않았겠는가.



그림 1-9. 구좌읍 송당리에 위치한 다랑쉬 오름에서 본 한라산 원경

일제강점기였던 1930년대 후반, 이 지역 출신 소설가 이시형(1918~1950)이 그린 <이여도>. 지금은 사라져버린 서부두 방파제에서는 한라산의 다양한 변주를 잘 느낄 수 있다. 이곳에서 한라산과 제주의 봄을 그린 대목이 나온다. “한라산 정상에는 아직 잔설이 남아 있었으나 보리밭 위를 스쳐 오는 따스한 바람은 사람들의 마음을 풀리게 하였다.” 한라산을 바라보면서 마음을 푼다는 것은 한라가 바로 정신의 상징이라는 것이다.

한라산이 제주도이고 제주도가 한라산이라는 그 진부한 표현도 제주 시인들은 굳이 감추지 않는다. 제주에서는 정말 그렇다.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 살아가는 일로 하여 / 가슴 쓰릴 때 / 濟州여 / 하루에도 몇 번이고 / 지척에 두고서도 / 山이 그림고 / 바다가 그리워 / 산이여 바다여 라고 부르면 / 제주에서는 그것이 그냥 한라산이 되고 / 제주바다가 되므로

(강통원, <제주도 3>)

1950년대 《한라산》에서 양중해는 한라의 가슴을 떠나지 못하는 토종 새와 짐승들에서 한라산을 떠나지 않고 사는 자신을 본다.

…오늘은 / 태연스럽게 / 흰 구름의 옷자락을 나누끼시며 / 연파(煙波) 아롱지는 / 수평선에 / 부풀은 사모를 더듬으시는 / 탐라 성주(星主)님… 한라산의 숲속에는 /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만이 살고 있다. / 아름다운 목소리로 / 비 비 비 짹 짹 / 호이 호이 호 호르르 / 귀 익은 제주도 사투리로 노래 부르는 새들, / 목덜미 고운 장끼 / 숲속으로 숨어버리는 아기 노루 / 몇백 년 동안 / 몇 천 년 동안 / 수평선 한 번 넘어보지 못하고 / 제주도 사람이 살아온 눈물과 한숨과 함께 / 대대로 섬을 지켜 온 / 제주도 토종의 새와 짐승들이 나를 반긴다.

(《한라별곡》중)



그림 1-10. 제주오름 중 가장 아름다운 오름의 하나로 손꼽히는 동검은이 오름

한라산은 신생대에 두 차례에 걸친 화산의 장엄 분출을 기록했다. 제주도의 생명 있는 것들은 한라산이 낳고 바다가 지켜줬다. 일본에서 살다 온 사람들의 눈에 한라산은 일본의 후지산과 닮았다고 한다. 허나 한라산에는 대륙적 풍모가 있음을 꿰차기도 한다.

사람이 곁에 있어도 그립다 했는가. 한라에 한 번 오른 이들은 다시 그곳에 가지 못해 안달한다. 이 땅의 사람들이 한라에 대한 사랑은 진정성, 그것이다. 때문에 “못 견디게 사랑하기에 / 저만치 멀리 두고 / 바라보며 바라보며 / 다시 바라보며”(김순이,〈한라산 4〉) 산의 이름을 부른다. 그곳에 가면 과연 무엇이 있어설까. 시인은 안다. 그곳에 가면 안다. “그곳에 가면 / 삶에는 불평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 높고 큰 명성이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 알게 됩니다 / 부귀와 가난이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 알게 됩니다 / 사랑과 미움이 덧없음을 알게 됩니다 / 이 세상의

시간 저쪽에 / 우주의 시간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한라산5》). 반드시 산은 올라야
만 맛인가. 오르지 않아도 맛이 있는 산, 한라산이다.

길이 흐릴수록 / 환해 오는 네 생각 / 눈 내리는 길목에선 / 굵어 있던 나목들이 / 산굽이 /
넘어와 보니 / 꿩 발자국 같은 것들.

(오승철, 〈한라산 제2횡단도로 나목들〉전문)

문충성이 노래한 한라산은 원초적인 그리움의 본령이다.

항상 먼 별빛 그리움에 이마 높푸르다 / 술한 폭풍우 가슴에 재우고 / 잠들지 못하는 눈꺼
풀도 차곡차곡 / 쌓아 놓자니 만상이 내게도 이르는구나 / 이제 나는 충분히 자유롭다 /
별을 헤아려 노래 부르게 하고 새들을 날려 하늘 깊숙이 되돌아오게 하는 법을 안다.

(문충성, 〈한라산〉)

그렇게 가다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에서 허리띠 푸는 한라산신도 만난다.

윗세오름 파란 시로미 까맣게 익는 날 / 허기진 산비둘기 한 바퀴 돌고 가면 / 억겁의 한
라 신령님도 허리띠를 푸나니.

(오영호, 〈한라산을 오르며〉중)

한라산은 벗어날 수 없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마음의 지표이다.

한라산 절경을 노래함

백록담과 영실 그리고 선작지왓

한라산의 절정은 백록담이다. 백록담은 길을 잃은 자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열린 공간이었다. 산의 기운이 허파로, 피부 속까지 스며들어 깊은숨을 쉬게 한다.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황홀해지는, 그런 순간을 맛보게 하는 곳이다.

백록담은 신의 공간이자 초월의 공간이다. 백록담은 꿈을 잃은 자들의 이상향이 있다. 백록담에서는 신을 불러도 좋았다. 김종원은 <백록담>에서 그러한 꿈을 노래했다.

입이 없어 할 말을 잊은 건 아니어라. / 차라리 병어리가 되고 싶은 남해의 고아여라. / 고
배 풀린 구름 식솔 거느리고 / 멀리 대륙을 부르는 / 당신은 바로 하늘일 수도 땅일 수도
없는 / 천형의 기다림이여라.

(김종원, <백록담> 부분)

한라산으로 가는 길. 영실코스는 곳곳에 문학적인 감성이 잠복해 있다. 그곳의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절경과 대비되어 때때로 나란 존재 혹은 인간의 삶은 더없이 참혹한 것이 되고 만다. 영실은 그 자체가 하나의 영감이다. 그래서 시인은 돌그림자를 지켜보러 영실에 오는가.

아직도 / 사람이 돌이 되었다는 것을 아니 믿느냐 / 산 아래를 내려다보며 / 나는 왜 꿈
짜도 않는가 / 나는 결국 돌이 아니다 / 돌이 아니면서 / 일요일이면 영실로 와서 / 샘물
을 마시며 / 물속의 돌그림자나 지켜보다가 / 그냥 앉아 있다가 / 네 시경이면 / 산을 내
려간다.

(한기팔, <『영실에 와서』 2>)

영실의 아름다움은 붉은 소나무숲의 초입에서부터 시작된다. 그 길로 오르는 곳곳엔 숲한 식물 군상들이 산다. 앞만 보고 그것의 아름다움을 놓치고 올라가는 것은 어리석다.

한라산 영실 가는 길가 종나무 서리나무 참나무 먹빛 회색빛 앙상하다. 내 아내 협심증 관상동맥 같다. 그 사이 무성한 모세혈관 줄기들. 아내와 처음 왔을 때 중고차는 더 올라가지 못했다. 그 아래 20년 삶의 비늘들 빛바랜 산 갈대 수북히 쌓여 있다. 하이드파크 같은 길 혼자 천천히 올라간다. 잠자는 아내 숨소리 가쁘다.

(나기철, <영실行>)



그림 1-11. 겨울철 열매가 익어 이국적 정취를 안겨주는 식나무

회색빛 한라산길을 걸어가는 시인은 길가의 그 먹빛 나무에서 험심증 앓는 아내를 떠올린다. 그의 영실행은 표면적으론 신비스럽고 영적인 세계로의 이동 같지만 그의 현실의 삶은 그렇지 못하다. 단지 그것을 꿈꿀 뿐이다. 시인들은 한라산이 내뿜는 다채로운 변주를 통해 산의 침묵을, 산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쇠잔해진 젊은 날의 심지를 돌아보게 만든다.

문충성의 시 <겨울 백록담> 앞에 서 보자. 바람 앞에서도 풍화되지 않는 산, 승업하게 휘도는 산의 바람은 때때로 이승과 저승의 바람으로 너울거리기도 한다. 수천 수만 갈래로 올라오다 흩어지는 겨울 폭풍설, 백록담에 오르면 삶의 경건함이 자신을 성찰하게 한다. 백록담에서는 뜨거운 현무암의 기운으로 심장까지 두근거린다.



그림 1-12. 눈 속의 복수초

“겨울철 백록담에 올라본 일이 있느냐 한여름 / 西北壁을 타고 내리던 메아리조차 없다 / 숨쉬는 곳이라곤 나 하나 아니 저승의 바람도 있다 / 바람은 산을 베어 넘길 듯 창검을 갈고 / 이승과 저승 사이 메아리아 깊숙이 / 冬眠의 깊에 빠졌느냐”라고 하는 시인은 결국 백록담에서 본 것은 “백록담에 와서 탐라가 열리던 / 처음 분화구 바윗덩이들 험떡이는 갈증소리 듣나니 / 영하로 얼어붙는 산길에 길은 열리지만 / 진종일 걸어도 백록 한 마리 보이지 않는다.”고 자탄한다.

철쭉꽃 불타는 선작지왓의 미감 앞에 먼저 무릎 꿇은 이는 ‘오름나그네’김종철이었다. 그와 함께 올랐던 시인 고은은 여기서는 “가슴을 응결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가슴이 터져버리기 때문”이라며 호흡을 진정시켜야 했다.

“뒹니뒹니해도 윗세오름은 그 북판에 가로누운 드넓은 벌판으로 하여 이름이 빛난다. 해발 1,500m에서 1,700m 사이에 전개되는 이런 고원은 다른 어느 산에서도 보지 못했다. 더구나 이맘때의 늦봄, 진달래꽃 진분홍 바다의 넘실거림에 묻혀 앉으면 그만 미쳐버리고 싶어진다.”고 한 사람은 ‘산사나이’ 김종철이었다. 그는 죽어도 끝내 그곳을 떠나지 않고 있다.

그는 《오름나그네》, 《윗세오름》 편에서, 살아서 “지리산의 세석평전이 철쭉과 함께 이름나지만 한라산 선작지왓과 비할 바가 못 된다.”고 했다.

봄이면 진달래의 진분홍 바다로, 여름이면 질리도록 푸른 초록으로, 가을이면 황량한 무채색으로, 겨울이면 구상나무의 설경으로, 성성한 선작지왓의 존재는 산을 찾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 산이면서 고원이고, 벌판이면서 물이 흐른다는 곳, 야성의 한라대정원.

영실에서 백록담 화구벽이 바로 잡힐 듯 서 있는 곳, 왼쪽으로 윗세오름 세 봉우리가 포개듯 있는, 오른쪽으로 탁 트인 대고원 평야. 밤별들이 꽃잎처럼 황홀하게 쏟아지고 흩어지는 곳. 크고 작은 작지들이 많아 ‘생작지왓’이라 이름한 곳이다.

한라산의 사계

한라의 사계를 두고 어느 계절을 두둔할 수가 없다. 그것을 편애한다는 것은 그것이 또 다른 매력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므로. 시성 두보가 그랬던가. “산이 퍼렇다 보니 꽃이 불불는 듯하다(山青花欲然)”라고. 한라의 사계절인데 한눈을 팔 새가 어디 있겠는가. 산사나이들도, 산을 타는 여성들도 하루도 같은 날이 없어서 그를 만나지 않고는 몸살이 난다고 한다. 어느 봄날, 한라산에서는 따스함과 피어린 독백이 들려 온다.

봄날 가슴 한끝 예감으로 번져 나는
한라산 푸서리에 무자년 춘란 하나
누군가 허를 빼물어
바알간 四月아침
어머님 기억 속에 가늠되던 그 손짓
빗들은 없지마는 아, 이 곳일 게다
솔바람 푸르른 자리
메아리만 남은 자리
햇봄분 그 위에도 산돌림은 지나갈까
나비도 찾지 않네
논개 이는 숲속에
반세기 목마른 뜻은 춘란으로 피고 싶다

(홍성운, 〈제주 춘란〉)

한라산은 제주도 어디서든 배경이 된다. 그것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뤄졌다. 한라산 나무로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의 열매가, 야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그 산이 배경이 되어줄 때 어디서든 한라

자락의 유채꽃이나 억새는 더욱 풍부한 운치를 이룬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을 사람들은 늘 보면서 산다. 비록 오르지 않아도 늘 한라산을 오르며 산다.

제주로 들어와 살면서 제주인이 된 시인의 눈에도 한라산은 온갖 생명을 키워내
는 어머니의 산이다.

젊은 어머니의 산이여
가마솥 같은 산정
부드러운 어깨
넉넉한 품
수많은 나무와 꽃과 새들을
안아 먹인다

(나기철, <여름 한라산> 중)



그림 1-13. 성판악코스 속발 일대에 펼쳐지는 삼나무숲

그 산은 수많은 목숨을 보듬어 키우는 산이다. 또 그 산은 “동서남북 어디서 보아도 / 그만큼의 모습 / 보는 이로 하여금 / 그를 닮게 하고 / 또 닮게 한다”(나기철, <여름 한라산>).

한때의 열정이 다해 슬슬 몸을 비우고 싶어 하는 가을 산, 온갖 삶이 아로새겨진 가을산은 마음을 걸어 두고 오기에 좋다. 마음의 심한 신열도 산은 부려놓고 가라고 이른다.

“저 山엔 / 수많은 他關의 꽃들 / 발 잘 못 디디고 / 뒹굴다”(나기철, <가을 한라산>). 뒹굴다 흩어지고 있다. 그 가을 산에서 시인은 역사의 상처를 들여다본다. “가랑잎 날려 손발 저린 날 / 괴로운 꿈 접어 / 가을산을 오른다 / 도처에 신경 곤두세우는 나무들 / 인적없는 산에서 한나절을 떠다 / 살기 위해 죽음으로 왔던 사람들의 / 낮고 어두운 목소리 / 짧은 해 기우는 山頂 / 南道땅 온통 붉게 물들어 / 핏줄 느낄 때 / 가을 산은 부른다 / 참혹한 세월 가로질러 / 깨어나라 / 잠들지 마라”(김석교, <가을산>). 그러면서 그 강한 정신을 잃지 말 것을 주문하는 시인도 있다.

역새꽃들아, 일어서라 / 야산(野山) 구릉진 바윗틈 / 혹은 “빌레밭” 가시덤불 속 / 어디서든 꽃꽂이 일어서서 / 흔들리거라.

(김용길, <제주별곡 - 한라(漢拏)의 울음> 중)

겨울 산의 아름다움은 몸소 그곳에서 몸을 뉘어보지 않은 이는 모른다. 구상나무의 눈꽃을 보라. 누구라도 흘리지 않을 수 있으랴. 그 스산한 풍경과 목련 바람이 소임을 다한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겨울 산, 근시의 눈으로도 희부연 설봉, 그 야성의 숲이 이루는 침묵 앞에 시인도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

다만 겨울 산을 내려오면서 시인은 자신과 마주할 뿐이다. 자신의 내면에도 아름다운 눈꽃송이가 피어 있다는 것, 자신의 안에도 때때로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한다는 일, 그것을 느낄 뿐이다. 그것은 산이 준 작은 선물이다.

눈썹에도 눈꽃 한 송이씩 달고 산을 내려온다 / 그들은 자신이 눈썹이 / 눈꽃 한 송이씩을
 피워내는 줄 알지 못한다 /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어, 저 사람의 얼굴엔 / 참 예쁜 눈꽃송
 이 피었군 / 하고 마음속으로 부러워할 뿐. / 자기 얼굴에도 아름다운 눈꽃송이 피었는 줄
 알지 못한다 / 나도 내 얼굴에 눈꽃송이 재미있게 피었는 줄 알지 못했다 / 때로 나의 안
 예도 아름다운 내가 있다는 것을 /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인가.

(김광렬, <겨울산을 내려오며>)

겨울 산은 시리도록 아름답다. 적설의 산, 얼음으로 푸른색이었다. 굽이치며 달리
 는 백색의 산맥들, 눈 위에 드리워진 나무들의 푸르스름한 그림자, 참나무의 높은
 가지들에 새 동지처럼 걸려 있는 겨우살이의 붉은 열매들이 눈을 찌른다.

적송의 붉은 기둥 같은 적요함, 신비로운 풍경의 겨울 산을 시인은 걸어간다. 그
 리고 시인이 본 것은 무엇인가. “눈 내리는 겨울 한라산 / 산행에서 만난 / 한 마리 노
 루처럼 / 산새처럼 / 다만 열정 하나로 버티면 / 원시림 우거진 / 첩첩한 능선을 넘고
 또 넘어 / 내가 힘겹게 다다른 곳은 멀리 수평선이 보이는 / 산허리 / 숲속의 빈터였
 다”(강통원, <겨울 산行에서>).

한라의 설경은 한라산 깊숙이 들어가지 않아도 보인다. 아주 가까운 산자락에서
 눈부신 설무를 볼 수 있다. 최현식의 단편소설 <먼 산> 속에 나오는 한 장면. 한라산
 으로 탐석을 가는 길에 횡단도로로 들어서자 씨락눈이 안개처럼 내리는 산을 보면
 서 화자가 말한다. “이런 설무는 한라산이 아니면 볼 수가 없지요. 안개의 저 습기
 때문에 조난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몸에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다는군요.” 제
 주의 설경은 그리기가 매우 힘든 소재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는 말한다. “얼
 어들은 지식입니다만, 한라산의 광선은 편광이어서 풍경 전체가 완전한 백색이거
 나, 역광인 때는 완전한 회색이 되고 말기 때문에 포인트를 어디에다 뒀야 할지 당
 황하게 된다는군요.”

폭설의 한라산은 경험하지 않고 쉽게 해석할 수가 없다. 그 겨울의 한라산을 깊



그림 1-14. 한라산체의 서북사면, 풍화와 침식이 가속화되고 있다.

은 침묵으로 이끌고 있는 것은 구상나무이다. '살아 백 년, 죽어 백 년' 구상나무의 생에서 우리는 인간이 자연에 어떻게 다가가야 하는지를 겸허하게 느낀다.

1천5백여 종 넘게 꽃나무들 사는 할락산
 중허리에 무리 지어 사느니 언제나 파랗게
 고고한 것은 인간들 만드는
 시시한 절개 흉내냄 아니다
 아무 데나 뿌리 내려 살지 않는다 욕심 있는 인간들 모래 파내다
 제 집 정원에 심어 물주고 살기 강요하지만
 그런 사람과는 살지 않는다

차라리 노랗게 죽어버린다

(문충성, <구상나무> 중)

그랬다. 구상나무가 어떤 나무가. 그 푸르름을 베고 누워보라. 그리고 옛 가난한 어부들은 “구상나무 베어 테우 만들고 제주바다 / 험한 바다 물결 재우며”(문충성, <구상나무> 중) 삶을 살았다. “여름날 할락산에서 하룻밤 지낸 적 있느냐 / 하루가 열리는 장엄한 새벽 보았느냐 / 부서지는 햇살들 구상나무 열매에 걸려 내지르는 보랏빛 소리 들었느냐”(문충성, <구상나무> 중)고 묻는다. 정말 그래 본 적 있었던가. 나는 나에게 묻는다.

한라산 구상나무는 폭풍설을 거친 이듬해에 말라 죽는 개체가 생긴다고 한다. 세찬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면서 나무를 뒤덮은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뿌리가 뽑히기 때문이다. 고사한 나무들은 쓰러지지 않고 곳곳하게 버티어서 천고의 세월 동안 씻기고 흔들리며 결국은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살아서 백 년 살고 죽어서도 백 년 사는 고사목이라고 하는 것일까.

설문대할망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설문대할망의 집이다. 오백 아들들을 위해 죽을 끓이다가 죽술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그녀가 결국 물장울에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나, 여러 가지 변용을 거치며 생성되어온 이 거대한 할머니의 설화가 살아있는 곳이 바로 한라산이다.

설문대할망. 어린 시절 구비전승되던 이 할머니의 노래를 들은 시인들은 현대시로 <설문대할망>을 재창조하고 불러내었다.

문충성은 시집 <설문대할망> 속에서 그녀의 죽음을 알고 대성통곡하는 영실 오백장군바위로 좌정한 아들들의 눈물을 닦고 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열리던 날에 / 제주섬 솟아나고 / 이 섬에 설문대할망이 살았네……오백 아들은 어머니 죽음 알

고 캄캄하게 / 세상살이 절망이여 허망을 보았네 / 한라산 깊은 골로 들어가서 / 어머니 죽음 목놓아 통곡하고 눈물눈물 모아 눈물골을 만들어냈느니 / 그 눈물 흘러 정방, 천지연, 천제연 폭포가 되고 통곡하며 통곡하다 철쭉꽃이 되고 울긋불긋 진달래꽃밭 진달래꽃이 되고 / 어머니만 부르며 어머니만 그리다가 / 바위로 굳어져 / 오백 나한이 되고…”(문충성, <설문대할망> 중에서).

또 다른 설문대할망을 시로 풀어낸 문무병에게 있어서 한라산은 바람이며, 한라산은 조상이다. 한라산이 솟아나고 설문대할망이 태어났다. 그의 유장한 장시 <설문대할망>은 제주섬 역사의 전모를 담아낸다.



그림 1-15. 눈에 덮인 둔지봉 전경

잠을 자던 할머니가 눈을 뜨면 아침이 오고
할머니가 눈을 감으면 밤이 되니,
사람들은 할머니가 시키는 대로
밤이 되면 눈을 감아 잠을 자고,
낮이 되면 눈을 뜨고 일어나 일을 했다.
할머니가 숨을 쉬면 바람이 일고,
할머니의 입김으로 안개를 만들었다.
탐라 백성들은 할머니의 부드러운 살 위에
발을 갈았다.

(문무병, <설문대할망> 중에서)

한라산은 설화가 호흡하는 산이다. 한라를 모태로 둔 제주 시인들이기에 삶과 설화를 보는 눈이 유리되지 않았다. 제주 시인들의 시선은 바로 한라와 일체된 마음의 근원을 거기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마음에 비치는 산의 물상은 세월의 흐름을 타고 심상의 변화를 일으킨다. 어디 고정되어있는 마음이 있으랴. 그 변화야말로 자연인 산일 테지만, 우리는 산도 변화를 일으킨다고 생각한다.

4. 사람의 산,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 작가의 심상공간에서 무엇인가. 한라산은 온갖 심사를 끌어 안아 준다. 한라산이 중심이 되어 날씨가 변하고 그곳이 중심이 되어 사람들의 일상이 이뤄진다. 한라산의 나무로 산자락 아래 사람들은 집을 지었으며, 한라산의 열매와 야초가 사람을 살리기도 했다. 초봄까지 희끗희끗한 한라 설봉. 그 넉넉함에서 ‘큰 바위 얼굴’의 풍모를 느끼기도 한다.

한라산은 사람을 키워낸 산이다. 수많은 탐사가들이 그것의 자양분을 먹고 삶의 길을 일궜다. 섬땅의 쇠테우리들에게 한라산은 하나의 목장이었다. 한라산 자락 아래 사람들에게는 모두 그들의 정원이었다. 때문에 한라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부종휴는 제주 식물의 야인이다. 그로 인해 한라산의 식물은 비로소 이름을 얻었고, 제주의 잠자던 동굴이 눈을 뜨기도 했다.

나기철은 시 <부종휴 선생>을 통해서 “그분의 큰 안경이 빛났고 / 한라산처럼 맑고 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또한 그분에게선 “한라산 풀잎 스치는 소리만 났다 / 어딘지 쓸쓸하였다 / 그 후 나는 제주의 멋진 사내들이 다 한라산 계곡에서 시로미 익듯 / 영글었다는 것”을 되새긴다.

오성찬의 《한라산》, 그 방목의 공간

한라산이 인간 삶의 공간이라면, 또한 한라산은 소와 말의 공간이기도 하다. 오래전부터 방목의 공간이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자신을 방목하였다. 섬땅의 쇠테우리들에게 그 산은 하나의 목장이었다. 그 산은 사람의 산이었다. 그때, 방목하던 소 떼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오성찬의 중편 소설 《한라산》은 잃어버린 소를 찾아 나선 테우리의 눈으로 생생

하게 한라산을 담아낸 작품이다. 소년기를 한라산 기슭에서 테우리로 보냈다는 작가는 이 소설에서 산의 정경을 이렇게 담아내고 있다.

한참 걸어 삼나무 숲을 벗어나자 이번엔 휘쉴휘쉴한 서나무 숲이 진달래 철쭉나무들에 섞여 정갈하게 들어서 있었다. 키가 큰 서나무 아래엔 군데군데 잎 넓은 굴거리 나무와 침엽수인 노가리가 서 있어 숲에 더욱 신선한 기운이 돌았다. 삼나무 숲에서보다 낙엽 밟는 소리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밀림이 깊어지자 소들도 체념을 했는지 덜 두릿 거리고 발걸음도 순해졌다.



그림 1-16. 오름과 삼나무숲은 한겨울에 더욱 색다른 풍광을 빚어낸다.

그 시절, 방만한 목장의 서사시적 상황이 눈앞에 재현되는 듯하다. 산의 넉넉한 품에서 젖을 먹듯 야초를 먹고 야생으로 크던 자신의 소가 어느 날 행방불명되자 소를 찾으러 다니는 센오 서방은 한라산 구석구석을 쫓는다. 소의 방목은 선작지왓까지 이르렀다. 선작지왓의 풍경이 점점이 짝혀 있다.

바라봄의 대상이며 관조의 대상물로서의 한라산이 아니다. 그 산은 살아가는 산이다. 현재적 삶과 떼어 수 없는 존재로 다가오면서 그 산은 작가들에게 구체적인 상징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삶이 한라산이란 환경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비평가 송상일은 오성찬의 이 소설 <한라산>을 두고 “제주도민의 삶과 한라산의 바로 그런 측면을 그린 작품이다. 여기서 한라산은 빨치산의 아지트가 아니라, 방목



그림 1-17. 한라산체가 풍화·침식되면서 만물상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산이다. 그리고 방목은 제주도민에게 삶의 중요한 일부였다.”라고 한 평론《문학과 비평》(1990), 봄호)에서 거론했다.

소를 잃고 몇 달씩 산속을 헤매는 센오서방에게 산은, “거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 사람 힘이 못 미치는 멀고 높은 것이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존재로 다가온다. 그것은 역사 이전의, 그럼에도 분명 삶의 절실한 부분을 이루는 체험-이를테면 제주도민만의 운명 체험과도 같은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오성찬의 한라산은 “다래뿐만 아니라 으름 냉쿨도 여러 무더기가 교목 위로 높이 뻗어 있는” 가을 산이며, “가끔 노루나 오소리들이 튀어나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거나, “직박구리 무리들이 빼악 뺑 목청을 돋구어 울며”, “동박새들도 고운 소리로 울며 냇가의 상록수 사이를 돌아다니는” 겨울 산이다.

“지상 1천9백5십 미터, '갈마턱'위에 서자 산 아래 전경이 한눈에 굽어보였다. 면양 무리 같은 흰구름장이 상여가 지나가며 흘려 놓은 만장처럼 산의 이마를 두르고 있었다. 그 아래 확 단풍이 든 밀림이 마침 일출봉(日出峰) 옆으로 바다 위 구름을 덮고 올라오는 햇살을 받아 주황빛으로 타기 시작했다. 부챗살 햇빛을 받고 있는 오목 오목 자화산(子火山)들, 그 그리매도 상서로웠다. 백록담 안의 소떼들은 느지막이 숲속에서 기어나와서는 느릿느릿 물가의 이슬 머금은 풀을 뜯기 시작했다.”

(오성찬 소설 〈한라산〉중)

센오 서방은 밀림 속에서 다래, 으름을 따먹기도 하고 시로미를 따 먹기도 하면서 산열매에 취해 길을 헤매기도 했다. “소가죽을 갓 벗겨 뒤집어 놓은 듯 시뻘건 산딸 무더기”를 보고는 “잘 든 단풍으로 착각”해 처녀 젖꼭지 같은 자잘한 열매들을 입안에 털어놓기도 한다. 한라산의 생태계와 수풀은 또 자칫 방향을 잃게 만들기로 한다.

“그런데 그는 얼마 더 안 올라가 교목숲 아래에 뻑뻑하게 들어선 관목의 혼효림(混

滄林)을 만났다. 팡팡나무와 털진달래, 보리수나무들이 한데 섞여 춤춤하게 가시를 세우고 있었다. 한라산의 관목숲은 잘못 들었다가는 벗어나기가 무척 힘들고 혼이 난다는 걸 모르는 바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리 기웃거리 찾아봐도 좀체 뚫고 나갈 트인 구멍을 찾아낼 수 없었다. 산딸나무 꼭대기에 올라 바라본 ‘선작지마루’가 바로 눈앞인데 돌아가다가는 또 엉뚱한 데로 들지도 모른다.” 그는 그 산에서 느낀다. “거대한 산, 광활한 밀림, 이 모든 것들이 순응하며 살아가는 이 섭리, 여기에는 뭔가 사람 힘이 못 미치는 멀고 높은 것이 있다.”고 느낀다. “빈 밀림 속을 혼자서 헤매고 있으면 등 뒤에 문득문득 거대한 존재의 눈길이 느껴지곤”하였다는 셴오 서방이다.

아마 누구든 높은 산 중에 홀로 서 보라. 삶의 고의가 아닌 어긋남을 느끼는 것은 비단 셴오서방 만이겠는가. 어디선가 가느다란 인간의 존재를 지켜보고 있을 ‘존재의 눈길’은 어디 그 테우리만 느낄 것인가.

한라산의 얼굴

한라산은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그 얼굴이 다르다. 어떤 때는 한없이 높게만 보이고 어떤 때는 길게 보이는가 하면 어떤 때는 한없이 평화롭기만 하다. 그리고 어떤 때는 진정 슬픔에 겨워 어깨를 흐득이는 것 같다. 아마 바라보는 자의 마음의 심상과 무관하지 않을 터이다.

제주의 첫 관문을 통과하려면 한라산과 경배해야 한다. 바닷길을 헤쳐온 수많은 작가들이 한라산과의 조우를 벅차했다. 날씨 깨끗한 날 바다에서 맞는, 와락 달려드는 한라산의 얼굴은 누구에게나 서늘한 감동을 준다.

애월·한림 사람들은 그곳에서 본 산을, 구좌·성산 사람들은 그들이 선 곳에서의 한라산을, 모슬포 사람들은 아득한 한라산을, 위미·서귀 사람들은 남쪽 한라산에서 후덕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다. 어느 곳에 선들 한라산의 얼굴이 변하겠는가. 한라산의 눈동자가 변하겠는가. 다만 나의 눈이 변하는 것이다.



그림 1-18. 한라산은 노루의 보금자리이다.

영혼의 사진가 김영갑은 한라산 자락을 떠나지 못하고 홀로 살다 갔다. 한라산은 그의 영원한 고향이었다. 그는 타관에서 온 사람이었으나 한라산의 품에서 살다 갔다. 한라산에 낮게 옆드린 그는 구석구석 '삼시간의 황홀'을 포착해냈다. 그의 렌즈에 붙잡힌 한라산과 함께 실린 그의 산문을 옮긴다.

나에게 있어 한라산은 전체가 명상센터이다. 나는 어느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곳저곳 떠돌아 다니며 사진을 핑계삼아 명상을 한다. 수행자처럼 엄숙하게 대자연의 소식을 기다린다. 기다린다. 기다림은 내 자신을 정화시키기 위한 정신이다. 깊은 생각에 잠겨 내면의 소리에 귀기울인다.

(김영갑, 《삼시간에 붙잡힌 한라산의 황홀》중)

제주시 광평동(넙은드르)에서 태어난 제주의 민속학자 현용준. 그의 수필집 《한라산 오르듯이》를 보면, 이렇듯 한라산은 자신이 서 있는 지점에 따라 각기 다르고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준다. 보는 마음과 눈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 사람의 삶도 그러하겠으나 자연도 그러하다. 물론 한라산은 자신이 바라보는 지점에서 이미 얼굴이 바뀐다. 때문에 누구의 말이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을 일이다. 제주 사람들은 자기 고향에서 바라보는 한라산을 가장 아름다운 얼굴로 친다. 왜 그렇지 않으랴. 모든 아름다움에도 편애가 있는 법. 그 또한 자존이 아니겠는가.

현용준은 “넙은드르 입구에서 남쪽을 바라보면 한라산이 차분하고 어질게 서 있다. 한라산은 여기에서 보는 것이 제일 아름답다.”고 단언한다. 그것은 저마다 향수가 작용한 것일 수도 있다. 허나 그는 “냉정히 객관적으로 말해서 한라산은 넙은



그림 1-19. 영실계곡에 가을이 찾아들었다.



그림 1-20. 제주도는 360여 개의 자화산이 널려 있어 '오름의 왕국'이다.

드르에서 보는 것이 최고로 아름답다. 그 꼭대기는 마치 일본의 후지산 꼭대기처럼 생겼고, 양쪽 동서로 그 줄기가 뻗어 내려갔는데 그 균형이 딱 잡혀 있다. 거기다가 그 꼭대기 앞에는 큰도리가 둥그스름하게 받혀져 있어 산이 안정감을 주고, 선량하게 보인다.”고 강조한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는 그것의 근거로 오래 잊을 수 없는 자신의 체험을 든다. 그가 만났던 한라산 체험의 일절이다. “산 앞 기슭에는 아흔아홉골과 어승생 오름이 있어서 무미함을 막아주어 그 아름다움을 한층 돋우어 준다. 나는 이런 것이 한라산이로구나 하고 어릴 적부터 항상 생각해 왔다. 그러던 것이 열 살이 되어 처음으로 성안(제주시내) 구경을 했는데, 성안에서 보니 한라산 모습이 생판 달라졌다. 그때서야 한라산 모습은 가는 곳마다 달라짐을 알았지만, 넓은드르의 한라산에 비할 바가 아님을 느

졌다. 그 꼭대기 모습도 단정하지 못하고, 그 꼭대기 앞을 둥그렇게 받쳐 주어야 할
큰도리가 서쪽으로 뺏어내려 보기가 영 흉하다.”고.

다리를 벌린 듯한 모습의 한라가 영 눈에 거슬린 모양이다. 그리고 산기슭에 아흔
아홉골도 어승생 오름도 없어 끝마무리가 무미건조함을 지적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냇은드르에서 보는 한라산이 최고임을 확신하는 것이다. 동의하지 않아도 된
다. 정말 그의 표현이 과장인지 아닌지 느끼고 싶은 자, 그냥 그곳에서 한라를 만나
볼 일이다.

무너지는 한라산

그 옛날, 신화의 주인공 소천국이 사냥하던 곳, 잃어버린 마소를 찾으러 테우리들
이 범벅 도시락을 들고 이 산 저 산 다니던 곳, 집을 지으려고 나무를 하러 가던 곳,
약초 캐던 산, 4.3의 엄청난 피바람으로 잠들 수 없어 하던 산, 광풍이 지났으니 이
제 한라산은 정녕 평화로운가. 그 자애의 산은 그러나, 이제 예전 같지 않다. 피난처
이기도 하고 기쁨을 주었던 역사의 산이었으나 언제부턴가 수많은 인간의 망치가
그를 몽개고 있다.

한라산, 그는 가끔 울음 운다. 시인은 한라의 울음소리를 듣는다. 수많은 발길이
그를 몽개고 있는 한라, 사람들은 오래도록 한라산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다.

“한때 한라산의 하나였던 제주섬의 한라산 / 이 산에 케이블 카를 설치하겠
던 돈벌이꾼들 / 관광 개발이란 멋진 이름 내세워 / 우리의 山神 쫓아내겠다던 시대
도 있었지.”라고 고발한다. 그러나 한라산에 대한 기대는 저버릴 수 없다. 왜냐? “한
라산은 우리들 삶의 꿈이요 / 그 꿈의 마지막인 것을.”(문충성, <징징징 漢擎山은 울음 울
고>) 시인은 안다.

그렇게 편하게 만들고 개발하려 들수록 “징징징 한라산이 울음운다.”는 것이다.
나는 이 시처럼 한라산의 가슴이 짓이겨지는 순간을 수없이 봐왔다.

한라산은 다시 관광 개발이란 명분을 달고 가슴에 못질을 당할 위기를 여러 차례 겪어야 했다. 또한 지금도 수없이 한라산 자락의 오름들이 제 모습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그것을 바라보는 시인은 고통스럽다.

패인 상처마다 덮어줄 흙을 나르는 / 깊은 숲 고요를 깨는 모노레일 오르내리는 소리에 /
노루들 뒷발질하며 쏜살같이 사라진다.

(오영호, 〈한라산을 오르며〉 중)

어디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 한라의 흉가슴뿐이라. 한라가 키워낸 굴도, 마소 떼의 그림 같은 모습들도 제주도의 국제적인 개발 바람 위에서는 위태롭다. 제주가 제주다운 것은 원초적인 생명력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살아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주는 빈 껍데기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한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시인의 시대 인식은 새벽을 여는 한라산을 보면서 더 구체화된다. 우리는 어디까지 한라의 순수가 무너지는 광경을 바라봐야만 하는가. 여기서 시인은 경고한다.

여기저기 울망줄망 솟은 오름들과 질펀하게 펼쳐진 초원 위에 / 점점이 찍혀 있는 소떼들 / 그 아래로 금빛으로 빛나는 굴밭들이 황폐화된다면 / 쇠고기도 개방되어 / 이미 태반이 외지인의 것이 틀림없는, 저 광활한 목장의 / 마소떼의 그림 같은 모습마저 사라져 버린다면 / 제주 아름다움은 한낱 빈 껍데기 허약한 아름다움일 뿐 / 깊은 슬픔과 / 시름에 잠겨 있는 듯 한라산 정상은 구름에 덮여 있고 / 소솔이 바람에 하얗게 흔들리는 억새꽃 무리들은 / 승천하지 못하고 아직도 바람 따라 구름 따라 떠도는 / 이 땅의 한 많은 영혼들의 통곡인 듯 가슴 섬쩍했습니다.

(양정자, 〈여명의 한라산〉 중)

5. 한라산, 그 아름다움과 비애

한라산은 아름다움과 비애를 동시에 품고 있다. 그것의 비애는 그것이 가진 역사성이며 민중의 삶이다. 삶의 비의 없이 어떻게 온전한 아름다움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현대사에서 한라는 섬을 전략적 차원의 공간으로 이용하려는 이방인들로 인해 한바탕 속살까지 파헤쳐지는 아픔을 당해야 했다. 일본군의 요새로 이용되기도 한 흔적을 갖고 있다.

섬의 모든 길은 바다로 통했다. 제주도를 전진기지화 하는 데 이용하기 위한 일본의 전략 대상으로 시달려왔다. 현길언의 43 장편소설 《한라산》을 보면, 이미 한라



그림 1-21. 사철 푸르름을 간직한 선흘리 동백동산

산을 교두보로 삼기 위한 타자의 시선이 나온다. 그리고 43에 미국이 개입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제주 주둔 58군은 어떤 부대인가? 모두들 호기심을 가지면서 비행기에 탑승했다. 김포를 출발하여 1시간 30분쯤 경과했을 때, 조종사는 지금 제주해협에 들어섰다고 안내 방송을 했다. 그린은 창밖을 내다봤다. 파란 바다가 보였다. ‘한라산이 나타났다.’ 그린 맞은편에 앉아 있던 한 보도 요원이 소리를 질렀다. 그린도 그 산의 허리부분을 보았다. 망망대해 한가운데 높지 않은 산이 나타났는데, 그 해안 기슭에 하얀 파도가 부서지고 있었다. 제주도는 바로 한라산인 것처럼 느껴졌다. 고도를 낮춘 비행기가 해안선을 따라 날다가 방향을 바꾸자 산 중턱에 자리잡은 초원이 나타났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라산의 느낌이다.

“한라산은 동남아 직행의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는 것도 좋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부(濟釜) 제목간(濟木間)의 정기항로를 마칠 무렵의 바다 위에서 바라보는 한라산, 그것의 본체를 만나는 일이 무엇보다 행복하다.”고 한 이는 시인 고은이다. 그러나 과연 역사의 산으로 만날 때, 그때도 이렇듯 행복할까.

한라산에 대한 응시는 미래에 대한 예감을 암시하기도 한다. 한라산은 어쩌면 자신의 운명까지 꿰뚫고 있는 것일까. 이재수의 난을 그린 《변방에 우짖는 새》에서 현기영은 “절해에 우뚝 솟은 한라산에 오고 가는 구름이 다 걸려드는지 제주의 겨울 하늘은 음울하게 구름 끼어 있는 날이 많았다.”며 맑은 날을 보기 어려운 한라산의 앞날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다.

제주 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1948년 4월 3일, 이러한 역사 이전에 한라산은 신비의 영역이었다. 인간과 신들의 산, 평화로운 신화의 세계, 상상력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라산 공간은 이날로 삶과 유형의 극지가 되었다. 한라산의 운명은 비극적으로 변모한다. 무장대 혹은 살

기 위해 산으로 간 사람들은 휘몰아치는 숲에서 쫓고 쫓기면서 굴속에서 침묵의 세월을 보내야 했다.

그날 이후 한라산은 표의의 산이 아니었다. 그 산은 뽕뽕 언 겨울 산의 이미지로, 거친 역새고원으로, 그 풍경은 풍경을 떠나야 했다.

어찌 작가들이 철쭉꽃 하나라도 그대로 지나칠 수 있었겠는가. 그 처연한 붉음마저 그날의 선연한 핏자국으로 연상하는 수많은 제주의 시인들은 아름다움의 외피에 가려진 이 산을, 아픈 역사의 산을 글로 치유하려 했다. 위기와 격동의 역사를 타고 넘어야 했던 산, 그날 이후 43은 살아남은 자들에게, 현시대를 사는 많은 작가에게 하나의 지층으로 자리한다.

한라산은 이 43 광풍으로 구금되어야 했다. 그가 비로소 인간이 쳐놓은 사슬에서 풀려난 것은 1954년 금족령 해제였다. 주로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고 있는 한기팔 시인에게도 어느 날의 한라산은 핏자국으로 덮인 역새풀밭이다.

四·三事態 때

핏자국으로 돌아난 역새풀밭

곱게 난 길을 달려서 가면

더 밝은 곳의 물소리

바람소리에 귀를 여는 漢拏山.

한 개의 산이 되기까지

숫구침이 되기까지

그대 사는 일보다 서러운

별하늘 아래

삭신이 저려서 칼질이 되기까지

화약냄새가 되기까지.

(한기팔, 〈漢拏山·3〉)

수많은 원귀들의 산이 되었다. 하여, 그해 겨울의 한라산이 어떻게 기억에서 떠나겠는가. 일제강점기와 4.3의 운명을 겪게 된 산. 그때의 진실을 품고 있으나 입을 다문 한라산. 그 산의 아픔에 대해 많은 시인과 소설가들이 통곡을 부여잡고 함께 옆드리기도 했다.

4.3당시 많은 사람이 입산했다. 그 사람들은 산사람이 되었다. 그들은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간 사람들이었을까. 그렇지만도 않았다. 살기 위해서 올라야 했다. 한라산은 4.3의 애통함을, 입산의 문학을 탄생시켰다.

산으로 간다

무자 기축년 사월

사랑을 위해

산으로 간

그리운 사람이 그리워

달 없는 밤

올망졸망 어린 놈 입을 막고

산길을 떠난 그리운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동박낭 이파리로 허기를 채우고

죽더라도 피붙이는 지 애비 곁에 있어야 때 거르지 않는다며

허위적 허위적 산으로 간 후

반 백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는

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지금쯤 인적 끊긴 산자락 어드메에

두 눈 부라리고 살아 여태껏 끝나지 않은 사월에 살아

대나무 끝을 세우고 있을

그 사람을 찾아 산으로 간다
기어코 이루고야 말 사랑을 찾아
한라산으로 간다

(김수열, <임산>)

그리고 아무리 피비린내를 품고 있다 하여도 그 산은, 젊디젊은 어머니의 산이다.
“어디를 가나 살 끝에 와 닿는 푸른 / 푸른 바다 그 중심에 서느린 눈매로 당당히 선
젊은 산 / 어머니의 산”(김수열, 『저 산처럼』중)이다.



그림 1-22. 한라산 서남벽의 기암괴석

김용해의 한라산은 거의 절규에 가깝다.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가슴에는 / 저승길이 있구나 / 저승길을 잃어버린 죽음이 있
구나 / 밤만 되면 울부짖는 아우성도 있구나 / 한라산아 한라산아 / 네 길고 긴 40년 / 그
날의 꽃들이 피는구나 / 꽃을 보면서 / 새들이 울고 있구나 / 1948년 길 잃은 새들이 울고
있구나.

(김용해, 〈한라산〉)

그날 이후 한라산의 새들이 부르는 노래는 모두 울음이 되었다. 그 소리는 아픈
상처를 달래는 소리이기도 했다.

한라산 잡목숲엔 텃새 한 마리 숨어 산다. / 외가댁 대물림엔 늙어서도 목청이 고운 / 4·3
때 청상이 됐던 올해 칠순 이모가 산다. / 산이 산을 막고 무심이 무심을 불러 / 해마다 빠
꾸기 소리 제삼자처럼 듣고 있지만 / 이모님 원통한 숲엔 오뉴월 서리도 내렸으리. / 반백
년 나앉은 산은 등산처럼 말이 없고 / 꺼꼭 꺼꼭 꺼꼭 꺼꼭 숨어 우는 우리 이모 / 간곡히
제주 사투리로 되려 나를 타이르네.

(고정국, 〈한라산 빠꾸기〉)

김명식은 연작시집 《한라산에 피는 꽃들》을 통해 모든 꽃을 4·3의 전사로 승화하
고 있다. 그는 무수한 꽃들을 통해 4·3을 증언한다.

“살아남기 위해서는 / 한라산 쪽으로 더 깊숙이 / 더 올라가자 주장하던 / 떨리는
전사들의 숨소리 / 쟁쟁히 들려오는 목소리 / 마전동에 홀아비꽃 꽃대를 세워 피어
난다”(김명식, 〈홀아비꽃〉)거나 “4·3꽃 한라산 전사들”의 입산은 또 “질경이를 밟으며
/ 전사들은 / 산을 / 한라산을 오르고 / 섬을 / 제주 섬을 오른다”(〈질경이〉). “하나씩
하나씩 옮겨지는 / 상한 육신 / 메밀 쌀죽으로 원기를 돋구고 / 통증과 불안 가시고

나면 / 비로소 깊은 잠 잘 수 있었던 / 한라산 허리에는 / 물매화 해질녘까지 피어나
더라”(김명식,〈물매화〉)고 탄식한다.

또한 시인들의 의식 속에는 가위 놀리듯이 살아 있는 그날의 비극사가 못내 떠나지
않는다. “놀라지 마라 / 더러는 움푹 패인 자국을 보더라도 / 한라산 아흔 아홉 골을
돌아온 흔적이니라 / 웃지 마라 웃지 마라 / 얼굴 가득 송송한 수두 자국을 보더라도
/ 우영팻 지키며 살아온 세월이니라 / 누가 그러더냐 / 시름만 겹겹에 타고 있다고 / 더 있
음과 없음도 모르고 살던 우리이니라 /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속지 말아라 / 모진 바람
꺾어 들고 / 우리 사는 이 골목에 삼촌, 권당(친척을 이르는 말)이니라”(김순남,〈돌담〉).

해원 상생, 그날의 녀들을 달래기 위해 시인은 녀들을 백록담가 혹은 제주바다에
불러 놓고 해원하고 싶어한다. 비념하고 싶어한다.

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 길 찾으려다 길 잃었네 / 길 찾으려다 그대는 길 잃고 / 넋
달래려다 넋마저 놓았네 / 아직도 漢拏山麓 해매는 거친 발길 / 불진어 白鹿潭가에 묻어
주리 / 불아 濟州 바닷가에 뿌려주리 / 혼질 두질 들어가니 저승길 분명 / 우리 어명 무신 날
에 날 넣던가 / 靑靑靑 한라의 가슴에 슬피 한 줌 다시 살아나느니 / 눈 시린 물살 아래 메
역씨 두 줌 다시 싹 띄우나니 / 黃鹿 바람 맑은 바람 불어 올 때 / 잃어버린 이름, 그대 이
길로 오라 / 놓아버린 넋 달래어 어허 녀들라 / 이여이여 이여이여 受話로만 오십 년 / 숨
죽인 生靈을, 울음 죽인 靈駕를 / 곧은 길에 모두 불러 / 넋 살아 춤추게 하라”

(김석교,〈넋 달래려다 그대는 넋 놓고〉)

4.3의 핏자국이 선연하던 한라산의 겨울은 혹독했다. 매운 칼바람 속에서 지독
하게 고통스러웠던 것은 아이들이었다. 그 아이들을 필사적으로 살리기 위해 할머
니들은 자신의 목숨마저 주고 싶어 했다.

추워요 할머니
 어진아 이리 온 이 할망이 안아주마
 눈 덮인 한라산 살을 에이는
 바람은 길을 흐려놓고 아
 어디로 가야 하나
 할머니 배고파
 곡기를 본 지가 얼마인지 어진아
 조금만 더 가보자 어딘가에는
 사람이 이실거여
 양식이 이실거여
 졸려 할머니 나 졸려
 잠들지 말라 어진아 자면 죽는다
 발은 푹푹 빠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이는데 할망 눈에도 저승 문 턱이여...

(김경훈, 〈한라산의 겨울〉 중)

장일홍의 희곡 《붉은섬》의 제2장 〈입산〉은 섬 청년들이 산으로 오를 것이냐 마느냐에 대한 갈등의 순간이 절박하게 그려진다. 다음의 대화가 그렇다.

“청년4 : 놈들은 토끼몰이 식으로 이 섬의 청년들을 한라산으로 내몰고 있어. 수평선으로 갇혀 있는 섬에서 우린 어디로 피신해야 하나?”, “청년6 : 어르신네가 입산 금지령을 내린 걸 모르나? 입산하는 자는 마을에서 추방하겠다는 거야.”

한라산 자락으로 뻗어 나간 올망졸망 오름들은 그 어미의 품에서 빠져나가 독립을 선언한 듯 그 자체로 하나의 산을 이뤘다. 한라산을 따라 도열한 크고 작은 오름들을 향한 연정 역시 한라산에 대한 경배인 셈이다. 오름 어느 곳인들 그해의 피바

람이 서리서리 휘감지 않은 곳 있으랴. 그 오름의 꽃향유나 뽕기꽃에서는 아리고 아린 비린내가 묻어난다.

첫알오름 / 흰 뽕기꽃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었지 / 저승에서도 고개를 흔드는 젊은 아버지 / 흰 수염이 휘이휘이 오름을 오르고 있었지 / (百祖) / 팔월 땡별 아래 / 가슴 속 불기둥이 죄 되던 시절 있었지 / 회오리에 휘말린 아버지들이 / 단음의 비명으로 무릎 꿇었다지 / 서까래가 무너지고 구들장이 내려앉고 / 알 수 없는 암호처럼 불어닥친 모래바람 / 어느 편에 선들 세상이 바로 보였을까 / (百祖) / 흰 뽕기꽃엔 비린내가 깊이 배었다지 / 아무리 씹어도 잘 가시지 않는 냄새에는 / 썩어 문드러지지 않는 상처가 있지 / 저 오름 끝 캄캄한 낭떠러지 / 너털너털해진 겉으로 해매는 영혼들이 / 버리듯, 버려지듯 뺏가루를 날리지 / 그 꽃씨 고스란히 받아 안은 첫알오름 / 가슴 저릿저릿해지지.

(정균철, <명징한 꽃-百祖-孫之墓>)

현기영, 기억 속의 한라산

우리 단편 문학사에 남을 빛나는 작품이라는 현기영의 <마지막 테우리>를 읽다 보면 비애와 미감이 동시에 포개진다. 43 공간을 떠날 수 없는 한라산 중산간 초원은 평화의 상징이며 비극의 상징이다.

중산간 지대가 피의 냄새로 진동하게 되던 날을 떠올리는 늙은 테우리는 함께 늙어가는 야생의 초원을 떠날 수 없어 한다. 일흔여덟 살의 고순만 노인. 그는 쓸쓸하게 해발 800m 고지에 있는 마을 공동목장의 쇠테우리로 과거사를 벗어나지 못하는 노인이다. 당시 무수한 사람들이 죽어가고 무수한 마소가 전멸되던 그 광기의 43에서 살아남았으나 노인은 43의 기억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그림 1-23. 효돈천 발원지대인 한라산 서남벽 일대

노인은 해변의 인간잡사보다 초원의 야생이 좋았다. 초원은 옛 바람이 그대로 불어와, 법 밖에 세월 밖에 존재하는 양 생활이 임의로웠다. 구름 자락이 와닿는 오름 위에서 뗏자국 늘어 붙은 것 같은 해변의 도시와 마을들을 바라보노라면 자신이 마치 다른 나라 백성인 듯이 여겨지기도 했다.

(현기영, 〈마지막 테우리〉 중)

현기영은 그 산의 증언으로 살려놓는다. 다음의 묘사는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게 만든다. 당시 중산간 지대의 오름들에서는 봉화가 타올랐다. 그 오름들은 밖으로는 한라산이 거느린 새끼들처럼 평화롭기만 했으나 그것의 속내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중산간지대 이백여 마을이 불에 타면서 한라산은 살육의 피구름으로 덮였다. 수도 없이 많은 젊은이들이 죽어갔다. 남편 내나라, 아들 내나라 하더니 급기야는 임신한 남편 대신 아내가 죽어야 하고, 임신한 아들 대신 에미 애비가 죽어야 하는 잔혹한 대살(代殺)행위가 자행되었다. ...임산도 두렵고 마을에 있기도 두려워 어중간한 곳에 피신한 청년들도 임신자로 간주되었다. 물로 갇힌 섬중이라 임산이 아니면 숨을 데가 없어, 어제 본 사람 오늘 없고, 아침에 본 사람 저녁에 없었다. 도처에 떼주검들이 늘비하고 핏물이 고랑을 파고 흘렀다.

(현기영, <거룩한 생애> 중)

책무처럼 4.3을 쓸 수밖에 없었던 현기영의 오래된 예감은 이미 대학 시절에 예고 없이 찾아온 것이었다. 당시 한라산에 오른 작가는 “거대한 암흑덩어리의 산, 술한 사람들이 비명에 죽어간 비극의 산, 그 산 한가운데에 눈썹같은 모닥불을 안고 버티는 ‘나’라는 한 점의 생명, 저승에 안착하지 못해 허공 중에 떠도는 그 원혼들이 내 생명을 꺼뜨리려고 무리지어 나를 에워싸고 있는 것만 같아서”(현기영(1990), 《문학과 비평》, 봄호)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정상에 오르지 않고 하산해 버렸다 한다. 하여 그날의 경험을 묘사한 단편 작품 <산정을 향하여>를 썼다.

아이들의 눈에도 그해 겨울 이후 한라산은 예전의 한라산이 아니었다. 수많은 사람이 산으로 피난을 간 후 그 산은 그냥 그대로의 배경이 될 수 없었다.

“그렇다. 저 한라산과 그 둘레 별판의 눈 속에, 한때 6천 명 이상의 피난민이 숨어 있었다. 한번은 내가 밀기울범벅을 먹기 싫다고 뺨대다가 한라산 눈구덩이 속에 굴고 있는 내 동무 지예와 완식이를 생각하라는 어머니의 꾸중이 가슴 뜨끔해진 적이 있었다.”

성장소설 <지상에 순가락 하나>에서 그 시절을 고백한 작가는 “아이들과 놀다가 도 문득문득 시선이 산 쪽으로 가곤 했는데 그때마다 한라산은 수심에 찬 듯 구름

속에 잠겨 있곤” 했던 것을 기억한다.

흰 눈 위에 산지사방으로 달아나는 사람들을 뒤쫓으며 습격자들은 아마 토끼몰이 기분
을 만끽했던 모양이다. 습격 때마다 걸음이 늦어 뒤쳐지는 노인, 어린애, 그리고 어린애
가 딸린 여자의 희생이 컸다. 빨리 못 걷는다고 제 새끼를 소 때리듯 때리며 사색이 되어
허둥대다가 총탄에 쓰러진 젊은 아낙들, 쓰러진 어미 곁에서 울고 있는 아이들마저 총검
으로 산적 꿰듯 꿰더라 했다. 백설 위에 낭자히 뿌려진 선혈이 소름끼치게 붉더라 했다.
겨우내 수심에 찬 듯 구름 속에 잠겨 있던 한라산….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중)

한라산은 아주 가까이 있다. 가끔 사람들은 한숨을 쉬며 악산이라고 말한다. 그
리고 어떤 날은 그렇지 않다고 한다. 어린아이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

정상의 멧부리 바로 아래 급경사로 파여내린 탐라계곡, 가까워서 크게 확대되어 보인
다. 작은 구름의 움직임도 잘 보인다. 그 계곡에 출몰하는 구름을 본다. 정말 자궁같이 생
겼다. 물의 원천이기도 한 그 깊은 자궁에서 구름이 태어나 솟아오르기도 하고, 밖의 구
름이 그 안으로 휩쓸려들기도 한다. 제 새끼를 낳았다가 다시 거둬가는 그 자궁을 보면
서, 나는 제 새끼들을 잡아먹은 암돼지 같다고, 한라산을 악산(惡山)이라고, 한껏 미워해
본다. 그러나 그 주검들이 어찌 한라산의 잘못일까.

(현기영, 《지상에 손가락 하나》중)

4.3과 겨울 산에서의 생활

4.3 비극의 참혹성을 고발하는 오경훈의 《침묵의 세월》은 무장대에서 연락원으로 활동하는 주인공 고행림을 통해 4.3의 여러 가지 양상과 측면을 다루고 있다. 특히 그가 묘사하는 입산 생활은 혹독하고 거칠다.

“산생활은 기다림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구. 불편한 잠자리, 거칠은 음식, 고독과 외로움, 그 위에 끊임없이 끼어드는 불안은 견뎌내기 어렵다. 나는 신참 동지의 입장에서 말하고 있는 거야. 미리 얘기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라고 하면서 “사나이는 창대를 움켜잡아 그것을 몸쪽으로 당겨 곳곳이 세우면서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싸워야 한다. 행림도 상대방의 화제에 맞추려고 가벼운 소리를 내었다.”

입산생활에서 여자 대원들의 생활까지 담아내고 있는 《침묵의 세월》은 기상, 점호, 훈련, 강의, 식사, 아지트 이동, 막사짓기, 전투 등 산에서의 긴장된 정황을 두루 그리고 있다. 그 대목은 이렇다.



그림 1-24. 늦가을 산별근내에 떨어진 낙엽

행림은 가는 곳마다 눈을 놀라게 하는 백골과 마주쳤다. 들국화가 시들어가고 있는 언덕에서, 계곡에서, 허연 뼈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다. 누가 죽인 것인가. 사람의 뼈도 있고 동물의 뼈도 있다. 가축을 몰고 나온 사람들이 가축과 함께 죽은 것으로 보였다. 동물도 사람도 턱을 크게 벌리고 무슨 소리를 외치고 있는 모양이었다.

(오경훈, 《침묵의 세월》 중)

4.3 입산자의 겨울은 참혹했다. 눈 위에 발자국을 남기면 안 되는 것, 그것은 불문율이었다.

겨울 산에서 부청하는 자신의 발자국을 쓸어 감추면서 보행을 계속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냇가에서 언 땅을 파서 귀틀집을 짓고, 그리고 밤에는 활동 전선에 나섰다. 나부끼는 뼈라와 선무 방송의 유혹을 물리치는 일도 쉽지 않았다. 그가 토벌대에게 백기를 드는 행위는 죽은 동지와 무고한 양민 희생자에 대한 배신 행위였다.

(김관후, 〈두 노인〉 중)

추운 겨울 산에서의 입산 생활에 대한 부분이다. 가팔랐던 생의 벼랑을 느끼게 하는 4.3의 정황들이 여기저기서 암반처럼 솟아난다.

눈은 한라산의 고산지대에서도 기온이 급강하하면 비슷한 모습으로 피어났다. 미리 나무에 내려 앉아 있던 이슬이나 습기가 기온이 급강하하면 얼어붙으며 그대로 꽃으로 피어났다. 이런 때 멀리서 바라보면 산은 꼭 부케를 든 신부의 모습과 같다.”

(오성찬, 〈겨울 산행〉 중)

4.3의 선봉에 이덕구가 사살될 때까지 저항의 근거지로 삼았던 산속 요새를 눈이 내리는 가운데 찾아가는 이야기인 오성찬의 〈겨울산행〉에서는 견고한 겨울산

의 묘사가 생생하다.

“정갈한 교목 숲에 눈은 이제 시나브로 흩날리고 있었다. 바람이 자니까 추운 느낌도 덜했다. 의연하게 눈덮인 한라산 정상이 ‘나는 모든 역사의 진실을 알고 있다’는 자세로 버티고 있었다. 그러나 산은 그 이상은 아무 말도 하려 들지 않았다.”

그의 소설 속에 등장하는 서나무, 제주조릿대, 보리수, 다래넝쿨, 청미래덩굴 등 수많은 식물은 을씨년스런 한라의 어둠 속에서도 겨울을 견디고 있다.

김석범 《화산도》의 한라산

제주 출신 재일 작가 김석범. 그는 20여 년에 걸친 필생의 역작 43장편소설 《화산도》를 썼다. 1948년 2월을 시점으로 한 《화산도》의 서장(序章)은 ‘한라산을 주봉으로 한 사라봉’의 모습과 바다 풍경을 그리고 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와 아득히 먼 산에서는 또 눈이 내렸다. 하늘을 가득 메운 구름으로 산 중턱까지 덮인 한라산이 광대한 산록이 새하얗게 변했다.”는 서술에서 4.3의 전조를 감지하게 한다.

“신작로에 면한 검은 돌담은 거의 끊어지고 이어져 있었다. 멀리 보이는 밭의 저 너머에는 완만한 경사를 이룬 드넓은 들판이 펼쳐져, 눈덮인 한라산의 웅대한 산록에 끼안겨 있었다.”

김석범은 여기서 한라산의 삼의양오름에서 본 한라산의 자태를 농염하게 그려내고 있다. 산천단 언저리에서 동쪽을 보면 한라산록의 완만한 경사가 드넓은 고원이 되어 끝없이 이어지고 여기저기에 크고 작은 오름들을 볼 수 있다. 이 산천단에서 300~400m쯤 떨어진 곳에서 삼의양오름이 솟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25. 오름 곳곳에서 세월의 흔적을 느끼게 하는 동자석을 만날 수 있다.

이 오름의 정상에서 산록에 이르기까지 깊이 패어 있는 골짜기에 나무가 뽕뽕이 들이차, 멀리서 바라보면 여자의 음부(陰部)와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게다가 골짜기의 검붉은 바위틈에서 샘이 솟고 있기 때문에, 멀리서 바라보면 그 부분이 항상 촉촉이 젖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상상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거는 한라산 중앙부의 모양이었다. 정상의 양 옆구리에서 힘하게 깎여 천천히 곡선을 그리며 내려오는 깊은 골짜기 사이에 거대한 돌출부가 솟아 있는데, 이 돌출부위 끝이 마침 삼의양오름의 골짜기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자연의 조화가 이루어낸 절묘한 짝짓기라고나 할까. 그 돌출부와 삼의양오름의 골짜기는 그 모습과 위치가 인간의 소박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다.

그림 같은 이 묘사는 얼마나 육감적인가. 작가는 제주에서 직접 4.3을 겪지는 않았다. 일본에서 간접적으로 취재한 내용으로 소설을 쓴 것이다. 그러면서도 그가 입력했던 한라산 묘사는 세밀하다. 작가에게 다가간 한라산은 상상의 원천임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이다.

이방근이 아는 사람 가운데, 그런 발상에서 영봉 한라산의 목탄화를 그린 남자가 있다. 한라산의 실제 모습을 상당히 변형시킨 그 그림은 에로틱하기도 하고 웬지 그로테스크하기도 하며, 게다가 유모어까지 품기고 있었다. 유화도 수채화도 아니고 왜 하필 목탄화인지는 모른다. 그러나 그 흑백의 산풍경이 묘하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부드럽고 육감적인 감촉을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었다. 어쨌든 자연을 그렇게 짜맞춰 보는 것은 유쾌한 상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한라산의 거대한 돌출부에 비하면, 높이 6백 미터도 채 안 되는 삼의양 오름의 골짜기는 너무 작아 보여서, 좀 가련한 느낌이 들지 않는 것도 아니다.

(김석범, 《화산도》, 제7장 5절)

외지작가들이 본 4.3과 한라산

한라산은 제주 시인만의 전유물인가. 한라산은 민족의 산이다. 한국전쟁에 버금가는 비극사인 4.3의 한라산은 1948년 월북작가 강승한의 서사시 <한나산>에서 시작된다. 과도적 시공간에서, 제주도 한라산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가를 쓰고 있다. 황해도 신천군 석당리 출신이라고 되어 있는 그는 한국전쟁 때 피살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4.3의 발발 때 한라산을 시로 형상화 한 사람은 제주 출신이 아닌, 전라남도 영광군의 출신 조운(1900~?)이다. 그의 <유자>전문은 이렇다.

柚子는 향기롭다 祖國처럼 향기롭다
 이울줄 모르는 앞에 안겨 자랐노니
 가시城 六百里두리 漢拏山을 지킨다

물을 건너오면 탕자된다 하거니와
 물을 건너가면 탕자도 柚子 된지
 밤마다 漢拏山봉우리 별이 불른다노나

“그는 한라산을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 시가 쓰여진 시점은 1948년 6월이다. 제주도에서는 4.3의 화염이 진동하던 시기였다. 그리고 남도에 살던 시인은 제주도의 이 난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한라산 봉우리를 아마 염두에 두었을 것이라고 시인 정양은 적고 있다.

“한라산 봉우리가 아닌, 한라산 봉우리에 내리는 별빛을 바라보면서 한라산을 그리워하고 있는 것이다. 물을 건너가는 것, 건너가서 ‘이울 줄 모르는 앞에 안겨’ 사는 유자가 되어 가시 성(城)을 두르고 한라산을 지키며 조국을 그 향기로 채우고 싶은 화자는 밤마다 한라산 봉우리의 별을 바라보면서 ‘물을 건너가면 탕자도 유자 될지’ 반신 반의(半信半疑)하면서 가능성이 희박한 그 희망을 간절하게 곱씹고 있다.”

정양이 쓴 <시조시인 조운과 탕자의 꿈>(《유심》, 2001, 여름호)의 한 부분이다. 정양의 서술을 읽으면서 <유자>를 읽어보면, 그 뜻이 얼마나 곡진한가를 헤아려 볼 수 있다.

그러한 4.3의 한라산은 40여 년이 지나 이산하의 서사시 <한라산>(1986)으로 탄생했다. 이산하의 고향 역시 제주가 아니다. 그러나 그의 몸과 시대정신은 제주를 배태할 수밖에 없었다. 그것의 증거로 그는 장시 <한라산>을 통해 4.3의 전사를 기록하고 있다. 이 시는 이미 탄생부터 구금을 무릅쓰고 나왔다. 그로 인해 혹독한 감

옥의 시간을 겪어야 했다. <한라산>을 쓰고 국가보안법 위반이란 이름으로 감옥살이를 한 것이다. 그 한라산은 “햇바닥을 깨물 통곡 없이는 갈 수 없는 땅, 발가락을 자를 분노 없이는 오를 수 없는 산”이었다.

‘와아’하는 함성과 함께 / 한라산 모든 봉우리란 봉우리는 / 분노와 해방의 봉화불이 치
솟아 / 착취와 어둠을 삼키고 / 숨죽이던 바다는 온몸으로 철썩대기 시작했다 / 자위대, /
민애청, / 농민동맹, / 여맹원, / 학생동맹, / 소년 선봉대까지... / 죽창과 총을 든 전사들
이 / 한라산에서 물밑 듯이 내려와 / 정해진 목표물을 / 하나씩 제거해나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산은 “일자무식한 사람들도 / 하나 둘씩 식량보따리를 싸들고 / 산으로 / 산으로” 들어갔던 산이었으며, “피를 묻고 / 살을 묻고 / 뼈를 묻는 / 흑한의 한라산 / 그 눈덮인 산하”(이산하, <한라산>)의 한라산이었다.

이후, 4월 제주를 찾은 제주 밖의 시인들에게 한라산은 “미움 돌팔매질 하는 / 풀뿌리 민초들 / 자유와 알 권리 위해 온 섬 떨치어 / 골골이 울린 함성 / 채 다하지 않은 노래 / 시대의 벽 허물어 아침을 재촉하니 / 잠들지 말라 한라산 / 오름마다 선혈로 메아리지는 / 피의 달 4월이 오면”(안도섭, <한라산>중)처럼 비감 어린 한라산이 되었다.

한 서린 땅임을 예감하는 시인은 “이어도라 이어도라 / 알 수 없는 노래 소리뿐 / 해녀는 말이 없고 / 옛 유배의 땅 제주 / 43사건에 얼룩진 제주 / 흙 한줌도 바람 한 귀도 곱게 잠들 수 없는 / 사연 다 알고 있으면만 / 주야로 구름 덮어 쓰고 / 말 아니 하는 한라정상 / 지금은 휴화산 / 백록담 분화구도 / 만장굴·협재굴도 / 꿀꺽 삼켜버린 제주 백성의 한을 / 입 다물고 있네”(정대구, <제주도의 침묵> 중)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 비록 제주 바깥에서 온 시인들이지만 그들의 눈에 이미 한라산은 서정의 공간만은 아닌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외부자의 시각에서 본 그곳은 피상적인 43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다.

6. 외부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정지용의 백록담, 그리고 생태계를 노래함

한라의 절정, ‘백록담’에 대한 절창은 이미 정지용(鄭芝溶 1902~?)에게서 결단났다. 빼어난 감수성이 굽이치는 언어 감각으로 조탁한 걸작 〈백록담〉이 탄생한 것은 1938년 국토순례 길에서였다.

그의 한라산 순례는 시인의 특출한 시적 탐구에 의해 그 시절 한라의 본모습을 그려볼 수 있게 한다. 시 한 편이 그려내는 한라의 풍광은 그야말로 다채롭고 무궁



그림 1-26. 한라산과 오름은 어디서든 다정다감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인다.

무진하다. 종합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한 소절 한 소절 긴장과 이완이 이어지는 <백록담>은 이후, 한라산을 오르는 사람들의 후렴구가 되었다.

그때 그가 대했던 한라산은 “한눈에 정이 들어 즉시 몸을 맡기도록 믿음직스러운 가슴과 팔을 벌리는 산”이며 그 산은 그에게 “동방화축에 초야를 새우울 제 바로 모신 님이 수집고 부끄럽고 아직 설어 겨울뿐일러니 그 님의 그 얼굴 그 모습이 사동창이 아주 희자솟는 해를 품은 듯 와락 사랑롭게 뵈입는 신부와 같이 나는 이날 아침에 평생 그리던 산을 바로 모시게”된 감격의 산이었다. 평화의 산이었다.

10년 후, 한라산 등허리가 채찍질 당하는 고통을 예감하지도 않았다. 그 시절, 한라산은 말과 소의 방목과 인간과 짐승과 자연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정경이었다. 그는 거기서 본 것은 온갖 자연이 가꾸 놓은 생태계였다.

한라산 정상 백록담에는 맑고 푸른 물이 있었으며, 그 맑은 물에 하늘이 비치고 있는 것도 보았다. 거기에다 피꼬리, 휘파람새, 동백, 풍란, 떡갈나무, 고사리 등등 한라산 여기저기에 널려 있는 생태계를 살려 놓는다. 1946년판(白楊堂版)의 <백록담>부분을 보자.

絶頂에 가까울수록 백국채 꽃키가 점점 消耗된다. 한마루 오르면 허리가 슬어지고 다시 한마루에서 모가지가 없고 나중에는 얼굴만 가웃 내다본다. 花紋처럼 版 박힌다. 바람이 차기가 함경도끝과 맞서는 데서 백국채 키는 아조 없어지고도 八月 한철엔 흩어진 星辰 처럼 爛漫하다. 山그림자 어둑어둑하면 그러지 않아도 백국채 꽃밭에서 별들이 켜든다. 제자리에서 별이 옮긴다. 나는 여기서 기진했다.

시인은 가다가 “암고란, 환약같이 어여쁜 열매로 목을 축이고 살어 일어”섰으며 그곳, “귀신도 쫓쫓하여 살지 않는 한 모퉁이”에서 “도채비꽃이 낮에도 혼자 무서워 파랗게” 질리는 모습도 만난다. 마소가 평화롭게 노닐었던 한라산을 그의 시에서 상상하기란 어렵지 않다. “바야흐로 해발 6십척우에서 마소가 사람을 대수롭게

아니 녀기고 산다. 말이 말끼리 소가 소끼리, 망아지가 어미소를 송아지가 어미말을 따르다가 이내 헤어진다.” 시인의 상상력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

첫새끼를 낳노라고 암소가 몹시 혼이 났다. 열걸에 山길 百里를 돌아 서귀포로 달아났다. 물도 마르기 전에 어미를 여힌 송아지는 음매~음매~ 울었다. 말을 보고도 등산객을 보고도 마고 매여다녔다. 우리 새끼들도 毛色이 다른 어미한테 말길 것을 나는 울었다.

시인은 다시 사방에서 나는 산의 소리에 소스라친다.

風蘭이 풍기는 향기, 꼬꼬리 서로 부르는 소리, 제주휘파람새 휘파람부는 소리, 돌에 물이 따로 굴르는 소리, 먼 데서 바다가 구길 때 쇠~ 쇠~ 솔소리, 물푸레 동백 떡갈나무 속에서 나는 길을 잘못 들었다가 다시 측년출 기여간 희돌바기 고부랑길로 나섰다. 문득 마주친 아롱점말이 피하지 않는다.

수많은 식물도 살고 있는 한라산을 지나서 그는 드디어 백록담 가까이 간다. 그 백록담엔 무엇이 살고 있을까.

고비 고사리 더덕순 도라지꽃 취 삭갓나물 대풀 石耳 별과 같은 방울을 달은 고산식물을 색이며 醉하며 자며 한다. 백록담 조잘한 물을 그리여 산맥우에서 짓는 행렬이 구름보다 장엄하다. 소나기 늦녓 맞으며 무지개에 말리우며 궁둥이에 꽃물 이겨 불인채로 살이 붓는다.

백록담 맑은 물은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 놓았다. 적어도 그 시절엔. 신성한 공간의 이미지와 시인의 쓸쓸한 내면 풍경이 그대로 백록담 맑은 물에 비친다.

가재도 기지 않는 백록담 푸른 물에 하늘이
돈다. 불구에 가깝도록 고단한 나의 다리
를 돌아 소가 갔다. 쫓겨온 실구름 一株에
도 백록담은 흐리운다. 나의 얼굴에 한나
잘 포긴 한라산은 쓸쓸하다. 나는 깨다 졸
다 기도조차 잊었더라.

정지용이 그 산에 어떤 민족적인 의식
의 수사를 입혔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순수하게 그는 그 산에 자신을 맡겼다. 그
것의 증거는 1938년 조선일보에 발표된
산문에서 보인다. 시는 산문보다 조금 후
인 1939년에 발표됐기 때문이다.

산의 매력은 하산할 때까지 이어진다.
그것은 산에서 받은 기운이 오래도록 자신을 맴돌기 때문이 아닐까. 정지용은 한라
산 경험을 못내 잊을 수 없었다. 그의 기행산문 <多島海記(다도해기)> 중 다섯 번째
<一片樂土>라는 글이다. 산을 처음 대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반가웠던 시인에게 한
라산은 거룩한 얼굴이다.

… 해면에는 아직도 夜色(야색)이 개이지 않았는지 물결이 개운한 아침 얼굴을 보이지
않았겠만 한라산 이마는 아름답한 자주빛이며 옅은 보랏빛으로 물들은 것이 더욱 거룩
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한라에 대한 선입견을 모두 지워버릴 수밖에 없었다. “제주도는 마
침내 한라 영봉의 오롯한 한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곳인데 산이 하두 너그럽고 은혜



그림 1-27. 수정란풀



그림 1-28. 으름난초

로워 산록을 둘러 인축(人畜)을 깃들이게 하여 자고로 넷 골을 이루도록 한 것”이라고 자각한다. 그러면서 그는 사람들의 삶에 “들을 갈아 밭을 이룩하고 우마를 고원에 방목하여 생업을 삼고 그러고도 동녀(童女)까지라도 열길 물 속에 들어 어패와 해조를 낚아 내는 것입니다. 생활과 근로가 이와 같이 명쾌히 분방히 의롭게 영위되는 곳이 다시 있으리까?”라고 한다.

그의 여섯 번째 글 〈귀거래(歸去來)〉에서는 그 감흥이 비화되어 자못 충만한 여유로 흘러넘친다.

해발 1950米突(미돌 : 미터)이요 리수(里數)로는 60리가 넘는 산 꼭두에 천고(千古)의 신비를 감추고 있는 백록담 푸르고 맑은 물을 고삐도 없이 유유자적하는 牧牛(목우)들과 함께 마시며 한나절 놀았습니다… 산행 120리에 과도히 피로한 탓이나 아니올지 나려와서 하룻밤을 잘도 잤건마는 축항(築港)부두로 한낮에 돌아다닐 적에도 여태껏 풍란(風蘭)의 향기가 코에 알른거리는 것이고, 입안 가득 고산식물 암고란(岩高欄 : 시로미) 열매의 달고 신맛을 느낀다.

(《정지용 전집 2》, p.125.)

그렇게 산에서 내려와 바닷가에 온 시인. 그 자신도 그 산의 기운은 온몸을 감도는 것에 소스라친다. 바닷가 돌 위에서 눈을 감으면 “그 살찌고 순하고 사람 따르는

고원의 마소들이 나의 뇌수를 꿈과 같이 밟고 지나며” 피꼬리와 휘파람새나 “이름도 모를 진기한 새들의 아름다운 소리가” 그의 귀를 소란스럽게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문시 같은 알싸한 이 문학적 향취는 어디서 온 것일까.

정지용의 <백록담>을 깊게 파헤친 비평가 김병택은 <백록담>이 “한마디로 대상이 되는 사물인 자연과 일체를 이루는 경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하고, “그 자연은 구체적으로 한라산인데, 화자는 그것의 높이와 빼죽채 꽃키를 반비례의 관계로 파악하는 등 어떠한 주관도 개입되지 않는, 관화와 같은 세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이 시는 백록담을 비롯한 한라산 도처의 신비로운 경관을, 관념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보여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백록담 이상의 높은 공간을 지향하는 의미의 움직임이 전혀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기도 하다.”고 평한다.

한라산으로 가는 길은 크고 작은 야생화들도 기웃거리면서 가는 길이다. 박목월의 시 <溪谷> 등은 한라산의 생태계에 대해서 또 다른 인식을 하게 하는 시들이다.

피난기에 제주를 찾았던 박목월. 한라산 숲에 몸을 맡기고, 그의 예민한 눈은 식물에 빼앗긴다.

자밤나무, 노가리, 동백, 조롱, 식나무, 돈나무, 굴거리, 모람, 막상녕쿨, 정가리, 황철목, 팻배나무... 얼키고 설키고 물줄기 따라 골짜기는 바다로 있었는데 / 중허리 하얀 돌다리에 말. 溪谷을 굽어보는 나의 分身 비에 젖었다.

(박목월, <溪谷>)

한라산의 굴거리나무는 언제 봐도 그 푸르름에 질리게 된다. 그 완강한 푸른 빛은 사계절을 망라하는 압도적인 몸을 가졌다. 시인은 아마도 한라산 영실로 가는 길, 굴거리나무 하나가 그늘이 되는 그 산의 목가적인 멋스러움을, 초록의 설화가 얹혀 있는 그 상경을 쉬이 잊을 수 없었을 터이다.

漢拏山 기슭에는 전혀 낮 선 사투리로 나부끼는 풀빛. 빛나는 / 바람. 다만 굴거리 나무와
굴거리 잎새는 내가 접지되는 그날부터 / 나와 親熟한, 다정한 눈짓을 보내고 있었다. 그
어수룩한 정다운 나무를 知天命의 下年에 邂逅했다.

(박목월, <굴거리나무>)

한라산에는 암매(岩梅)라 부르는 돌매화가 절정으로 가는 길에 산다. 바위에 붙
어 떨어지지 않는 키 작은 꽃. 그래서 그런지 시인들의 감수성을 촉발시키는 꽃이다.
그것의 순수 앞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한다.

나의 사랑은 그러고 싶다 / 돌에서 피는 나무처럼 단단하고 싶다 / 들꽃보다 작은 그리움
의 키를 낮추고 / 사람 하나를 사랑한다는 일이 / 높은 산에 저 스스로 씨 뿌리고 / 저 스
스로 자랄 만큼만 자라는 / 그런 그리움이고 싶다 / 돌에서 피는 사랑이고 싶다 / 하얀 마
음 붉은 마음 / 돌 속에 스며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 그런 돌매화나무처럼 / 손톱만한 키
로 자라 / 한라산 백록담의 높이로 있는 / 그런 사랑이고 싶다.

(원재훈, <돌매화나무처럼>)

서정과 상상력의 공간

1920년대의 제주는 어떤 풍경이었을까. 이때를 노래한 시가 있다. 풋풋한 정감이
흐른다. 1925년 3월 《조선문단》 6월호에 실린 신동식(申東植)의 <제주도>.

평론 <20세기 전반기의 제주문학>에서 이 시를 소개하고 있는 비평가 김영화는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을 표현한 것으로 미루어봐서 제주인이 아닌가 하는 생
각을 하게 한다. “제주인으로서 그가 보아 온 제주의 자연과 제주인의 삶을 노래한
것인지, 아니면 제주에 여행을 왔다가 돌아간 후에 그 인상을 쓴 것인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제주적인 요소가 있는 첫 번째 작품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

가 있다.”고 하고 있다. “한라의 늙은 봉”이 검푸른 초원과 바다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 그곳이 제주도이다.

오 - 橘香내 늙은 아름다운 섬
南郷의 그리운 나라 - 아름다운 섬
漢拏의 늙은 峰 솟은 -
욱어진 雜木의 濃厚한 陰影
나무마다 피인 가지 各色 꽃
망아지의 떼 - 그들 내는 아우성 소리
작난 잘하난 水牛 - 그 무거운
熱日에 빛나는 검푸른 草原
고요한 波面에 떠오르는 해녀의 노래
(하락)

유달리 산을 사랑했던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의 서정시인 신석정(1907~1974)은 전북 부안 출신이다. 1950년대 초에 제주를 다녀갔던 그의 〈백록담에서〉는 그가 얼마나 한라에 마음을 앗기고 있었는지를 느끼게 한다.

제주를 찾아온 수많은 작가들은 바다에서 혹은 상공에서 마주치는 한라영봉에 이미 마음을 앗기고 설렌다. 제주에 왔으나 한라산을 오르지 않고는 제주에 왔다 갔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다.

한라산은
구름 속에
잠재
얼굴을 내놓지 않는다.

176센티미터의 내 키에도 보이고
걸리는게 하도 많아
자주 눈을 감아야 하는데,
아무리 너그러운 1956미터의 키다리고 보면
때론 지치도록 아니꼬와
자주 구름으로
낮을 가릴 수 밖에...
(하락)

또 다른 신석정의 시는 한라산에서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는지를 느끼게 한다. 나무들과 한라산의 이미지, 어둡다를 세 번이나 외친다. 검은색과 붉은색의 선명한 대비가, 민족의 산으로서의 의식과 결합한 자연물로서의 한라산이 떠오른다. 역사의 어둠을 헤치고 성성하게 서 있는 한라의 뜨거운 몸을 보는 것 같다. 그 시는 이렇다.

태초였다
너무 어두웠다

그 무서운 혼돈 속에
한라산은 서서
뜨거운 가슴을, 불을 뿜으며
몸부림쳤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한라산의 목멘 소리...

사철 푸른

굴거리나무로 복가시나무로 빗줄나무로 팽팽나무로 비자나무로

한 때 상처 입었던 아랫도릴 가리고

(신석정, <한라산에 서서> 중)

미당 서정주(1915~2000)도 한라산에 헌사를 바치지 않을쏘냐. 그는 살아서 한라산을 사랑했다. 제주를 사랑했다. 원시적 생명력에 눈을 돌려 제주도에 대한 시를 여러 편 남겼다.

빛을 모아 / 해와 달과 별의 염통과 눈의 빛을 모아, / 그대 / 사랑의 마디마디의 金剛石
/ 구름 위에 永遠을 비취고, / 바람 비와 번개와 벼락 / 그대의 정수리를 / 수없이 몰아쳐
도, / 知慧의 맑은 湖水 / 거기 걸러 담을 뿐, / 물결을 보내, / 아버이의 당부같이 / 끊임없
이 사랑의 물결을 보내, / 못 물의 발부리를 / 어루만지고 타이르고 / 타이르고 어루만지
고만 있느니. / 그대 어깨 위에 / 소금발처럼 쓰리게 배어 나는 / 하이연 하이연 눈 서리의
흔적이며, / 말하지 않는 忍苦의 거룩한 裝飾이며, / 우린 다만 머리 숙여 / 그대 찬양할
말을 차마 찾지 못하여라.

(서정주, <讚歌-겨울 漢拏山에 부쳐> 전문)

한라산의 설화는 미당 서정주에겐 한라산 산신녀를 그리게 한다. 그 설화 속의 그녀
는 미당 특유의 깨끗한 관능으로 살아 꿈지락거린다. 그에게 설문대할망은 구백
억 세, 이마엔 어여쁜 구백억 개 산도화 주름살이 있다. 그렇다면, 그 산신녀는 지금
어디로 갔는가.

잉잉거리는 불고추로 망가진 쑥이파리로

또 소금덩이로

서귀포 바닷가에 표착해 있노라니
 漢拏山頂의 山神女
 두레박으로 나를 떠서 길어 올려
 시르미 난초밭에 누어 놓고 간지럼을 먹이고
 오줌 누어 목욕시키고
 탐라 계곡 쪽으로 다시 던져 팽개쳐 버리다.
 그네 나이는 九百億歲,
 그 자디잔 九百億 개 山桃花빛,
 이쁜 주름살 속에
 나는 흡수되어 덩굴어 내려가다.
 너무 어두워서 웃은 다 벗어 찢어 햇불 붙여 들고
 기다가 보니 새벽 세 時
 觀音寺 법당 마루에 가까스로 와 눕다.
 누가 언제 무슨 핀셋으로
 九百億 개 그네의 그 山桃花빛 주름살 속에서
 나를 되루 집어내 놓았는지
 나는 겨우 꺼내어진 듯 안 꺼내어진 듯
 이 해 한 달 열흘을 꼬박 누워 시름시름 앓다.

(서정주, 〈漢拏山 山神女 印象〉 전문)

제주를 온몸으로 껴안고 있는 시인 이생진. 그의 시심 역시 한라산에 대한 궁지로
 넘친다. 백록담에 올라가 봐야 그의 시가 다가올 일이다.

백록담 서북벽에 / 앉은 사람에게는 바람이 와서 / 날개를 달아 준다 / 무거운 바윗돌 까
 지도 / 날개를 달고 / 하늘을 한바퀴 빙 돌고 내려와 앉는다 / 뿌리깊은 나무도 푸른 날개

를 달아야 하는지 / 그것은 백록담에 올라와서야 알게된다.

(이생진, 〈백록담연가〉 중)

김광림은 “오월 하순에 / 다홍치마 찢어 발기는 / 한라산 철쭉을 보았다.” 애써 백록담으로 이르는 발길이었다. 그러나 백록담은 쉽게 나타나지 않는다. 그 침묵의 절정은 시인의 의지에 찬 등정에 힘입어 겨우 한 자락 새침 때는 표정에서 드러난다.

한마루에서
안개비를 만나고
두 굽이를 돌다가 잎이 막혀
주저 앉았다
일어났다
거듭 거듭 기를 쓰면
자주 마려운 오줌기
변덕스런 날씨인데도
구김살 하나 없이
새침 때는
그 모습
억만의 침묵을 간직한 채
돌팔매 칠 기력조차 앓아가는
저게 바로 백록담

김광림, 〈새침 때는 白鹿潭〉)

백록담에 올라서 보라. 그리고 하계를 보라. 백록담이 시샘하는 듯 구름을 그러안는 풍경이 보이리라. 바다에 둘러싸인 그 산의 야들야들한 속살은 또 어찌 감회가

새롭지 않을까. 옛적부터 중국인들이 흠모하던 한라산이라 했다. 낭인처럼 떠돌며 산타기를 좋아하던 시성 두보가 백록담에 올랐다면 아마 명구를 남겼을 것이다.

백록담에 오르면 알리. / 거긴 등반의 끝이 아니라 / 새로운 시작임을. / 도달되지 않는 높이
이에 / 산은 또 하나의 / 산을 세워두고 있음을... / 물안개 속으로 파고드는 / 해녀들의
노랫소리 멀리 / 무엇이 남아 섬이 되고 / 무엇이 목말라 봉우리를 이루었는지를 / 눈향
섬매자 구상 빛나무들은 / 저마다 모여서서 / 헤아릴 길 없는 깊이의 / 하늘을 우러러 목
이 탄다.

(손종호, 〈한라산〉)

오랜 관조가 느껴지는 구상의 한라산은 실존적이며 철학적이다.

내염(內焰)을 고이 끝낸
시인의 하품.
정숙한 지어미의
희어진 머리.
태초로부터
명암(明暗)을 이겨 온
실존(實存).
인연의 선악에도
자유로운 부동(不動).
국토신(國土神)의 이궁(離宮).

(구상, 〈한라산〉 중)

바다의 시를 주로 쓰는 김성식은 ‘옥돔’마저 한라산에서 시작해 백록담으로 마무리하고자 한다. 그것 역시 한라의 품을 떠나 마음대로 떠날 수 있을 것인가. “난 아직 / 한라산 그늘을 벗어난 적 없어 / 남지나해 난류에 얹힌 대마 해류따라 / 혹은 황해로 빠지는 조류를 쫓아”, “이 바다 구석구석을 쟁기질 해 / 그 긴 억 년 세월을 버티어 나갈거야 / 내 꼬리가 백록담 끝자락 꽃씨가 될 때까지”(〈옥돔〉)라고 노래한다

한라산 아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인가. “하늘 밑의 / 구름을 다스리는 / 한라산에 견주면 / 다만 나는 / 개암나무 잎 스치는 / 바람일 뿐.”(설의웅〈한라산〉)이며 한라산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일 터이다. “더 오를 수도 / 더 내릴 수도 / 없는 / 벼랑 끝에 서자 / 관음사 쪽에서 / 가마귀가 / 죽음을 물고 / 까옥까옥 / 날아왔다 / 이승쪽에 오를 내게 / 도채비꽃이 / 손을 내밀고 / 안개들은 / 백록담에 포갠 내 얼굴에 달라붙으며 / 반가워했다.”(설의웅, 〈한라산〉중)

한라를 만나고 한라를 쓰지 않은 시인은 드물다. 한라산정이 가까워질수록 숨이 가팔라지고,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싶어질 때, 오로지 정신의 뼈대 하나로만 살아 있는 것, 오로지 혼 하나로만 버티고 서 있는 듯한 고사목이 눈에 들어온다. 그것들은 흡사 비울 것 이미 다 비우고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말한다. 4.3 장시 〈한라산〉으로 구금되기도 했던 시인은 한참 후일 훨씬 진정된 한라산을 올랐다. 한라산 가는 길에서 만나는 고사목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의 잊혀져 가는 정신을 만난다. 이 산하는 〈고사목〉에서 그러한 감정을 드러내었다.

바로 저기가 정상인데
그만 주저 앉고 싶을 때
거기 고사목지대가 있다

무성했던 가지들과
푸른 잎들 떠나 보내고

제 몸마저 빠져나가 버린
오직, 혼으로만 서 있는
한라산의 고사목들……

천둥 같은 그리움인 듯
폭설 같은 슬픔인 듯

죽어서도 켜지 않는다.

(이산하, <고사목>)

한라의 속살 앞에 선 자, 가슴 속 불덩어리가 삼시간에 끓어오르지 않을 이 어디
있겠는가. 누구라서, 어떤 감심장이라서 이러한 근원의 새벽빛 앞에서 경외감에 떨
지 않겠는가. 아니 시가 없어도 되었다. 시가 곧 산이므로.

숲의 옷을 벗어 던진 듯한 제주의 오름은 수줍은 듯하면서도 내송을 떨 듯 당당
한 가슴의 곡선을 자랑한다. 제주 선의 미학을 보여주는 한라산과 그 자락의 오름
에서 시인들은 때로 사람의 역사를 떠올린다.

가눌 수 없이 타오르는 것들이 오름으로 솟았는가 / 저마다의 가슴에 불길의 봉화 피워올
렸던 섬 / 그 오름 속에 눕는다 / 매달리는 푸른 바람의 하늘은 변함없던 것이냐 / 오름 속
에서 날아오르는 건 새떼들이 아니라 / 언제인가 퍼져나가며 지던 별들의 절망, 별들의
비명들 / 그 정처없는 아우성이 꽃이 되어 오르는구나 / 키 작은 갯쪽부쟁이에서 키 큰 억
새들까지 / 내 기억의 지도에 희미하던 / 별들의 깃발을 든 옛길들이 / 여기 꽃 하나하나
의 낯낱한 얼굴이 되어 피어오르는구나.

(박남준, <그 섬, 오름 속에 일어선다 - 제주에서> 중)

해발 1,950m의 한라산 마루턱에 앉았던 소설가 이병주. 그는 산에 오르고서 맛깔나는 산문을 남겼다. “내사 산을 정복하는 재미보다도 산마루를 타고 앉아서 아래를 바라보는 후련에 오른다. 타는 맛과 정복의 맛을 알기에는 차비부터가 모자라, 산사람에겐 그저 성가신 존재임을 모르지 않는다. 오밀조밀한 제주시가 가물가물 숨바꼭질하는 품이 흡사 세잔느의 그림과 같다.”고 우아하게 묘사한다. 그런 다음 그는 “파아란 백록담에 어리비친 구름이 방싯 눈을 준다. 올챙이가 우글거리는 저 물을 마신 생각을 하니, 새삼스레 구역질이 난다. 그나마 마셔서 조갈을 면한 사실을 까맣게 잊은 요사스런 本能이 미워진다.”고 재빨리 속내를 추스르는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백록담에서 그러한 감성을 획득하러 가는 길은 가파른 바위를 타고 올라야 한다. 수필가 조명래 역시 백록담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린 수필 <그리운 금강산>에서 “사랑하는 입을 만나러 가는 길이 이리도 힘들었을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넘었던 보릿고개 그 언덕이 이만큼 가팔랐을까. 석가가 올랐던 고행의 설산 언덕이나 예수가 십자가를 메고 올랐던 골고다 언덕이 이랬을까.”라며 과장을 한다. 몇 번이나 쉬었다 오르며 힘든 여정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1936년 10월호에 DK生이란 필명으로 쓴 <한라산 모험기>는 운무로 인해 50m 아래서 백록담을 오를 수 없었던 아쉬움이 보인다.

평지에서 쳐다보면 외봉우리 같은 산이 올라와 보니 수십, 수백 봉우리나 되는 듯 운무와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한 봉우리를 넘기면 또 봉우리, 좌우간 산어리를 몇 번을 감고 돌고 해도 항상 구상나무 지대이고 길은 나서지 않는다.

(DK生, <한라산 모험기> 중)

한라를 향한 연모의 정이 얼마나 깊었으면 제주에 내리는 순간부터 한라로 향하는 것일까. 사람들은 모처럼의 제주행에서 한라산 등정이 빠지면 뭔가 하나를 남기

고 가는 심정이라고 말을 한다. 때문에 어떤 작가는 “새벽 비행기에서 내리자, 한라산 등정이 시작되었다. 산이란 이렇게 아름답고, 장엄하고, 숭고하고, 찬란한 것인가? 아름답리 나무들 위에 눈이 쌓여 있고, 가끔 장끼 몇 마리가 하늘을 유유히 날고 있었다. 허벅지까지 빠지는 눈길을 헤치며, 백록담까지의 등정은 어느 것 하나 놓치고 싶지 않은 환상적인 세계였다.”(공석하 수필, <설산조치도>에서)고 단언하는 것이다.

황순원의 단편 <비바리>는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1950년대, 한국전쟁을 배경으로 제주민의 삶을 그린 이 작품에서 한라산의 느낌을 이렇게 표현한다.

바다 위에서 보면 제주도란 그저 하나의 커다란 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배를 타고 저쪽 바다 한 끝에 보랏빛으로 채색된 윤곽이 얼룩질라치면 아, 제주도다, 하고 소리들을 지르는 것이지만, 기실 그것은 섬이라기보다는 오른쪽에다 큰 봉우리를 두고 왼쪽으로 낮은 봉우리를 연이어 놓은 하나의 크나큰 산이라는 느낌밖에 주지 않는 것이다. 제주도란 한라산 그것으로 된 화산도인 것이다.

고은과 한라산

마침내 한라산은 절망의 노래를 희망의 노래로 바꾸어주고, 마침내 한라산은 삶의 비의를 느낄 줄 아는 인간이야말로 참다운 인간임을 깨우쳐준다는 것인가. 사랑의 절정이 한라산에서 완성되며 한라산에서 시작된 사랑이 한라산에서 절정이 된다.

“한라산 정상에서는 방향이 없는 바람이 사람 사는 따위는 가볍게 날려버리게 부는 때가 많다. 거기서 제주도 전체를 바라보는 일은 제주도의 역사의 여러 부분의 비밀을 알 수 없게 하는 풍경의 개관만이 어떤 적성(敵性)의 시정과 함께 남겨질 뿐이다. 김윤식(金允植), 정지용(鄭芝溶), 이은상(李殷相)의 시도 헛된 것이다. 어떤 감회도 헛된 것”이라고 한 사람은 고은이다. 그는 “정지용의 백록담은 절박하게 종지

(終止)되는데, 이런 느낌은 온몸의 고행에 의해서 바라보게 되는 백록담의 깊은 허무 때문이기도 한 것 같다.”고 느끼는 것이다.

제주도의 근원을 추적하며 시적 유량을 했던 적당히 젊은 시인 고은의 제주도 체험은 산문 《제주도》를 남긴다. 이 산문집에서 고은은 1967년부터 3년을 살았던 제주 체험을 쏟아부었다.

그는 “우미한 산자락의 우의(羽衣)를 펼치고 있는 한라산은, 이윽고 그의 불의 분노를 죽여서 그 분화구에 이성의 백록담을 물그릇을 인 사람처럼 이고, 제주도와 제주도의 모든 바다에 대한 하나의 신앙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고은의 말처럼 “한라산은 모든 절망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다. 설문대할망의 한 계도 한라산에서 보면 수궁이 간다.

이 속에서 고은은 “산이 깊은 잠 때문에 동등하게 고립되어서 소경이 되어있는 영원의 산을 혼자 바라볼 수 있었다.”고 했다. 그때 봤던 새벽의 한라산을 두고, “마치 수인(囚人)이 최후의 사약(賜藥)을 받은 것처럼 비장한 수묵(水墨)의 극채(極彩)를 이룬다.”고 했던가.

삶의 황량함을 느끼는 순간, 무작정 오른 한라산. 그것이 간접한 일을 일일이 열거할 수 있을 것인가. 내부자의 시선과 외부자의 시선은 자신의 조리개를 어느 만큼 여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내부자가 말하는 그리움의 상징이자 자유의 상징인 한라산은 외부자의 시선과 다르다. 가까이 있는 것은 그만큼 잊기도 쉽다고 했던가. 고향을 떠난 자가 고향을 그리워하듯 한라산을 떠나야 더 한라산이 그림다. 고은은 그런 제주사람들과 한라산을 번갈아 본다. 그리고 한라의 마음과 제주인의 심성을 헤아려본다.

제주사람은

한라산이 뭉땅 구름에 묻혀야

그때 한라산을 바라본다

그것도 딱 한번 바라보고 그만둬 버린다
 정작 한라산 자체가 드러나 있는 때는 그 아름다움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한라산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
 과연 만년이다
 만년을 산 사람이다
 이것이 제주사람 본토박이 마음이다
 괜히 어제 오늘 건너온 사람들이
 해발 1950미터의 한라산을 어찌구 저찌구 한다
 삼양리 검은 모래야 모래야 너 또한 한라산 아니지

(고은, <한라산>)

한라산은 역사와 설화가 우리네 삶처럼 얽힌 땅이다. 새벽마다 한라산을 향해서
 절을 하고 신의 도장임을 믿는다. 골골마다 서사 무가소리가 장엄한 달빛을 타고
 흐르는 산이다. 서러운 이야기들이 굵이굵이 꿈꾸는 세상을 향해 흐르는 산, 끝없는
 인간의 근원적 상상력이 신들의 본풀이 속에 흐른다. 그 무대가 한라산이다.

그는 때때로 제주인들과 교유하는 동안 한라산을 바라보는 제주사람들의 시선
 에 자신의 시선을 고정시키기도 했다. 그에게 있어 제주사람들은 한라산을 의식하
 는 일상을 배제하는 삶이다. 거기에 묘한 시선이 쏠린다. “그들이 바다를 바라보면
 한라산을 등에 업고, 그들이 한라산을 바라볼 때는 바다의 수평선이 등허리에 걸
 리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산과 바다를 의식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느끼
 는 것이다. 왜냐? 제주인들은 구태여 한라산을 의식하지 않는다. 아니다. 그럴 필요
 를 느끼지 않는다. 한라산은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무릇 헛되지 않은 것이 어디 있더냐. 한라산은 정신의 생태계이다. 일몰의 순간은
 바로 한라산의 고독이 드리워지는 순간일 터이다. 한없이 높은 곳에서 한라산과 일
 체가 되어 절대 고독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삶은 무엇인가. 사람들은 한라산을 중심

에 두고 방향을 정하고, 한라산을 좌표로 삼아 집을 찾고, 한라산을 찾아서 산자락에서 산자락으로 발을 옮겼다.

이은상의 한글 기행산문

노산 이은상(1903~1983)은 1937년 국토순례길에 올랐던 한라산의 감흥을 유려한 필치로 남겨 놓았다. 그의 기행문 《탐라기행 한라산》은 시와 산문이 어우러져 그 깊은 맛을 감히 흉내 낼 수 없다. 그 촘촘한 묘사는 옛 시인의 감수성이라고 치부해 버릴 수 없는 것이다.

“창창일점한라산(蒼蒼一點漢拏山) 원재홍도 호묘간(遠在洪濤浩渺間), 푸르고 푸른 한 점의 한라산은 멀리 큰 파도 넓고 아득한 사이에 있네”란 권근의 시는 장안에 앉아서 한라산을 생각하면서 부를 노래지, 정작 한라산에 와서는 쓸데없는 노래다. 어찌하여 일점이며 어찌하여 호묘간(넓고 아득한 사이)인지 “울림황로(울창한 산림과 거친 산길)에 들어와 서니, 한라산이란 밟을수록 오를수록 미궁이요, 황홀경임을 어찌하랴”고 반문한다.

정상으로 오르는 동안 뺏글 허연 고사목이 들어왔다. 노산은 이것을 놓치지 않는다. “역사와 비밀과 이 산의 심오한 이취(異趣)는 내가 아느니라 하는 듯한 고목의 마른 등이 고원의 풍우 앞에 옷을 벗고, 살을 벗고, 뼈만 남아도 제 속에 지닌 자량이 남 두려울 것 없고, 부릴 것도 없이 교만하고, 방자하여 길을 막고도 비켜날 줄 모르고, 산나무 중동을 때리고도 천연스러이 누워 있다.”고 탄복한다. 그가 발견한 이 산의 비밀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저기 찍어 넘어진 고사목의 등줄기 하나하나 만지고 놓았을 시인의 모습이 아른거린다.

하염없이 오르던 노산은 백록담가 초원 한 머리에 장막을 치고 일박을 한다. 달이 떠오르고 붉은 혀를 내밀며 타는 장작불을 보면서 그는 산의 밤을 보낸다. 감당할 길 없는 감수성이 몰아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침 해를 보는 기쁨도 누린다. 그 산의 달이 내리고 별이 우수수 떨어지는 밤을 보내고 아침을 맞았던 자, 그의 문장을 빌려와 그때의 감격을 떠올려도 좋을 것이다.

백공작의 꼬리같이 눈이 부시고 황홀하도록 아침해가 떠오른다. 광명으로 다시 이 세계를 통어(通御, 거느림)하고 편조(遍照, 두루 비춤)하여 자기 뜻대로 또 하루를 굴리시려고, 생명의 주제가 내노라, 위력의 모태도 내노라 하며, 장엄한 산상에 아침해가 떠오른다.

그는 여기서 연암 박지원을 떠올린다. 열하(熱河)를 지날 때 백담을 바라보며 통곡하였다는 것이 생각나 그는 “고함쳐 울고 싶다.”고 느낀다. “장부의 가슴을 품어 풀어 헤치고 만단 고뇌(萬端苦惱:만갈래의 고뇌)를 여기다 쏟아 놓고서, 하늘과 땅이 마주 울리도록 시원스러이 울고 싶다”고 느낀다. 그러면서 “혼자 처져서 제 혼자서라도 울고 싶다.”고 “통곡의 참뜻을 생각한다.”고 느낀다.

더 무슨 할 말이 필요하랴. 그는 시조 한 편 마음으로 내리찍으면서 한라산을 떠난다. 그 시는 이렇다.

창과 높은 곳에 / 님이 여기 계시옵기 / 찾아와 그 품 속에 / 안겨보고 가옵나니 / 거룩한
님의 댁(宅)이어 / 평안하라, 한라산.

(이은상, <고별의 노래> 중)

7. 이방인의 눈에 비친 한라산

■ 겐테의 기행문을 통해 본 한라산 인식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어떻게 한라산을 바라봤을까. 독일에 처음으로 한라산을 소개한 이는 겐테 박사이다. 지리학자이자 언론인이기도 했던 겐테(1870~1904). 그는 중국을 경유해 1901년 수개월간 한국을 여행하며 보고 느낀 것을 당시 독일 일간지 <콜니셰 차이퉁>에 1년 1개월간 연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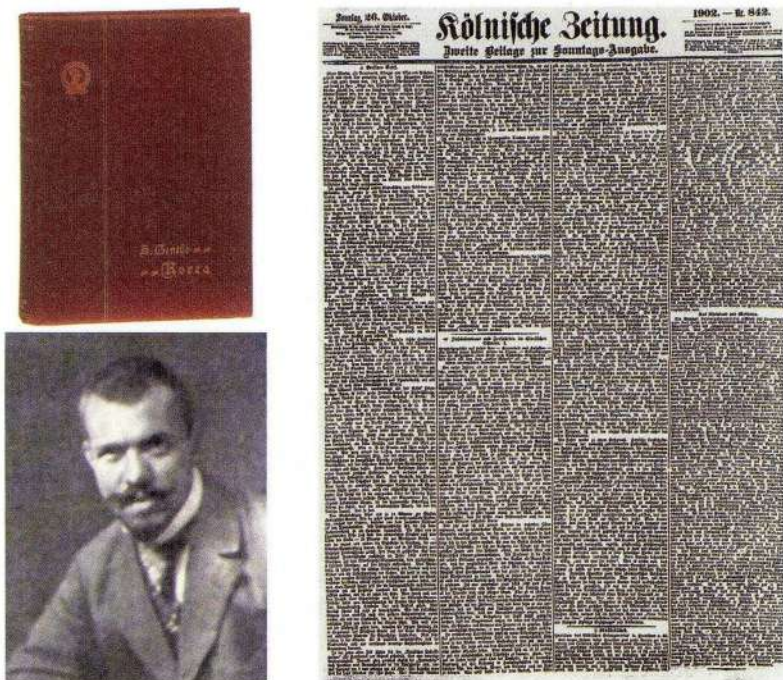


그림 1-29. 겐테 박사와 제주도 방문기 신문 연재 기록



그림 1-30. 뽕나무로 가는 영실길

겐테는 당시 제주를 다녀갔던 왕실 고문 미국인 센즈를 만나 미리 제주도에 대한 예비지식을 얻는다. 그때 이재호 목사를 설득해 한라산 등반에 오를 수 있었다. 겐테의 이 등정기는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당시의 한라산 정황까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는 그때까지 아무도 이방인으로서 등정해 볼 수 없었던 산의 절정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 흥분했다.

이렇게 높은 산이 대양(大洋) 가운데 솟아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 그런 해양 기상대 위에 서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탁 트이는데, 그 정도를 스스로에게도 설명하기가 어렵다. 물론 해변에서도 쉽게 시험해 볼 수 있다. 바닷가에서 모래 언덕이나 등대 위에 올라 보면 가시 반경이 갑자기 커짐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한라산 분화구의 가장자리에 섰을 때 어떤 느낌인지를 좀 더 근사하게 비교할 수 있으려면, 헬골란트에 있는 암석섬의 30배가 되는 높이를 상상해 보라...

한라산 정상에서 본 사람은 기억하리라. 그 산 위를 감싸는 운해를, 그 산이 가진 얼굴이 얼마나 천의무봉한지를. 맑은 날만 보여주는 저 제주 해안선, 그 앞의 바위 섬들, 허영게 솟구치는 파도를. 다행히도 전테는 그때 한라 정상에서 그러한 온갖 산의 기쁨과 슬픔을 모두 느낄 수 있었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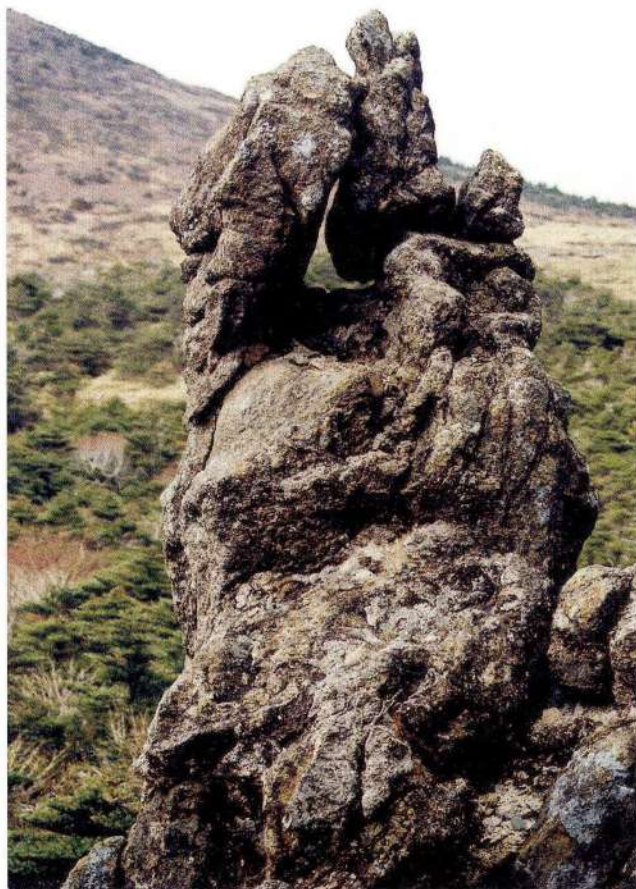


그림 1-31. 산의 곳곳에서는 신기한 돌의 형상들을 만날 수 있다.

“한라산 정상으로부터 펼쳐지는 이 굉장한 유화(油畵)를 뿌리치고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다.”는 겐테. 그는 등정하는 동안 수행굴에서 두 번이나 피신해야 했다. 동굴에서의 고통을 적은 그의 글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점점 더 비참해졌다. 물론 추위가 더 심해졌다. 동이 틀 무렵 이른 아침에 밖의 만물은 서리로 뒤덮여 있었고, 동굴 안에서는 벽과 천장으로부터 물방울이 떨어졌다. 얼음같이 차가운 아주 큼직한 이 물방울이 짧은 간격을 두고 한 방울씩 내 얼굴 위에 떨어졌기 때문에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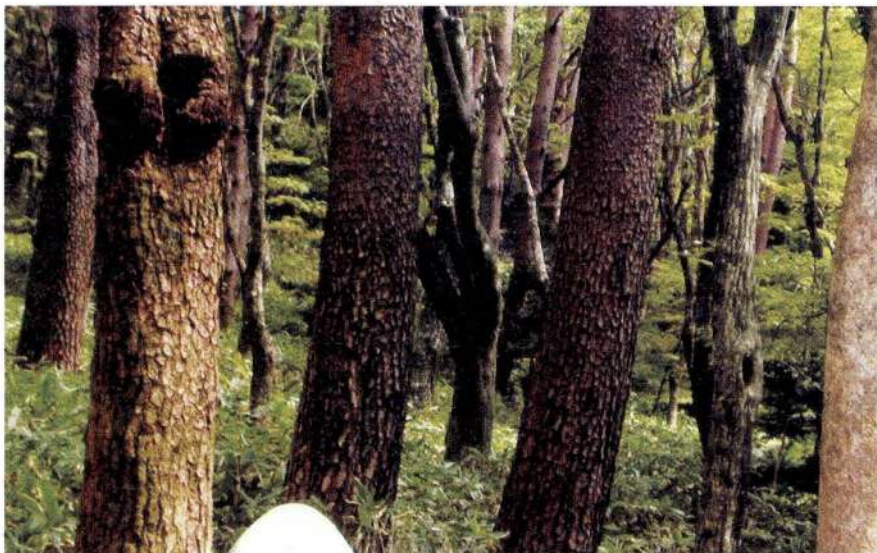


그림 1-32. 영실 입구의 소나무

그리고도 산으로 오르는 길은 어려웠다. 영실로 오르는 길에서 누구나 압도되는 상은 오백나한이다. 오랜 풍화작용에 의해서 “절벽, 바위모서리, 낭떠러지 등의 아주 신기한 형태를 띤” 이 오백장군 상. “접근할 수 없는 상태로 솟구쳐올라 있는 그 거대한 절벽은 그 자연미나 가공할 만한 형상이 물론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에, 그 안내자는 궁극적인 목표인 진짜 한라산 정상대신 이 절벽으로써 나를 만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았다.”

이제 겐테가 압도됐던 그 1,450m에서 고개를 들어보라. “바다 쪽으로는 시야가 한없이 멀리 전개되고 그윽한 안개의 베일이 이리저리 파도에 일렁이며 형상을 신비롭게 덮어서 한없이 멀리 밀쳐 내는 것처럼 보였기에 그만큼 더 무한한 듯이 보였다.”는 겐테의 시선이 아니더라도 이곳의 전망은 더할 나위 없다. 겐테는 거기서 조금 더 기다렸던 모양이다.

그러나 정오가 되어 태양이 물 위에 일렁이는 안개의 마지막 흔적들을 빨아들이게 되자 그 경치가 찬란해졌다.

1,950m 정상에 이르렀을 때의 그 환희를 겐테는 이렇게 기록했다. 그의 자부심은 오래 씹어 씹을수록 그 매력이 있다.

비슷한 여건에서 형언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감동적인 파노라마가 제주의 한라산처럼 펼쳐지는 곳은 분명 지구상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한라산은 바다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고, 모든 대륙으로부터 100km 이상 떨어져 있으며, 아주 가파르고 끝없는 해수면 위로 높이 치솟아 있기 때문에, 그 정상에 서면 시야를 가리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는 그때까지 백인이 올라본 적 없는 산을 정복했다는 기쁨에 몸을 떨었다.

우리가 처음으로 대양을 대하거나 만년설로 덮여 있는 높은 산맥지대를 보게 될 때, 어떤 예술가가 대단한 말이나 색채나 또는 음조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올 때, 피라미드나 중국의 거대한 만리장성 등 어마어마한 인류의 걸작품을 처음으로 대할 때에 느끼는 법인데,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지워지거나 퇴색하지 않을 인상들이다. 그것들은 우리의 뇌리 속에 아주 예리하고 깊숙이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난 뒤, 끝없는 새롭고도 중요한 인상들을 체험하고 난 뒤에 유사한 분위기에 접하게 되면, 그 당시 처음으로 느꼈던 감상이 다시금 움직이게 되고, 당시의 그 강력한 감동이 마치 그것들이 우리의 뇌 속에 그 흔적을 남긴 수많은 다른 체험이나 생각들 혹은 느낌들에 파묻혀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어제의 것이라도 되듯이 다시 되살아날 수 있다.



그림 1-33. 한라산 서남벽에 펼쳐진 구상나무 군락지대

한라산정에서는 바다를 품어 볼 수 있다. 겐테가 한라산에서 매혹된 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다음의 문장을 적는다.

도대체 그 누가 이 산 위 공중에서 바다를 구할 것인가? 그것은 이 산 위에서 보이는 그 모든 기이한 것들 중에서 가장 놀라운 현상으로, 마치 태양이 하늘로 올라오기라도 한 듯, 마치 평지 전부가 우당탕 열려서 해수면으로부터 거의 2천 미터 위에서 있는 이곳에서도 또다시 우리를 우리의 눈이 닿는 데까지 밀어 올린 듯,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이 우리의 안계(眼界)를 끌어 올려 준다.

8. 평화와 통일의 상징, 한라산

백두를 보고난 뒤 / 한라와 삼백육십 다섯 개 / 오름을 보는 / 안개속에서 보는 / 내 눈동자 / 저 뒤쪽의 거대한 거대한 망막 위에 / 차례로 쓰여지는 화성(火星)의 이름들 / 이름들 모두 아래 한결같이 / 흰그늘이 서려 있다. 그렇다 / 어느해 겨울 / 문득 섬에 와 / 눈 쌓인 백록담을 본 적이 있다 / 지용과 똑같이 그때 내가 본 것은 / 흰 어둠 / 유화(柳花)가 주몽(朱蒙)을 잉태한 / 그 햇빛의 그늘 / 고구려 옛 신화 속의 / 그 일영(日影).

(김지하, <「망막으로부터」중)

정지용의 <백록담>을 두고 김지하는 “정지용 문학의 최고봉”이라고 단언했다. 그의 시 <망막으로부터>는 정지용의 눈이 그때 들여다봤던 것을 자신도 보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백두는 한라를 그리워하고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는 통일의 또 다른 상징이다. 백두에 오르는 비념에 한라가 있다. 이미 시인 신동엽은 1960년도에 발표한 시 <껍데기는 가라> 중에서 “껍데기는 가라 / 한라에서 백두까지 / 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 / 그 모오든 쇠붙이는 가라.”고 했다.

2000년 추석, 분단 후 처음으로 제주를 방문한 북한 인사는 김용순 특사였다. 그는 꼭 한라산에 오르고 싶어 했으나 휘몰아치는 비바람 때문에 등정의 꿈을 접어야 했다. 그래도 영실 입구까지 가서 한라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낀 김 특사 일행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한라산과 백두산이 마음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통일입니다.”라고 했다.

이날은 마침 6.15 정상회담의 뜻에 따라 조국 통일의 기운을 추진하기 위한 특별 기획 ‘백두에서 한라까지’란 타이틀로, 공동 생방송을 내보낸 역사적인 날이기도 하다. 백두산 천지와 한라산 백록담에 서서 남북 텔레비전 합동 촬영반이 두 산과

교신을 하듯 말이다. 백두와 한라는 그토록 통일을 꿈꾼다.

■ 조정래 《태백산맥》 속의 한라산, 그리고 통일 노래

‘반도 땅의 첫머리와 반도 땅의 끝머리’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래의 말처럼 “우리 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 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하다는 말인가.



그림 1-34. 백두는 한라를, 한라는 백두를 그리워한다.

한라와 백두의 이 절묘한 대비를 묘사한 절창은 아무래도 조정래의 《태백산맥》이 답할 차례이다. 《태백산맥》 제4부 전쟁과 분단은 빨치산 투쟁이 주종을 이룬다. 그 첫머리에 놓인, 깊은 사색의 사유물인 백두에서 한라에 이르는 삽화는 미려하다. 또한 생명체로서의 숭엄함을 느끼게 하면서 장엄하기까지 하다. 어떻게 한라와 백두가 통일을 말하지 않겠는가.

“한라산 백록담에서 한바탕 댄돌이질 친 바람이 산줄기를 타고 내리며 나뭇잎들을 떨구기 시작할 즈음이면 백두산 언저리 북쪽 땅은 벌써 얼음이 퐁퐁 열고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다.”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와 백두는 이미 통일이 된 듯한 느낌이 든다. 좀 더 들어가 보자.



그림 1-35. 어느 산처럼 한라산의 빼어난 경승은 계곡에 감춰져 있다.

반도 땅에 자리 잡은 그 많고 많은 산들이 제각기 그 크기와 모습이 다르되 꼭 닮은 것이 두 개 있으니, 그것은 백두산과 한라산이었다. 두 산은 신비롭게도 똑같이 머리에 물을 담아 이고 있었다. 그러나 두 산이 지니는 신비스러움은 그 특이한 생김에만 있지 않았다. 그 자리잡음이 더욱 기이했다. 두 산은 반도 땅이 시작되는 첫머리와 반도땅이 끝나는 끝머리에 우뚝우뚝 솟아 하늘을 떠받치고 있었다. 이 어인 조화일까. 우연일까. 필연일까. 그 연고를 아는 이 이 세상에 그 누구일까. 그 두 산의 똑같이 닮은 모습이 신비하고, 그 자리잡음마저 더욱 신비하여 그 연유를 알아내려는 옛 사람들의 애쓴 흔적이 역연하니, 백두산이 담아 인 물을 '천지'라하고, 한라산이 담아 인 물을 '백록담'이라고 한 것이다. 그 두 이름이 갖는 공통점은 '하늘'인 것이다. 그런데 '하늘의 못'라는 뜻인 천지에는



그림 1-36. 한라와 백두는 국토의 양 끝에 위치한 특성으로 조국 통일의 화두를 던진다.

절대한 존재인 하느님이 막연하게 상징되고 있는 데 반하여 ‘흰 사슴의 뭇’이라는 백록담에는 하늘에만 산다는 하얀 사슴들이 내려와 목욕하는 터라서 그런 이름이 지어진 것이라는 사연이었다.

(조정래, 《태백산맥》 제8권 중)

작가는 그렇게 구체적인 내용의 전설이 백록담에는 있는데 왜 천지에는 없는지 궁금해한다. 천지가 상징하는 하느님과 백록담의 하얀 사슴들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하느님께서 천지에 하강하시어 목욕을 하셨다거나, 낮을 씻으셨다거나, 발을 씻으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엮어 내는 것은 절대 신성에 대해 불경을 범하는 일이라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을까.”(《태백산맥》 제8권) 답을 해보는 것이다.



그림 1-37. 한라산은 끝없는 전설을 잉태하고 있다.

한라와 백두는 끝없는 전설을 잉태했다. 그 많은 이야기들을 어떻게 엮어냈을까. 산이 크고 높을수록 전설은 하늘에 가까운 신비한 내용을 담아낸다. 그것은 인간이 가까이 갈 수 없는 내용들로 채워진다. 산의 그 고귀한 생명체에 대해서는 조정래의 문학 속에서 읽어낼 수 있다. 그 끝과 끝에 우뚝 선 두 산의 운명은 아마도 조정래의 말처럼, “우리민족이 하나인 것을 증거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우리 민족이 하나되고자 하는 염원을 대변하는 상징이 확실하고, 그 어떤 힘으로도 우리 민족을 갈라 놓을 수 없다는 것을 암시하는 상징이 뚜렷”하다는 것인가.

“어인 연고로 반도 땅은 세계에서 유일하다는 백두산으로 시작되어 그 모양을 그대로 닮은 한라산으로 막음되고 있는가.”

(《태백산맥》 제8권 중)

너무나 닮은 운명을 타고난 백두산과 한라산은 서로를 닮았다. 서로의 맥이 통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서로를 그리워하기만 하는 운명을 타고났을까. 전쟁과 분단 속에서 그것은 언제나 그 내부를 통해 하나로 이어짐을 뜻하고 있다.

한돌이 작사·작곡을 하고 가수 신헌원이 부른 〈터〉의 2절은 한라와 백두가 만나는 날을 앞당기고 싶은 절절한 심정이 깔려 있다. 통일의 당위에 대해 절절한 가슴으로 솟구치는 목소리인 것이다.

한라산에 올라서서 백두산을 바라보며
머나먼 고향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하구나
백두산의 호랑이야 지금도 살아 있느냐
살아 있으면 한번쯤은 어흥하고 소리쳐봐라
얼어붙은 압록강아 한강으로 흘러라
같이 만나서 큰 바다로 흘러가야 옳지 않겠나

태극기의 필력임과 민족의 커다란 꿈
통일이여 어서 오너라 모두가 기다리네

북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산, 가장 꺾어보고 싶어 하는 곳이 한라산이다. 남북 교차 관광단이 온다면 아마 그들의 뜨거운 열망은 통일일 것이다. 그러한 통일의 날을 목놓아 기다리는 한라산이다. 그리고 그날을 쫓은 시인도 기다리고 있다.

가본다고 거듭 걱정하다가 / 채이는 일상 핑계 삼다가 / 남북 교차 관광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야 / 찾아나선 길이었습니다 / 아무렵, 영산(靈山)인데 / 먼저 맞볼 요량으로 / 재촉한 산행 / 계곡을 타고 내리는 단풍은 / 영실기암 발부리를 적시며 / 강을 이루는데 / 오마더 손님은 아직 / 오지 않았습니다

(강덕환, <새천년 가을산> 중)

9. 한라, 그 마음의 고향

동서로 내리뻗은 한라산의 길고 긴 와상(臥狀)의 실루엣이 다가온다. 누구보다 먼저 사계를 품어 안는 산, 누구보다 예민한 감성으로 풍운조화를 연출하는 산, 부드러운 능선과 칼날 같은 예리함을 어느 날 감추더라도, 그가 우리에게 얼굴을 보여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가 우리를 배반하지 않았음을 본다. 또한 그 역시 우리를 볼 것이다. 애처로운 자줏빛의 비감처럼 한라는 그 아름다움과 슬픈 역사의 그늘을 껴안고 있다. 제주에 온 자, 누구든 한라를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없으리. 한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것이 버티고 있는 깊은 고통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임을 어떻게 잊겠는가.

폭발적인 창조의 근원을 품은 채 세월과 역사를 준비할 줄 아는 산, 술한 세월 동안 스스로 배태한 아들과 딸을 낳았으며, 그 비장한 세월 동안 헛되이 흩어지는 유산의 아픔을 거치기도 했으며, 한때는 산 자와 살아남은 자의 책무를 느끼게 하던 산, 붉은색으로 덧칠되던 산. 장구한 세월 삭풍에 시달리면서도 넉넉한 품을 포기하지 않는 산, 언제나 새끼 오름들을 거느리고 서 있는 산, 한라산이다. 그 너른 가슴은 또 한라산 문학을 낳았고 또 낳아 장구한 산맥을 이룰 것이다.

한라산은 보는 시각에 따라, 보는 위치에 따라 다르다 했다. 무릇 모든 산이 그러하겠으나 한라의 얼굴은 유독 그러하다. 한라의 초입에서부터 한라의 정상에 이르기까지 감흥이 어찌 같겠는가.

그러한 눈으로 봄풀 파릇한 한라의 숲에서 백설로 휘덮인 한라산 문학의 숲을 한 바퀴 휘돌아 왔다. 한라가 낳은 문학의 세계를 어떻게 일일이 열거하겠는가.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자연사와 인간사의 생태적 조화를 이루는 산, 그 자체가 노래이다.

분화구가 토해내던 불기둥의 열정이 사그라진 후 이 절정을 오르고 내려간 이 모두 이름 부를 수 없다. 악천후 속 생사를 걸었던 날도 있었을 것이다. 이 산의 끊임 없는 존재 이유를 우리는 감지한다. 여기서 수 많은 문장가들이 감수성을 뽑아 올렸다. 원초적인 상상력을 한라산 앞에 바쳤다. 신앙 같은, 마음의 고향 같은 그런 다함 없는 연정을 그에게 바쳤으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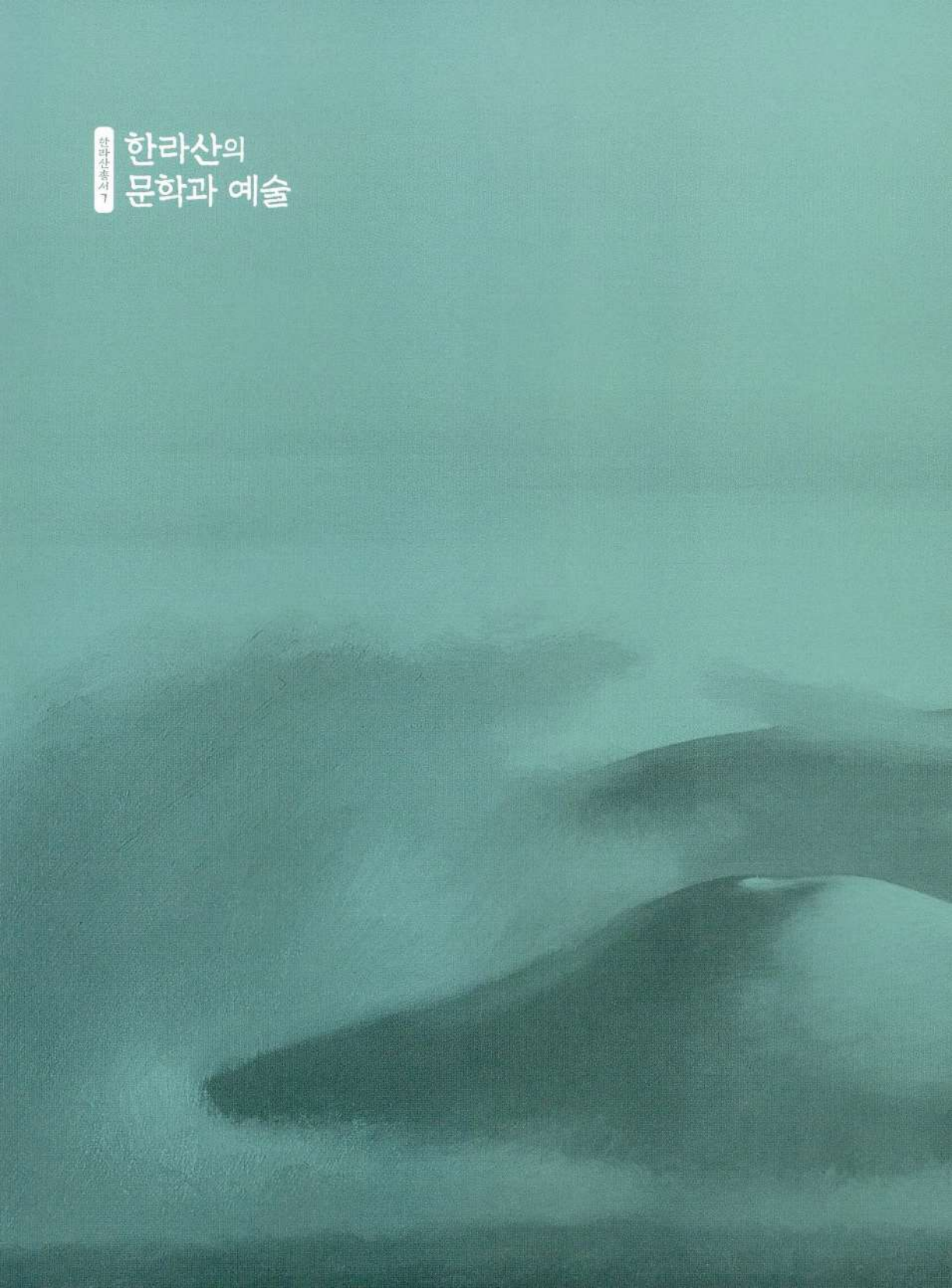
그 옛날 당대의 문장가들이 올랐던 길, 그들이 밟았던 길을, 그들이 하염없이 하계를 내려보며 깊은 사유를 하던 바위를 우리는 밟는다. 거기서 시공을 초월한, 과거와 현재를 잇는 그들 문학의 숨결을 느낀다. 그리고 그에게 빛을 진 자들, 그에게 기꺼이 헌사를 바쳐야 옳다.

지금까지 한라산이 문학의 지형을 이뤄주고 안식을 주었다면, 그를 위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한라의 원형을 잃지 않기 위해 문인들은 한라산을 앞으로 어떻게 응시할 것인가. 또한 그 과제는 무엇인가. 갈수록 시대가 부박해질수록 한라를 정신적 생태계의 원형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이 늘어날 것이다. 마음의 고향으로 삼고자 하는 이들도 늘어날 것이다.

신들의 본향이자 피어린 역사의 산으로, 상상의 근원으로, 인간의 산으로 지켜보는 한라산. 그 산은 끊임없는 창작의 원천이다. 한라에서 백두까지 흐르는 맑은 기운에서 희망의 넉출을 잡아당겨 보라. 한라가 부르면 백두가 답을 하고, 백두가 부르면 한라가 답을 할 때, 장엄 한라산 문학의 산맥이 백두를 타 넘을 것이다. 그날은 기어이 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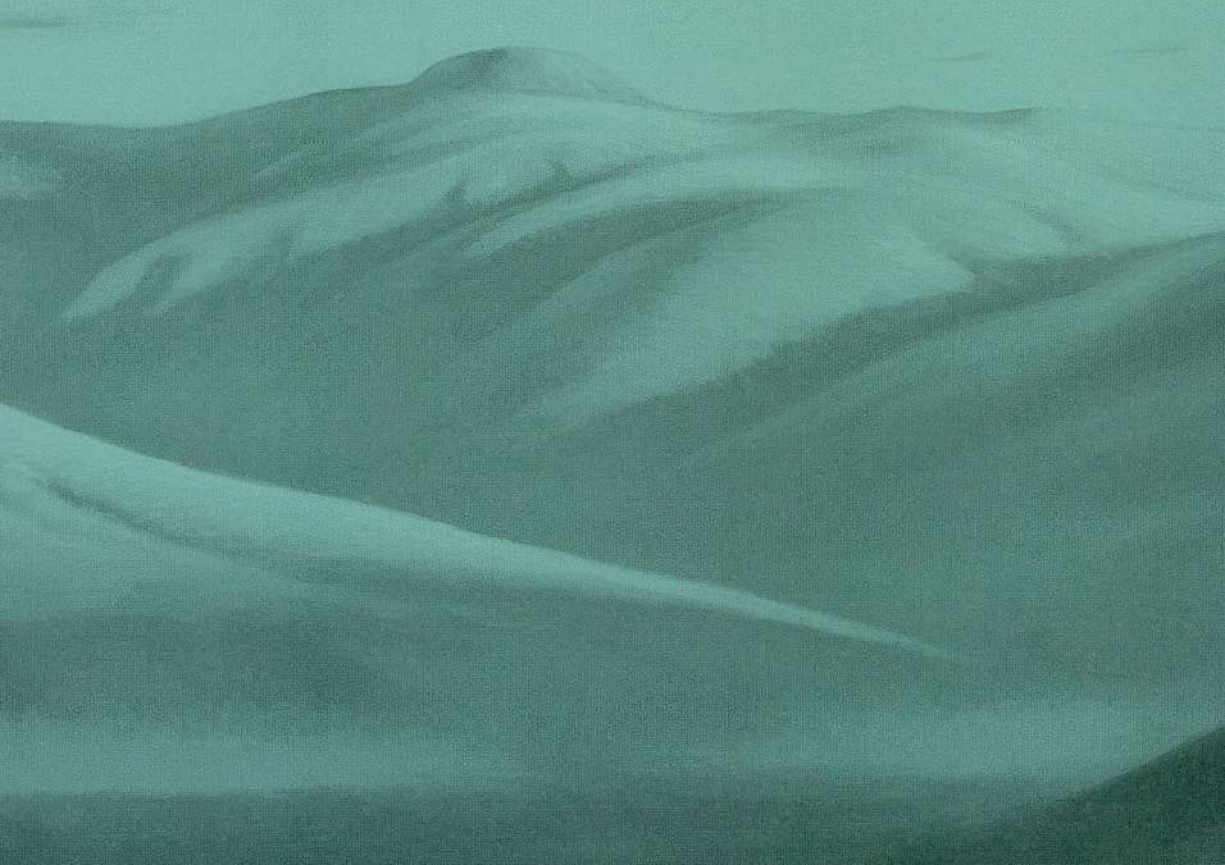
한라산문학서

한라산의 문학과 예술



제2장

한라산과 음악



여 백

1. 제주음악의 시작

제주의 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고 진행 되었을까? 이에 대한 의문을 풀기 위해 각종 서적을 뒤지고 훑어 왔지만, 신빙성이 있는 학설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말할 수 없었다. 그것은 짐작할 뿐 뚜렷한 증거나 학설을 뒷받침할 내용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러저러한 학설들을 제시함으로 궁금한 독자들 나름대로나 마 짐작하도록 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음악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려졌을까? 아마도 아주 오래전(삼국시대이거나 아니면 그 이전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부터 전해져 오는 음악은 과연 어떠한 모습일까? 이에 대한 연구는 제주 음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조망(眺望)하기 위한 것이라 보아도 지나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제주 음악의 과거에 관한 서적이나 참고 문헌이나 자료가 미비하여, 《도라악(度羅樂)》(현행복, 민속원, 2003)의 내용을 바탕으로 참고하여 글을 전개하고자 한다.

古代시대의 제주의 음악을 지칭하는 양식에 관한 내용으로 [속일본기續日本記](주; 도라악이 탐라악일 것이라는 추정하는 일본의 음악학자로 하야시 겐조(林謙三), 기시베 시게오(岸邊成雄) 등이 대표적이다)에 ‘度羅樂’이 바로 탐라악일 가능성이 있다는 논의가 일본학자들 사이에 줄곧 제기되었다. 당시(6~7세기)의 음악이라는 것이 기껏 사마니즘의 의식에 사용했던 음악(굿, 무당 등)에서 제주의 음악을 지칭하는 것으로 인식을 해야 할 것이다.

‘道羅樂’이 반드시 제주의 과거의 음악이라고 단정할 수가 없는 것은 이에 관한 서적이나 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6~7세기 고대의 탐라와 일본 간의 문화적 교류의 사실을 바탕으로 탐라의 음악을 말하고자 한다면, 현재까지는

‘도라악’을 바탕으로 제주의 고대 음악사를 재구성한다는 면에 있어서, 탐라와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와 국내 사정을 고려한 새로운 조명을 바라는 마음이다.

제주에 근대식 교육과 함께 초등학교 음악교육이 실행된 해방 후(1945년)부터 현재까지(2020년)를 제주음악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 서양음악이 대한민국에 들어 온 역사를 100여 년이라 하는데, 제주의 음악은 그보다 못 미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그것은 지리적 한계로(육지부와 교통이 안 되는 상황) 여러 면에서 문화적인 소외를 지녀야 하는 제주의 상황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여긴다. 거기에다 일제강점기, 8·15광복, 제주 4·3사건, 6·25쟁, 5·16쿠테타, 4·19학생운동 등 국내의 소용돌이 속에 사회적 변혁기와 함께해 왔다.

특히 6·25 전쟁의 영향으로 제주의 음악 사회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6·25 전쟁으로 피난민이 제주에 많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특히나 본토에서 들어 온 피난민이 육군 제1훈련소가 있었던 모슬포에 진을 치고 있었다. 군인들 가족들이 대부분이었는데, 그 가운데는 가수나 작곡가, 연주자들이 모슬포에 주둔하고 있었다. 가수 고복수, 구봉서(배우), 남인수(가수), 황금심(가수), 박시춘(대중가요 작곡가), 금수현(가곡〈그네〉작곡가) 등이 그들이다. 1950년대에는 제주도 내의 예술 활동 무대가 모슬포 읍내에서 펼쳐졌으며, 콩쿠르 대회도 열렸었다고 한다. 전도에서 학생들이 펼치는 학예회 모습이 군악대(모슬포 제1훈련소 군악대)의 협조 속에 진행되었다. 1951년부터 1956년까지 50만 명의 신병들이 이 모슬포 훈련소를 거쳐서 전선으로 투입되었다. 1955년 제주도 인구가 28만여 명이었다고 하니, 현재는 서귀포시 인구가 20여만 명, 제주시는 40여만 명인 것을 비추어 보면 격세지감(隔世之感)을 느낄 수밖에 없다.

2. 안익태와 제주음악

안익태(安益泰, 1906.12.5.~1965.9.16.)는 <애국가> 작곡가로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는 평양에서 태어나 평양 숭실대학 재학 중, 3·1 운동이 일어나자 항일 운동에 가담하여 퇴학을 당하고 일본으로 건너가게 된다. 1926년 구니다치(東京都 서부) 국립학교에 들어가 첼로를 전공하고, 1930년에는 미국으로 유학길에 오른다.

신시내티 음악대학, 필라델피아 음악대학에서 첼로를 전공하고 카네기 홀에서 리사이틀을 가진다. 템플대학에서는 음악학 석사학위를 받는다. 1936년 오스트리아로 건너가 빈에서 유명한 바인가르트너(오스트리아 작곡가, 지휘자, 1863~1942)에게서 베토벤의 음악을 배우며, 지휘, 작곡 공부를 한다. 1936년 몇 년 전부터 생각해 오던 <애국가>를 작곡한다. 1937년 헝가리 부다페스트 국립 음악학교 특별 연구생으로 들어가서 코다이(헝가리 작곡가, 1882~1967)의 지도를 받는다.



그림 2-1. 안익태



그림 2-2. 안익태 부인 로리타 여사

1940년까지 오스트리아 빈에서 R. 슈트라우스(독일 후기 낭만주의 작곡가, 1864~1949)의 보조 지휘자로 있다가, 그 후에 독일과 스페인 등지에서 지휘 활동을 하고, 1946년 7월 5일에 스페인 여인인 탈라베라 로리타와 결혼한다. 로리타와의 사이에 3녀를 두었다. 스페인 국적을 얻고 스페인 마드리드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가 되어, 영국, 이탈리아, 미국 등 저명한 교향악단에서 객원 지휘자로 활동한다. 1959년에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 1965년에 7월에는 런던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되었다. 1955년에 한국을 떠난 지 25년 만에 한국을 방문하고 ‘한국 환상곡’을 초연한다. 1961년 다시 귀국하여 서울 음악제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며, 1962~1964년까지 서울음악제를 주관하기도 했다. 1965년 7월 4일 런던 뉴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마지막 공연을 한 뒤, 이후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가 1965년 9월 16일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생을 마감한다.

사후(死後) 마요르카에서는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안익태 거리’가 생겨났다. 1957년 문화표장을 받았으며, 1965년 문화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되었다. 2012년 2월 1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원한 한국문화원 내 한국 배움터에서 안익태 선생 관련 자료 전시회를 개최했다고 한다. 2012년 2월 10~11일 양일간에 걸쳐 열린 전시회에는 안익태 선생이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를 지휘한 사진을 비롯해 그의 악보 모음집, 표지 사본, 언론 기사 등이 공개되었다.

특히 서울시의 재정 지원으로 제작된 안 선생의 흉상 제막식이 성대하게 거행되어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그 자리에는 코다이 선생의 미망인도 참석했다. 한국과 헝가리 수교 50주년을 맞이하면서 부다페스트의 시민공원에 안익태 선생 흉상이 안치되었다. 안익태 선생의 주요 작품으로는 <애국가>, <한국 환상곡> 이외에도 <강천성악(降天聲樂)>, <진혼곡>, <논개> 등이 있고, 저서로는 《R. 슈트라우스의 전기》, 《R. 슈트라우스 서한집》 등이 있다.

제주와의 인연

생전 안익태 선생과 제주를 별다른 인연을 맺지 못했다. 하지만 안익태 선생은 제주 출신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김봉학(金鳳鶴, 제주출신 제일교포, 제주은행 설립자)과 연이 깊다. 일본에서 회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와 TV를 보던 김봉학은 NHK 교향악단에서 지휘하던 안익태를 보게 된다. 교향악단 지휘자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에 감동을 받은 그는 TV를 보다가 공연장으로 달려가서 안익태 선생이 직접 지휘하는 모습을 감상하게 되었다. 음악회가 끝나고 김봉학 씨는 안익태 선생에게 자신을 소개하고, 이후 한국 사람이라는 동질감으로 일본에서 음악회를 할 때는 줄곧 안익태 선생을 직접 모시기도 하고 차량을 제공하기도 했다(안익태 《한국환상곡》중 발췌). 그와의 인연으로 안익태 선생이 제주도에 오게 된 것이다.

1963년 1월 26일 저녁 7시, 제주시 칠성로 제일극장에서는 제주의 성인 합창단인 '탐라 합창단'의 공연이 있었다. 40여 명으로 구성된 합창단을 안익태 선생이 직접 지도·지휘했다. 합창단의 멤버는 영락교회와 동부교회 청년들이며, 이것이 제주도 최초의 혼성 합창단이었다. 당시 합창단 단원들은 현재 80세의 노인이 되었다. 연주곡은 제주도 음악협회 지부장인 김국배가 편곡한 합창곡 〈오돌또기〉와 안익태 작곡의 〈무궁화〉 등이다. 제주시 칠성로 제일극장에서 공연을 한 다음 날에는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공연이 있었다. 1960년대 제주 음악 활동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찾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안익태 선생의 제주 활동에 관해서는 고인이 되신 제주도 문화진흥원 공연과장을 역임한 임정부 씨가 쓴 <안익태 선생과 탐라합창단>이라는 글과 당시 단원이었던 고운봉, 이청사, 이봉현 선생 등의 제보를 바탕으로 한 것임을 밝힌다.

1962년 한국음악협회 제주도지부(초대 지부장 김국배)가 결성되었다. 탐라합창단은 그해 9월 각 교회의 교인들로 구성되었으며, 이후 1970년까지 약 9년간 활동했다. 1962년, 1963년에 안익태 선생을 초청해서 합창 지도를 받았으며, 특별히 선생

으로부터 <애국가>를 지도받았다.

안익태 선생은 객석을 꽉 채운 공연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망설임 없이 지휘를 했다. 시벨리우스 작곡의 <핀란드아 중 코러스> 부분, 김국배 편곡의 제주민요 <오돌또기>, 안익태 작곡의 <무궁화 삼천리 강산>, 헨델의 메시아 중에서 <할렐루야>, 요한 시트라우스의 <아름답고 푸른 다뉴브강>, 베토벤 곡 <신의 영광> 등 현대의 합창단 프로그램으로도 전혀 손색이 없는 수준 높은 곡들이 연주되었다. 그리고 꽉 들어찬 관객들과 함께하는 합창단 공연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선생은 <애국가>를 첫 곡으로 힘차게 부르던 합창단을 잠시 멈추게 하고는 객석에 앉아음악회를 감상하고 있던 제주도 부지사 하형모 씨를 무대로 모셔서 소개한다. 관객과 부지사에게 30분간 <애국가>를 가르쳤다. 그러면서 ‘<애국가>는 잃어버린 조국을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펼치는 독립투사들의 심정으로, 장엄한 마음으로 힘차게 불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애국가>의 구절구절마다 꼼꼼히 해석하고 주석을 붙이면서 지도하는 안익태 선생을 보면서, 객석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다. 작곡가로부터 직접 <애국가>를 지도받은 도민은 제주도민 밖에는 없을 것이다. <애국가>에 담긴 내용과 선율을 들으면서 깊은 감동에 젖은 관객들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다.

이전에 불렀던 <애국가>는 <올드랜 사인>의 가락에 가사만 ‘애국가’를 입혀서 부르고 있었다. 제주도민에게 <애국가>를 직접 지도한 안익태 선생의 업적에 대해 알리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당시 객석에 앉아 있던 약 700~800명의 제주도민들은 깊은 감동과 함께 당시 장면을 오랫동안 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반주를 맡았던 M씨는 전날 리허설에서 안익태 선생에게 피아노 반주에 관해 혹독하게 지도를 받고 공연 당일 불참해서, 튜닝기로 모든 공연을 아카펠라(무반주)로 끝마치게 되었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클래식 음악을 접해 보지 못했던 제주도민들에게 음악에 대한 목마름이 절실했던 상황에서 그날의 공연은 놀람과 감격의 시간이 되었을 것이다.

또 다른 일화도 전해지고 있다. 지휘자가 단원들 앞에서 지휘하다 보면 단원들과 겹치게 되어서 객석에서는 단원의 모습이 가려지게 된다. 객석에서 지휘자를 가리키면서 ‘도대체 저 양반은 뭐를 한다고 화면을 가리느냐, 내가 보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다’는 불만을 늘어놓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고 한다. 당시 제주도 문화의 수준을 가늠하는 일화가 아닐 수 없다.

한편 당시 단원 중에는 4남매가 동시에 합창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이해숙, 혜실, 중현, 봉현(필자의 고교 시절 은사, 후에 제주산업정보대학 교수)이었다. 4남매는 공연에서 4중창을 했는데, 슈베르트의 <보리수>외 한 곡을 합창 공연 중간에 노래했다. 당시 안익태 선생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던 그들은 시간이 한참 지난 뒤에서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유명한 작곡가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이봉현 선생은 안익태 선생이 <애국가>를 가르치시는데, 말씀이나 지휘하시는 움직임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그런 열정적인 모습에 단원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그때의 감동을 전했다. 그 후 자신이 교단에 섰을 때에도 반 학생들에게 <애국가>를 지도했다.

서귀포 공연

1964년 7월 3일 제주시민회관이 개관되고, 그 기념으로 안익태 선생의 지휘로 탐라합창단의 정기 공연을 마친다. 연주회 다음날은 서귀포에서의 공연이었다. 그 당시에는 제1횡단도로가 개통되지 않았을 때였다. 마이크로버스를 타고 서회선으로 무려 5시간이 걸려 서귀포에 도착한다. 도착 즉시 피아노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탓에 안익태 선생이 직접 서귀포초등학교에 가서 마차로 풍금(오르간, 피아노가 없었음)을 가지고 온다. 안익태 선생은 총책임자로서 풍금도 직접 운반하고, 분주하게 공연무대를 준비하고 리허설을 마쳤다.

그의 음악적 열정과 지도는 언제나 적극적이다. 공연 시간은 저녁 영화 상영 전에



그림 2-3. 서귀포 관광극장

모두 끝나야 했다. 잠시 쉬는 시간을 이용해서 삼일극장 남쪽 터에 앉아서 서귀포 앞바다의 경치를 바라보았다. 그곳은 서귀포 시가지와 앞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장소였다. 현재는 서귀포회관이라는 건물이 들어서 있다. 안익태 선생이 서귀포 앞바다를 가리키며 '서귀포는 진정으로 동양의 나폴리다'고 했던 말을 당시 단원들이 전부 기억하고 있다고 한다. 당시 선생과 단원들 4~5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것을 찾을 길이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

객석(400여 좌석)이 꽉 들어찬 관광극장은 안익태 선생의 지휘 모습에 매료된 기운으로 가득했다. 선생은 제주시 공연에서와 마찬가지로 <애국가>를 관객들에게 가르치고 함께 불렀다. 안익태 선생이 제주에서 탐라합창단을 지휘한 기록은 세밀하게 남아있지 않지만, 무대에서 공연했던 탐라합창단 단원들과 음악회를 감상했던 관객들을 통해 직접 그날의 경험담을 들을 수 있었다.

서귀포 관광극장은 현재 지붕도 없이 벽체만 덩그러니 서 있지만, 지금도 작은 공연이 계속 열리고 있다. 공연장의 벽을 메운 돌이 제주 현무암이라고 하는데, 현무암이 소리에 반응하기 때문에 객석에서 감상하는 관객들이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다고 한다. 현무암으로 만들어진 공연장은 제주시에 제주도 문예회관이 있다. 이 건물은 1985년 7월 19일에 착공해서 1985년 11월 5일 건립, 1988년 8월 25일에 개관하였다. 이 건물을 지었던 김홍식(전 명지대 건축학과 교수) 씨를 서울에서 만나 볼 기회가 있었는데, ‘제주도 문예회관의 벽체가 제주도 현무암으로 건축이 되어서 음향이 전반적으로 좋다’라는 말을 들었다.

현재 서귀포 관광극장은 바로 이웃하여 이중섭 미술관과 이중섭 거리, 솔동산, 문화의 거리, 공방이 자리잡고 있고, 1km 내에 소암 현충화 기념관, 구 서귀포 시가가 있다. 작가의 산책길 운영 등으로 특색 있는 문화의 거리로 변모하기 위해 시도하고 있다.

서귀포 관광극장에서 안익태 선생께서 서귀포 시민들에게 직접 <애국가>를 가르치고, 탐라합창단을 직접 지휘한 흔적들을 약 50여 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밝히고, 이러한 역사가 제주도민들에게 오랫동안 전해지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급한 사안이 서귀포 관광극장을 서귀포시에서 매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200~300석 규모의 실내·야외 공연장을 만들고, 공연장 이름을 안익태 공연장으로 명명하자는 것이다. 이중섭 미술관과 연계하여 공연장과 미술관이 함께 어우러지는 상생의 문화 가치를 높이자는 것이다. 현재는 폐가처럼 되어 버린 장소이지만, 언젠가는 서귀포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공연장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기대한다. 학수고대(鶴首苦待)를 하는 마음이다.

3. 노동요에 나타난 한라산

《제주도 민요 연구》(김영돈, 민속원, 1965)는 제주의 민요(사설)를 채보한 최초의 저서이다. 김영돈 선생이 제주도 곳곳을 직접 다니면서 제보자(唱者)를 직접 만나서 채록한 책이다. 방학과 휴일을 이용해 제주도 일원에 걸쳐서 수집하는 도중에 꽤 많은 전승자들을 만나고 훌륭한 노래를 얻는다는 것에 희열을 느끼면서 채록했으며, 약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제주도 마을을 직접 답사하며 수집하고 나니 카드 상자가 제법 풍성해졌다고 한다.

제주도 민요는 여성이 부르는 민요가 압도적으로 많다. 제주도는 현무암과 화산회토로 뒤덮여 있는 척박한 돌 많은 섬이다. 이 메마르고 비좁기만 한 땅에 목숨을 부지하며 살아가는 농민들에게는 눈물의 역사가 지속되었다. 이러한 연유로 수많은 노동요가 쏟아졌다. 근면성은 제주 여성의 표본이며 당연한 삶의 모습이다. 여성의 대부분이 각종 일터에서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입지적 가난과 눈물의 역사는 이 섬의 민요를 애수와 비통함으로 물들여 놓았다. 분명 낭만과 신비의 섬이지만, 제주도는 이 낭만과 신비의 휘장 밑으로 가난이 낳는 한숨과 가슴이 미어지는 통분이 넘친다. 민요는 이처럼 통계 숫자 이상으로 가장 정확하게 서민 생활을 보여주며, 향토색을 드러낸다.

김영돈 교수의 《제주도 민요 연구》에 수록되어 있는 제주도 민요 1,403곡 중에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곡은 13곡이다. 제주의 민요는 노동요가 대부분이다. 그중에서도 <맷돌노래>, <방아타령>, <해녀노래>, <김매는 노래> 등 4종의 민요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서는 《제주도 민요 연구》수록 자료를 바탕으로 ‘한라산’이 등장하는 민요의 사설을 살펴보고자 한다.

【노동요 〈팔자·한탄의 노래〉 208곡】

한로산에 쌓인 눈은 / 봄철 나민 처지주만 / 요내 가슴에 쌓인 시름 / 처진 날도 시리야
다(한라산에 쌓인 눈은 / 봄철 나면 처지지만 / 요내 가슴에 쌓인 시름 / 처질 날도 있
라 한다).

【노동요 〈맷돌·방아 노래〉 ‘發散’ 편 745곡】

흐를 해원 볼르당 봐도 / 볼를 놀래 / 수하영 잊져 / 한락산이 내 집이 됴민 / 부를 놀래 /
다 볼러 보카(하루 종일 부르다 봐도 / 부를 노래 / 수많이 있다 / 한라산이 내 집이 되면 /
부를 노래 다 불러 볼까).

【노동요 〈맷돌·방아 노래〉 ‘發散’ 편 780곡】

한로영산 / 흐르는 물은 / 폐양도 대동강 / 연주 지레 간다(한라영산 흐르는 물은 / 평안
도 대동강 연자매 찢으러 간다).

【해녀들의 ‘旅情’ 편 996곡】

한락산 허리엔 / 낭덜도 하고요 / 요내몸 가슴엔 / 존수심 하고나(한라산 허리엔 / 나무들
도 많고요 / 요내몸 가슴엔 / 잔 수심 많구나).

【옛 타령 ‘오돌또기’ 편 1,144곡】

한로산 허리엔 / 시로미 익은송 만송 / 서귀포 해녀는 / 바당에 든송 만송(한라산 허리엔
/ 시로미 익은듯 만듯 / 서귀포 해녀는 / 바다에 든듯 만듯).

【옛 타령 〈이야흥〉 1,149곡】

한로산 상상봉 / 노프곡 노픈 봉 /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어(한라산 상상봉 / 높고 높은 봉
/ 백록담이라 하는 곳이네).

【옛 타령 <이야흥> 1,153곡】

7월엔 감줄 빛 / 한로산 새 소리 / 신선의 나라여(가을엔 감굴 빛 / 한라산 새 소리 / 신선의 나라에).

【옛 타령 <이야흥> 1,157곡】

한로산 들판엔 / 물덜이 술치고(한라산 들판엔 / 말들이 살찌고).

【산천초목 편 1,163곡】

동박꽃은 피엿는디 / 흰눈은 왜 내리나 / 한로산 선네덜이 / 춤을 추명 노려 온다 / 고량부 삼성혈 차아가난 / 가마귀 까옥까옥 / 소낭만 푸르고나(동백꽃은 피엿는데 / 흰 눈은 왜 내리나 / 한라산 선녀들이 / 춤을 추며 내려온다 / 고량부 삼성혈 찾아가니 / 까마귀는 까옥까옥 / 소나무만 푸르구나).

【산천초목 편 1,197곡】

한강물이 다 술이라도 / 먹을 놈 웃이민 소용 웃곡 / 한로산이 다 돈이라도 / 쓸 놈 웃이민 소용 웃다(한강물이 다 술이라도 / 먹을 놈 없으면 소용없고 / 한라산이 다 돈이라도 / 쓸 놈 없으면 소용없다).

【동요 <줄놀이 하며>편 1,258곡】

(중략) 어기야 똥땅 기여들언 / 한라산에 간 보난 / 아들이긴 장기 두곡 / 딸아긴 노늬뻔 더라(얼렁똥땅 주워먹어 / 한라산에 가 보니 / 아들이긴 장기도고 / 딸아긴 놀이하고 있더라).

【동요 편 1,338곡】

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 직주 한라산 고사리 꼼짝(꼼짝 꼼짝 고사리 꼼짝 / 제주 한라산

고사리 째).

※ 179, 333, 686, 689, 873, 873, 883, 996곡에도 ‘한라산’을 사용하고 있음.

이상과 같이 김영돈 교수가 채집한 《제주도 민요 연구》에서 총 1,403곡 중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민요는 총 21편이다. 총 0.0149%에 해당할 정도로 미미하게 사용되고 있다. 당시 제주도민들에게 ‘한라산(漢羅山)’은 높은 산으로 인식되어 왔다. 한라산의 의미는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며, 해발 1,950m로 남한의 최고봉이면서도 사람들을 가까이하여 친숙함 또한 느끼게 하는 산이다.

예로부터 한라산은 명산이며, 영산(靈山)이라고 하였다. 지리산, 북한산의 금강산과 함께 한라산은 한반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산이라 칭한다. 제주도민들은 탐라국 시대부터 한라산 백록담 북쪽 기슭에서 천제(天際)를 봉행해 오다가 고려 후기인 고종 40년(1253년) 10월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산신제로 봉행되었다. 1470년 제주목사 이약동에 의해 2월 정일(正日)부터, 어렵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더욱 정성을 들여 산신에게 제를 올리고 국태민안을 빌었다. 숙종 29년(1703년) 당시 이형상 목사는 불교의 힘을 약화하고 유교를 정착시키기 위해 제주도에 있는 수백 개의 당과 절을 파괴해 버린다. 그 후 무교식으로 지내던 한라 산신제는, 1908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폐지된다. 그러나 신령한 한라 산신제를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산천단 마을 주민들이 일본 경찰의 감시를 피해 한라 산신제를 유지해 나갔던 것이다. 1958년에 제주시에서 주관하는 기우제를 시작으로 오늘날까지 제주도민들의 안녕을 기원하는 제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2011년 5월 9일에는 한라산신고선비(漢擎山神古壇碑) 3기와 제단 2식이 제주도 기념물 제66호로 지정이 된다.

4. 제주도 교가에 나타난 한라산

제주도내 각 학교 교가에는 한라산이라는 단어가 언제나 따라다닌다. 한라산을 적시하는 것은 그만큼 한라산을 신성시하기 때문일 것이다.

초등학교 교가에 나타난 ‘한라산’

〈성산읍 관내 학교〉



그림 2-4. 수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5. 시흥초등학교 교가



그림 2-6. 동남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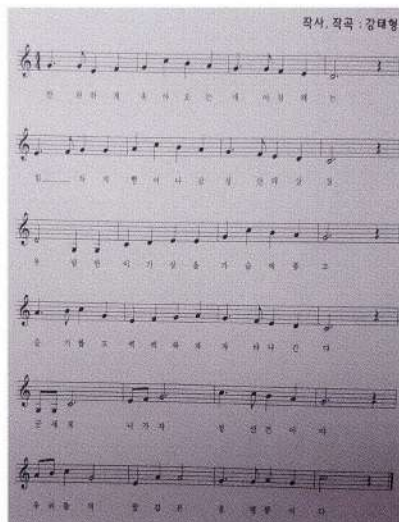


그림 2-7. 성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8.풍천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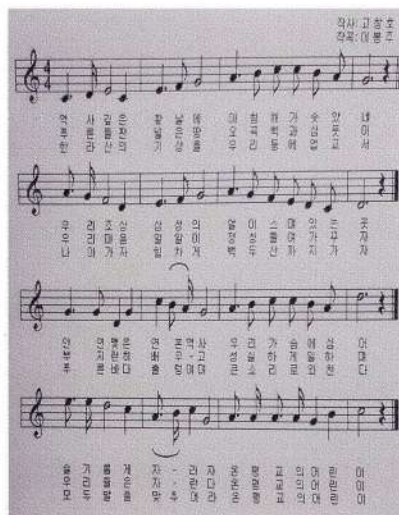


그림 2-9. 온평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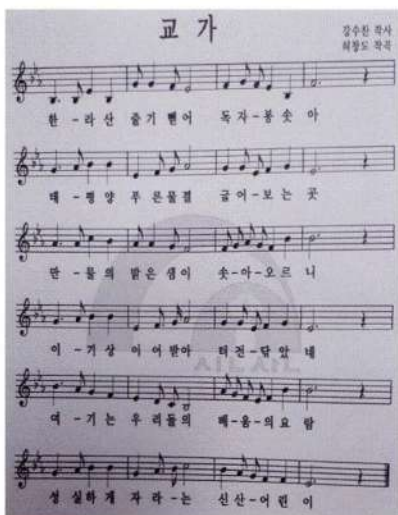


그림 2-10. 신산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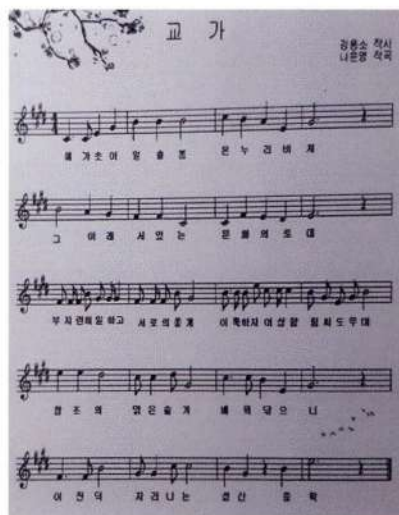


그림 2-11. 성산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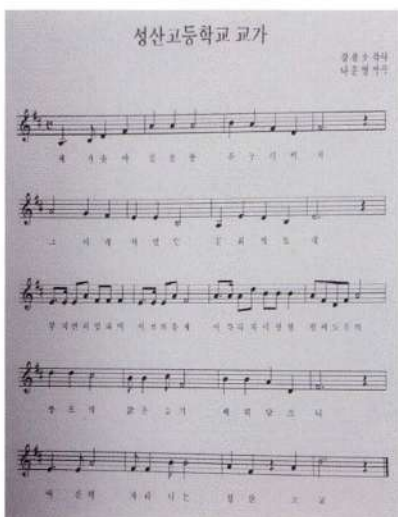


그림 2-12. 성산고등학교 교가

〈표선면 관내 학교〉



그림 2-13. 표선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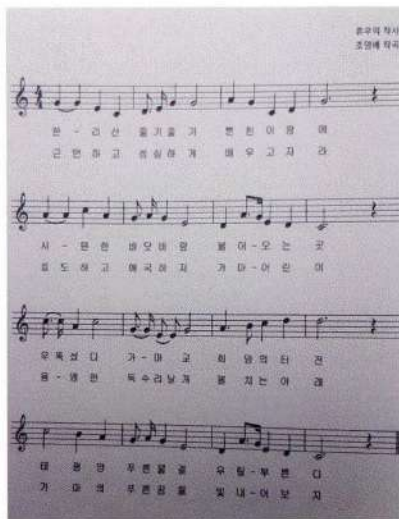


그림 2-14. 가마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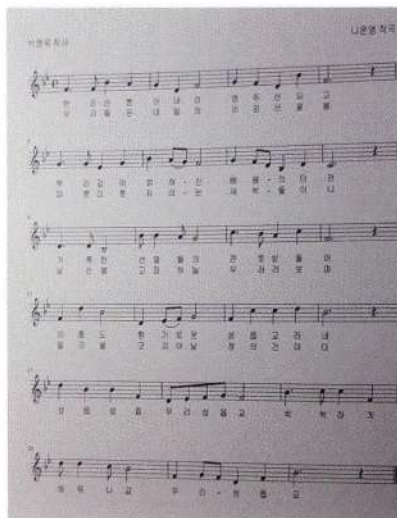


그림 2-15. 성읍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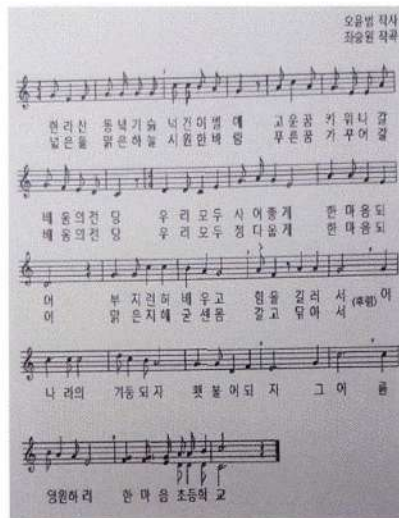


그림 2-16. 한마음초등학교 교가



그림 2-17. 토산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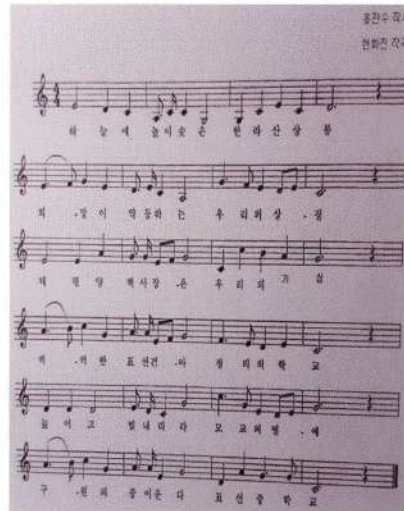


그림 2-18. 표선중학교 교가



그림 2-19. 표선고등학교 교가

<남원읍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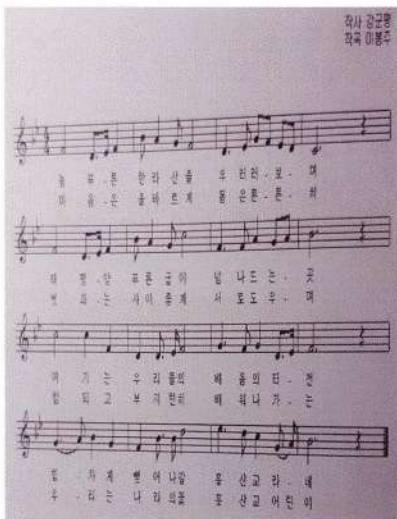


그림 2-20. 홍산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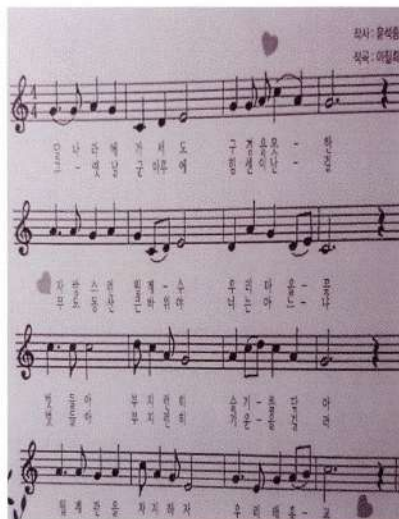


그림 2-21. 태흥초등학교 교가



그림 2-22. 남원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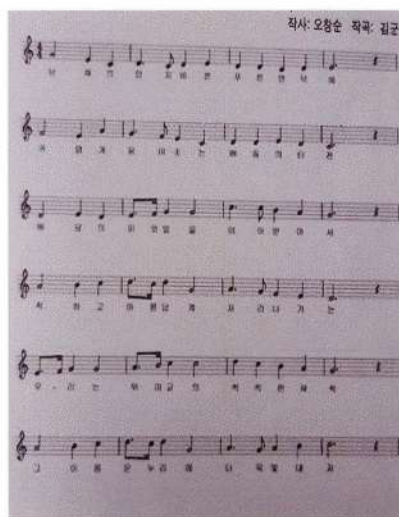


그림 2-23. 위미초등학교 교가



그림 2-24. 신례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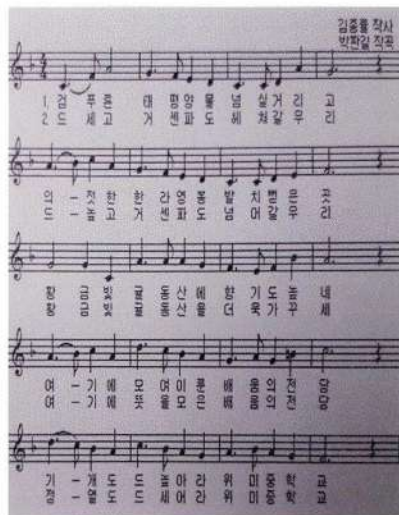


그림 2-25. 남원중학교 교가



그림 2-26. 위미중학교 교가

〈서귀포 관내 학교〉



그림 2-27. 효돈초등학교 교가



그림 2-28. 서귀포 초등학교교가



그림 2-29. 서귀북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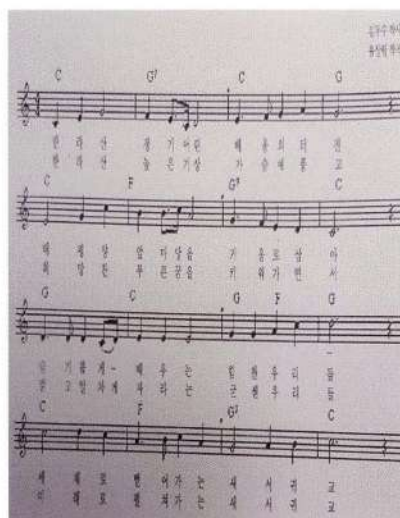


그림 2-30. 새서귀초등학교 교가



그림 2-31. 새서귀초등학교 교가



그림 2-32. 법환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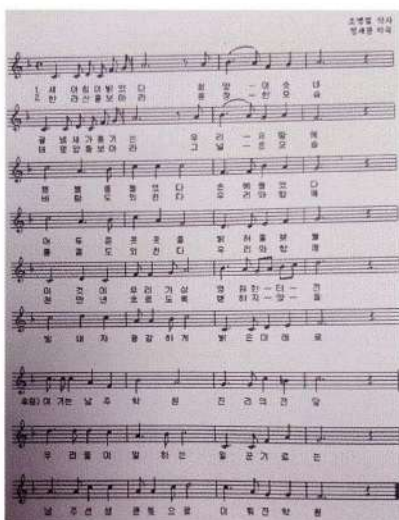


그림 2-33. 서호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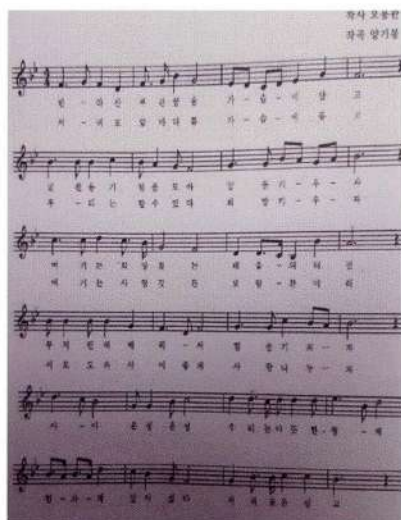


그림 2-34. 서귀포 온성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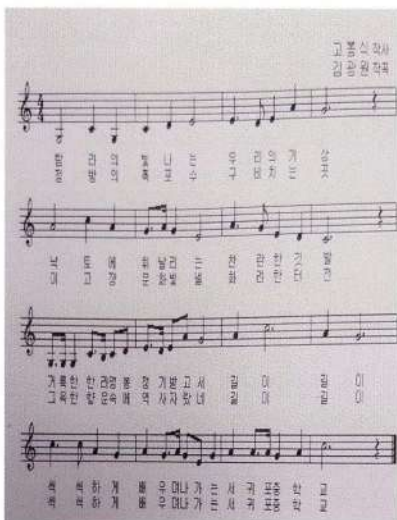


그림 2-35. 서귀포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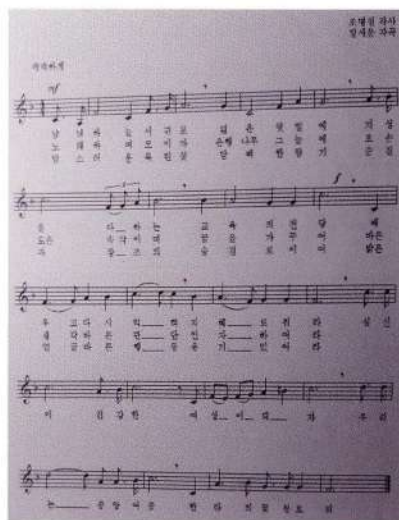


그림 2-36. 남주(고등)중학교 교가



그림 2-37. 서귀대신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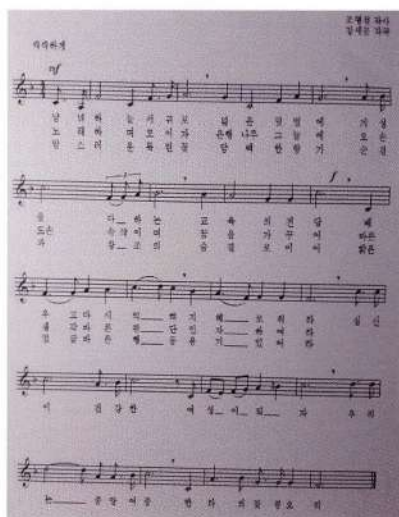


그림 2-38. 서귀중앙여자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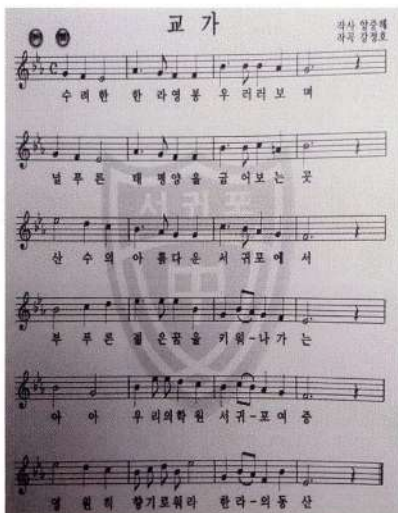


그림 2-39. 서귀포여자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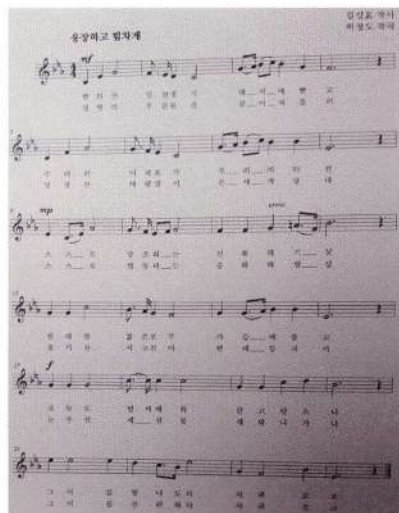


그림 2-40. 서귀포고등학교 교가

<중문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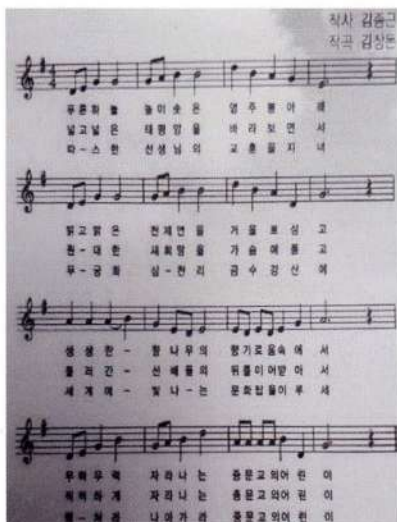


그림 2-41. 중문초등학교 교가



그림 2-42. 강정초등학교 교가



그림 2-43. 하원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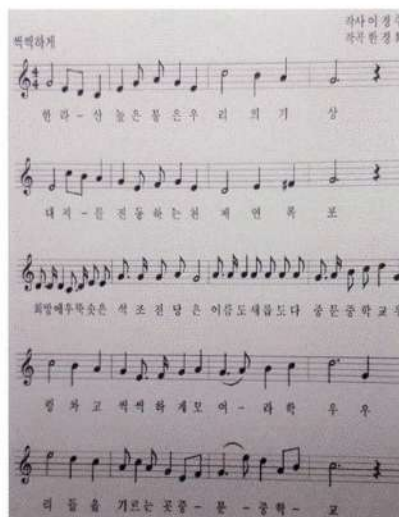


그림 2-44. 중문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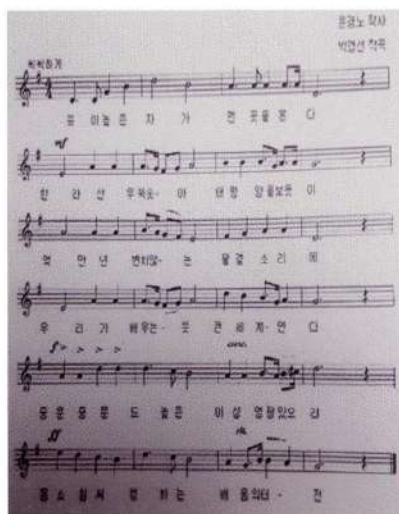


그림 2-45. 중문고등학교 교가

<안덕면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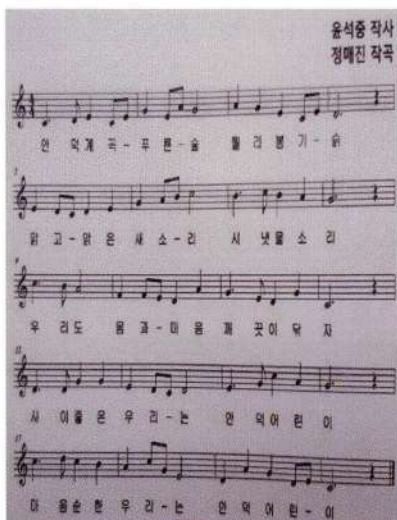


그림 2-46. 안덕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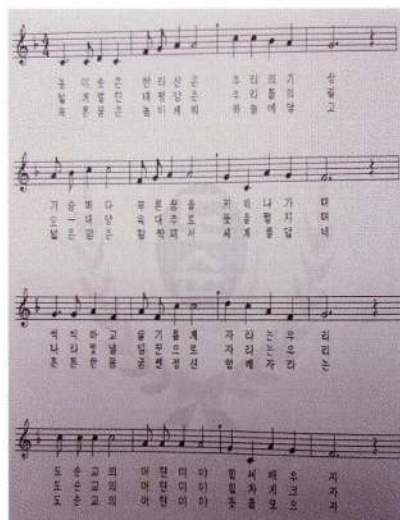


그림 2-47. 도순초등학교 교가



그림 2-48. 예레초등학교 교가



그림 2-49. 창천초등학교 교가



그림 2-50. 안덕중학교 교가

〈대정읍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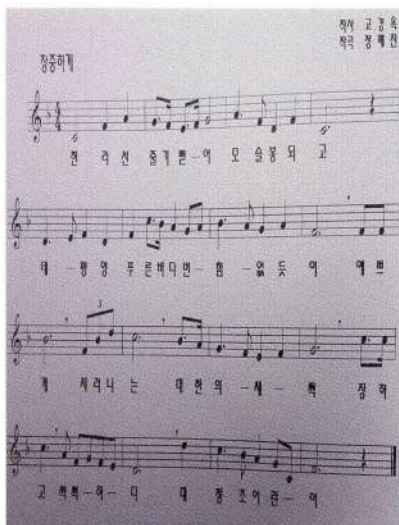


그림 2-51. 대정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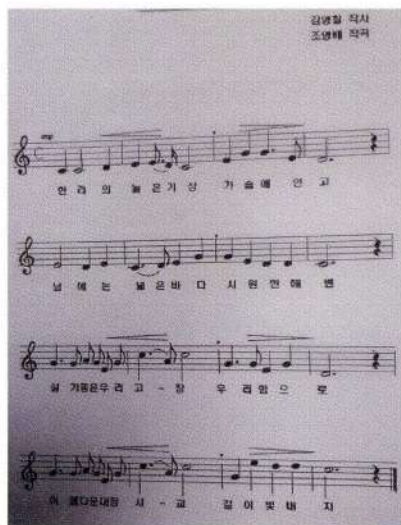


그림 2-52. 대정서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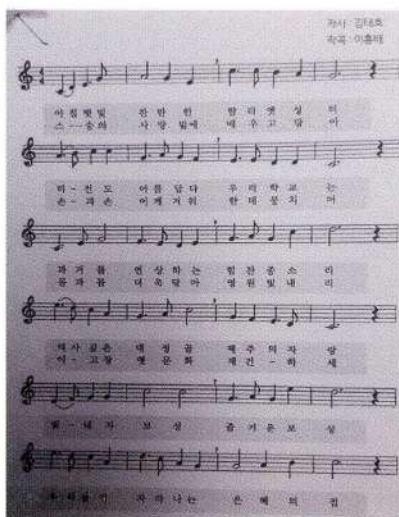


그림 2-53. 보성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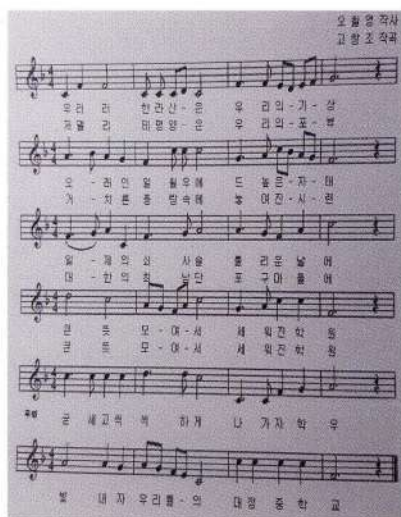


그림 2-54. 대정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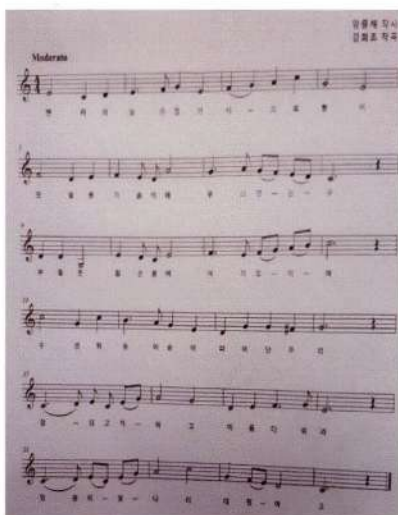


그림 2-55. 대정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56. 무릉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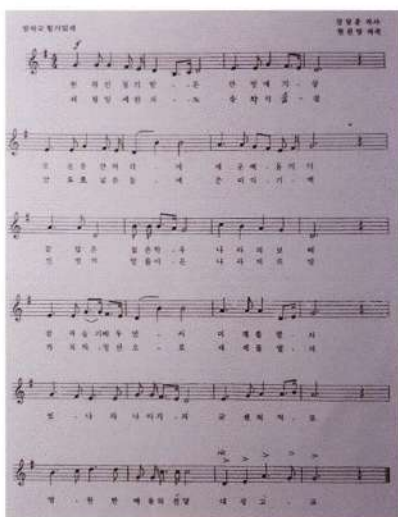


그림 2-57. 대정고등학교 교가

〈한경면 관내 학교〉



그림 2-58. 고산초등학교 교가



그림 2-59. 저청초등학교 교가



그림 2-60. 신창초등학교 교가



그림 2-61. 고산중학교 교가



그림 2-62. 신창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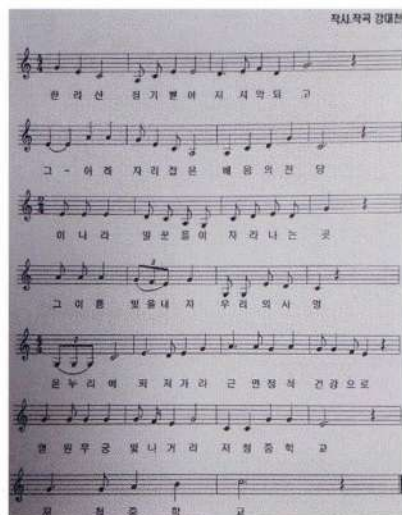


그림 2-63. 저청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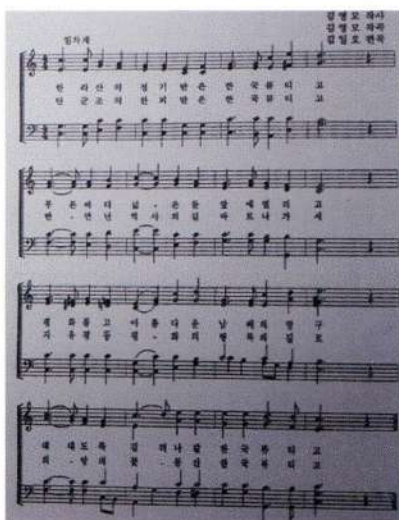


그림 2-64. 한국뷰티고등학교 교가

〈한림을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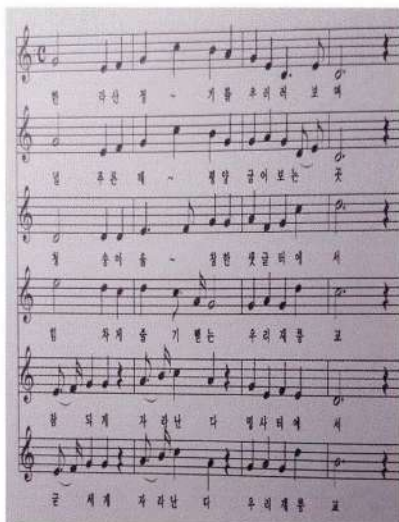


그림 2-65. 재릉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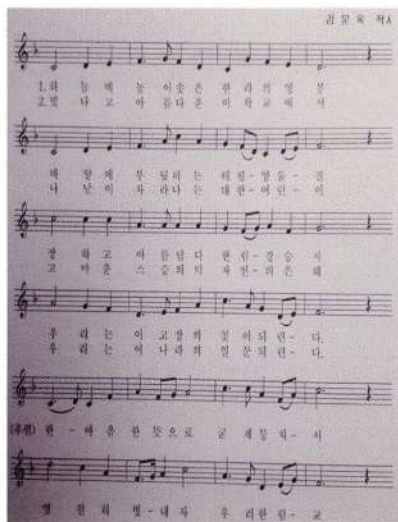


그림 2-66. 한림초등학교 교가



그림 2-67. 금악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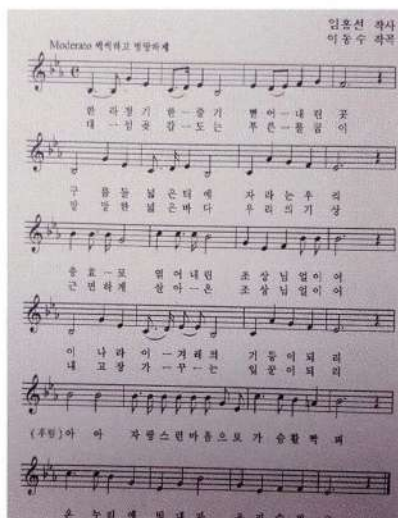


그림 2-68. 수원초등학교 교가



그림 2-69. 귀덕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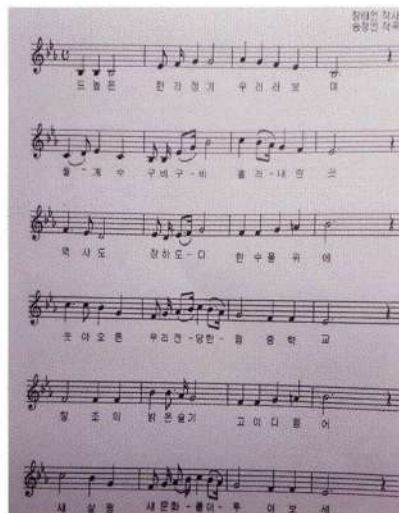


그림 2-70. 한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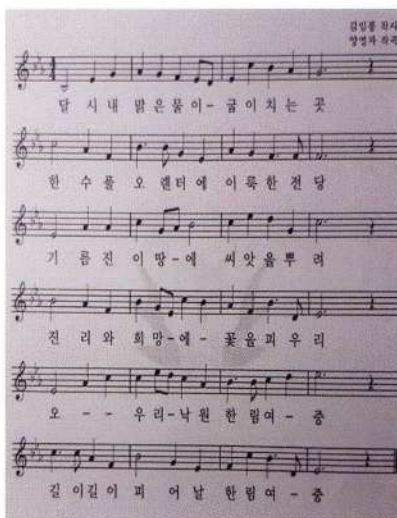


그림 2-71. 한림여자중학교 교가



그림 2-72. 한림고등학교 교가



그림 2-73. 한림공업고등학교 교가

〈추자면 관내 학교〉



그림 2-74. 추자초등학교 교가



그림 2-75. 추자중학교 교가

〈애월읍 관내 학교〉





그림 2-80. 더럭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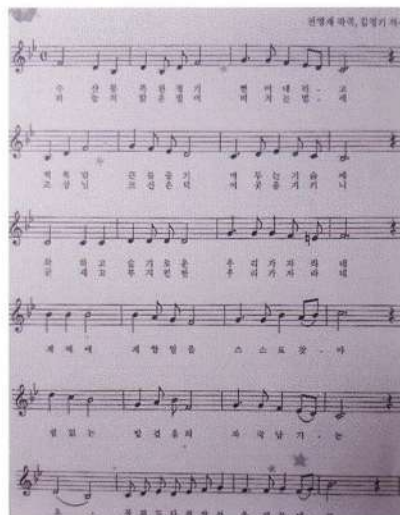


그림 2-81. 물메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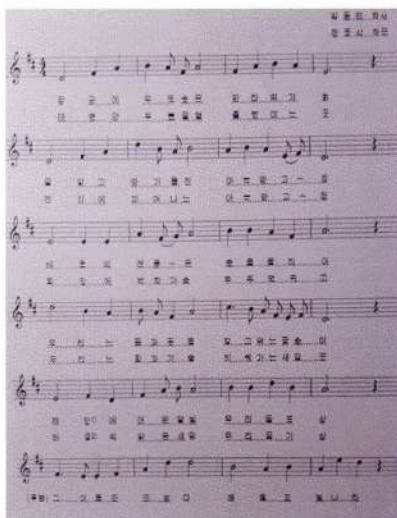


그림 2-82. 애월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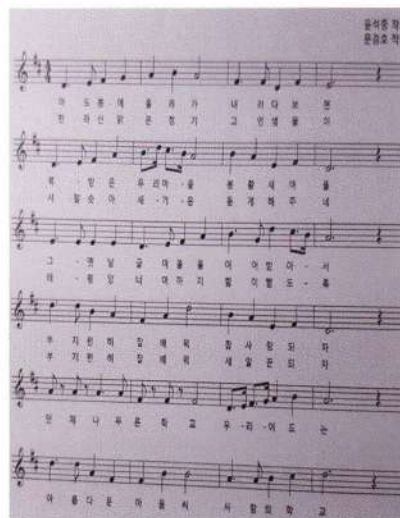


그림 2-83. 어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84. 장전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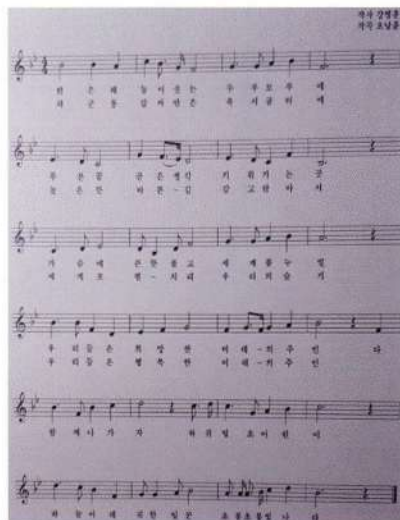


그림 2-85. 하귀일초등학교 교가



그림 2-86. 하귀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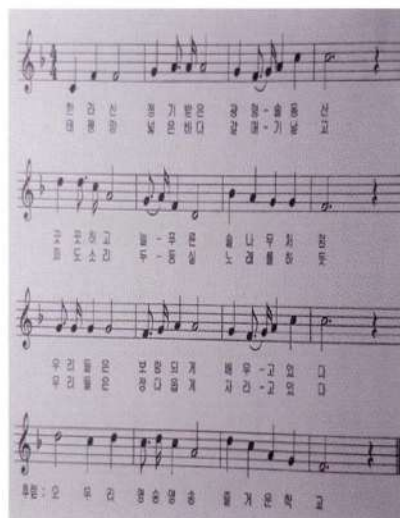


그림 2-87. 영송학교 교가



그림 2-88. 귀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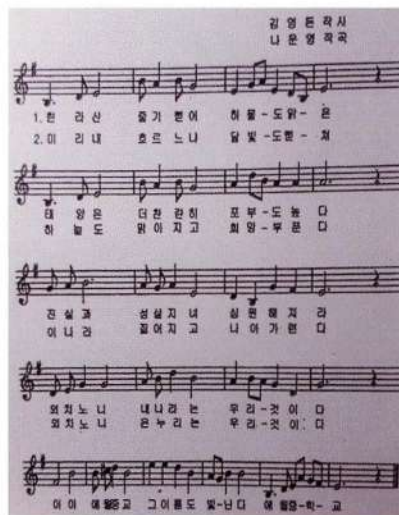


그림 2-89. 애월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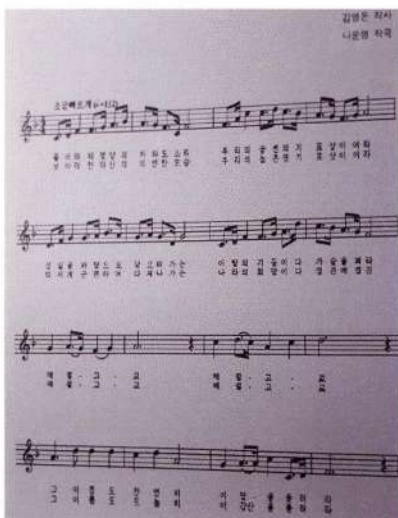


그림 2-90. 애월고등학교 교가

〈제주시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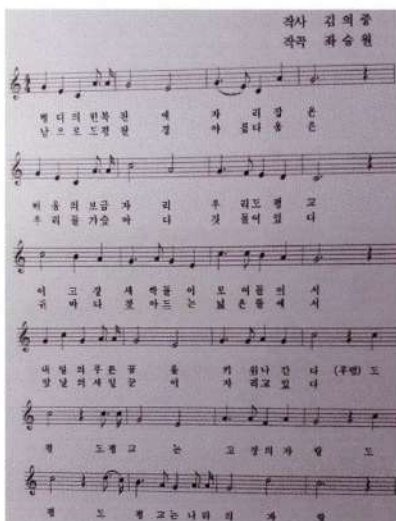


그림 2-91. 도평초등학교 교가



그림 2-92. 이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93. 해안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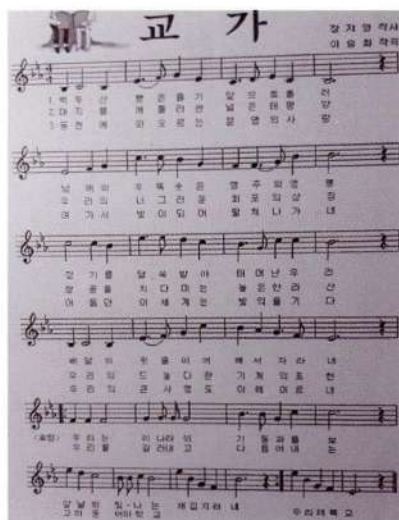


그림 2-94. 외도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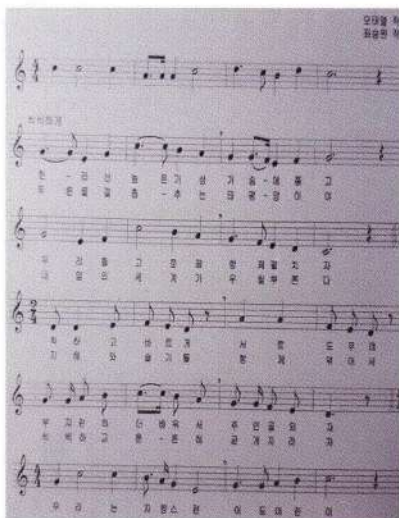


그림 2-99. 이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0. 한라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1. 월랑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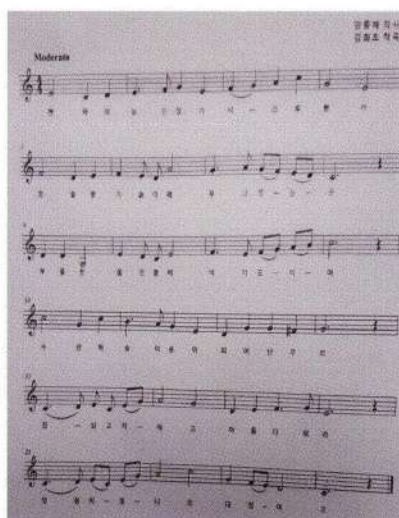


그림 2-102. 동광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3. 도남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4. 남광초등학교 교가



그림 2-105. 월평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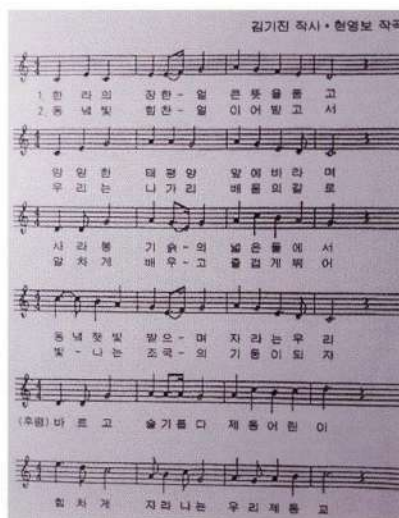


그림 2-106. 제주동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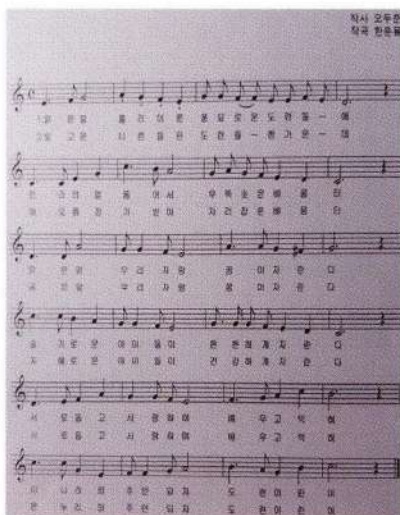


그림 2-111. 도련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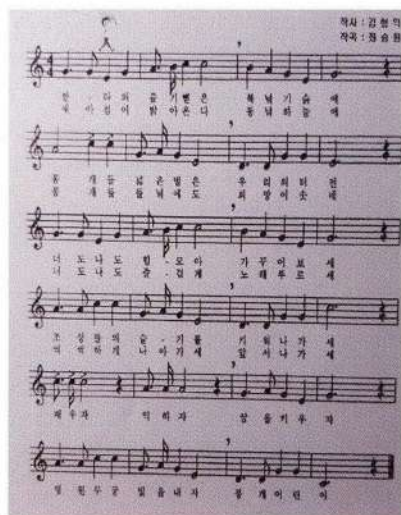


그림 2-112. 봉개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3. 아라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4. 삼양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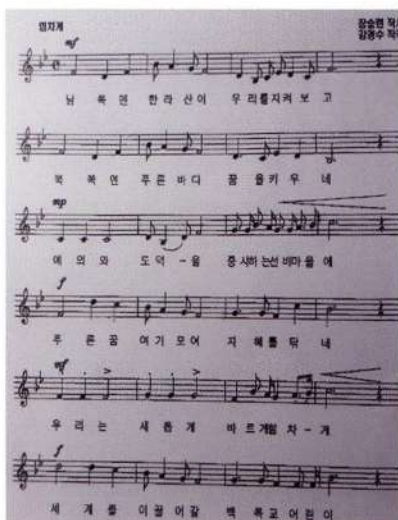


그림 2-115. 백록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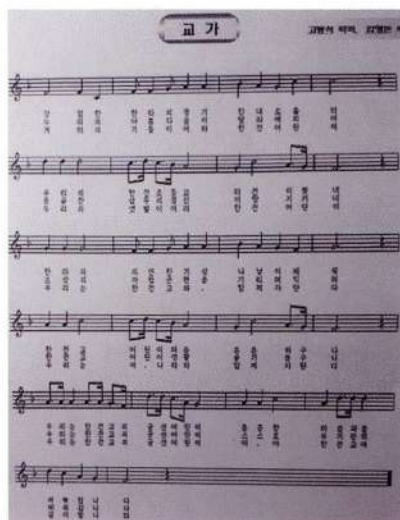


그림 2-116. 한천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7. 삼성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8. 인화초등학교 교가



그림 2-119. 일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120. 신광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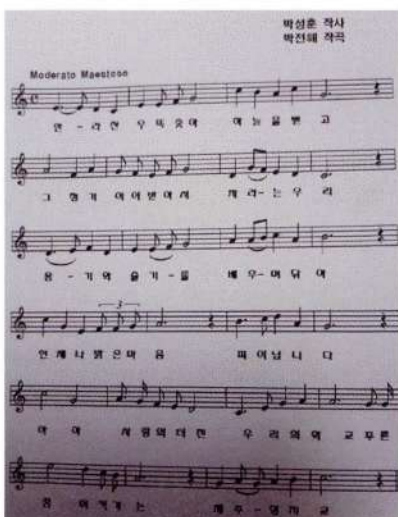


그림 2-121. 제주영지학교 교가



그림 2-122. 한라중학교 교가



그림 2-123. 제주시중학교 교가



그림 2-124. 노형중학교 교가



그림 2-125. 제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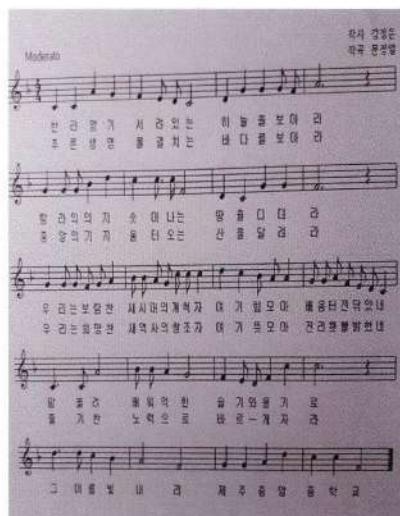


그림 2-126. 제주중앙중학교 교가



그림 2-127. 탐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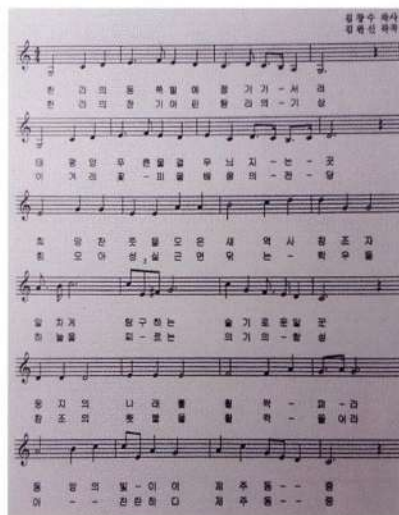


그림 2-128. 제주동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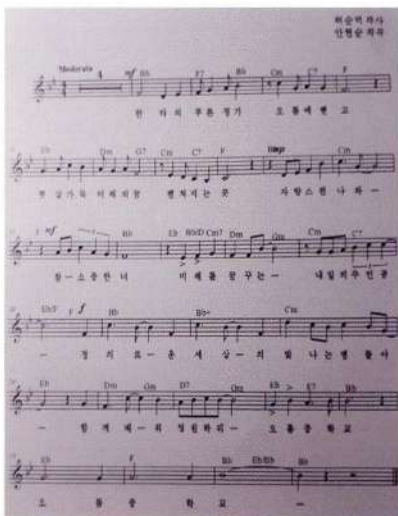


그림 2-129. 오름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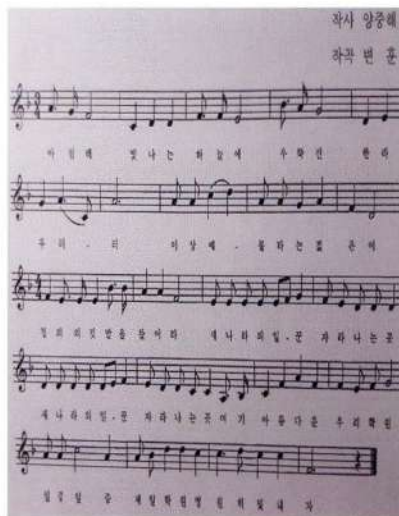


그림 2-130. 제주제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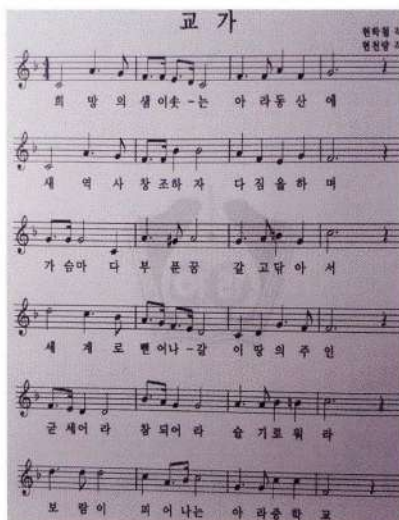


그림 2-131. 아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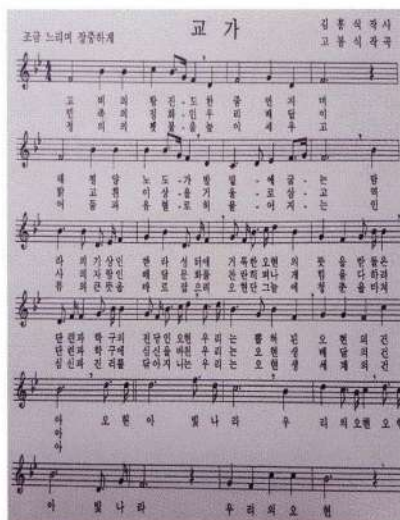


그림 2-132. 오현중학교 교가



그림 2-133. 제주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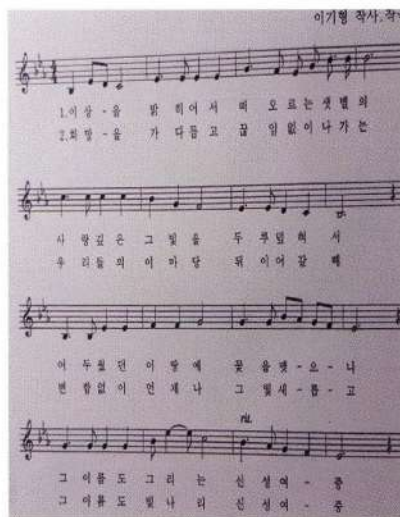


그림 2-134. 신성여자중학교 교가



그림 2-135. 제주중앙여자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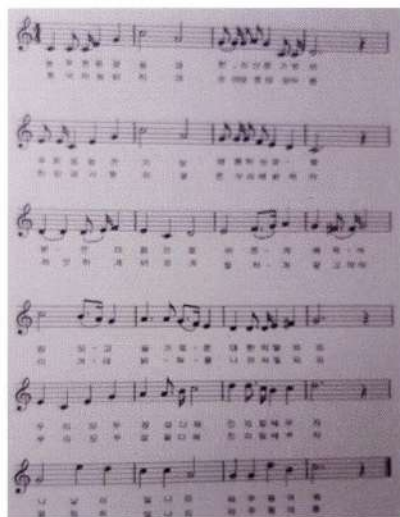


그림 2-136. 제주동여자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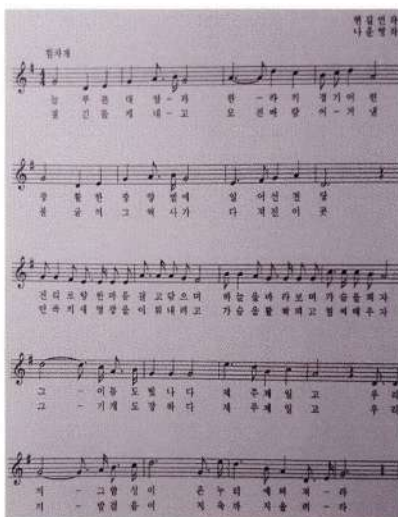


그림 2-137. 제주세일공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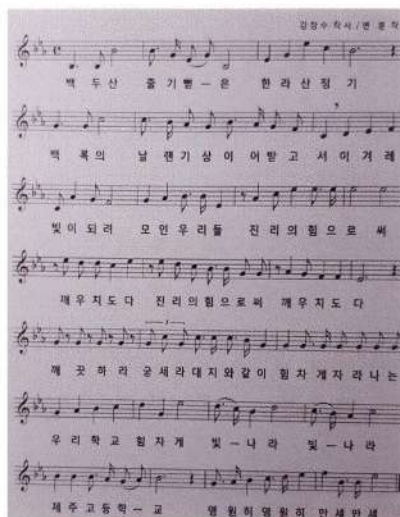


그림 2-138. 제주고등학교 교가



그림 2-143. 제주중앙고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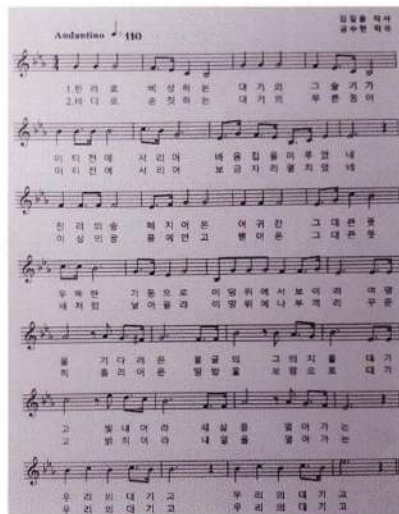


그림 2-144. 대기고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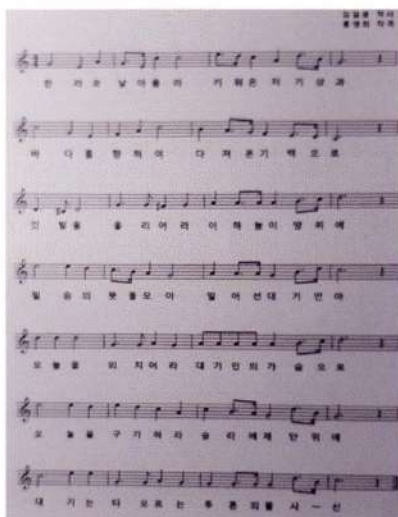


그림 2-145. 대기고등학교 응원가



그림 2-146. 신성여자고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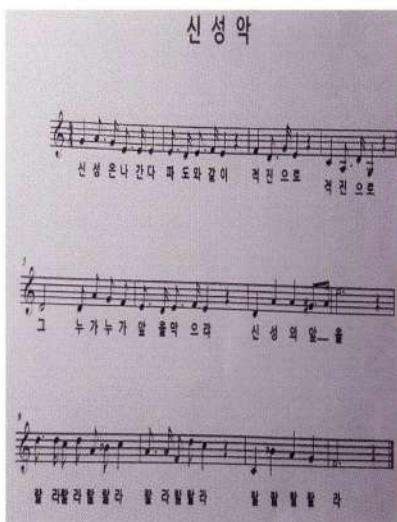


그림 2-147. 신성여자고등학교 응원가



그림 2-148. 제주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149. 제주중앙여자고등학교 교가



그림 2-150. 제주여자상업고등학교 교가



그림 2-151. 제주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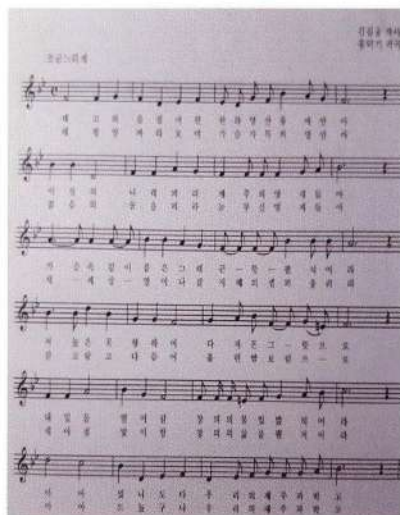


그림 2-152. 제주과학고등학교 교가

"Senza di me" (orch.)
 박지현 편곡

장지현 편곡
 박지현 편곡
 박지현 편곡

1. 2. 3.
 1. 2. 3.
 1. 2. 3.
 1. 2. 3.
 1. 2. 3.

그림 2-153. 제주대학교 교가

〈조천읍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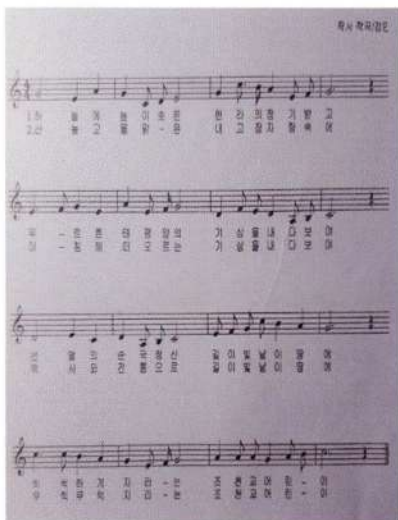


그림 2-154. 조천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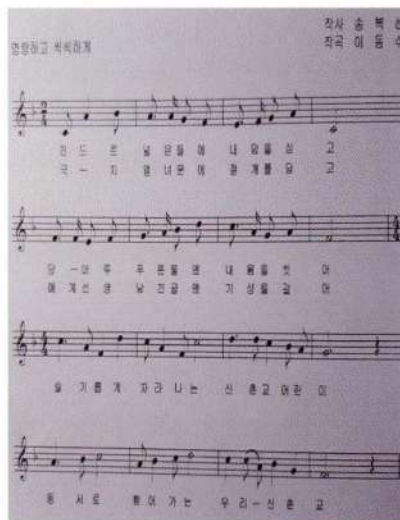


그림 2-155. 신촌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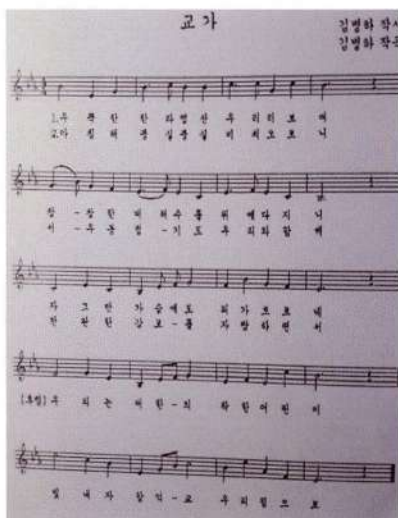


그림 2-156. 함덕초등학교 교가



그림 2-157. 북촌초등학교 교가

〈구좌읍 관내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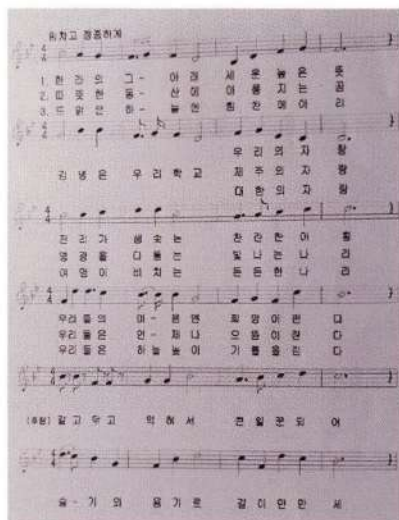


그림 2-162. 김녕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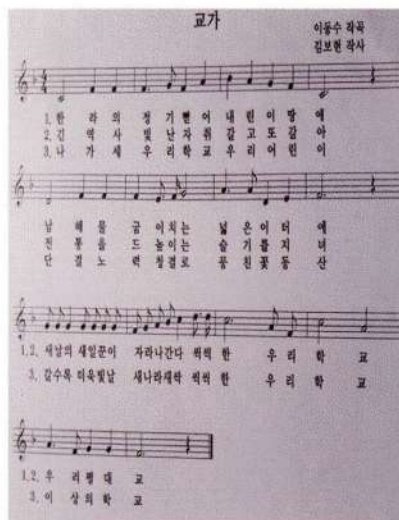


그림 2-163. 평대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4. 세화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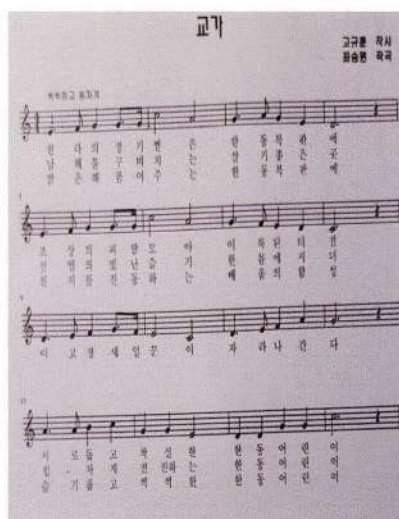


그림 2-165. 한동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6. 하도초등학교 교가



그림 2-167. 종달초등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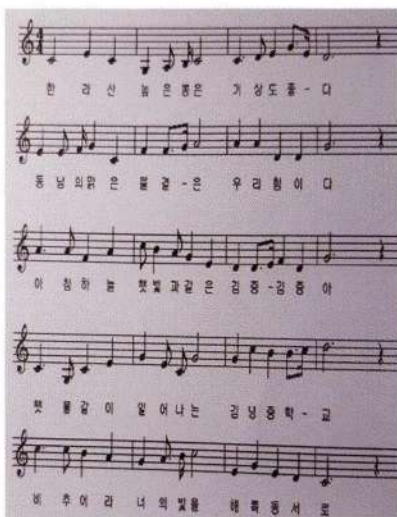


그림 2-168. 세화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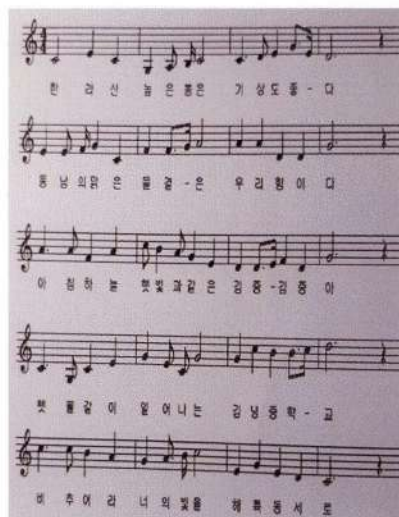


그림 2-169. 김녕중학교 교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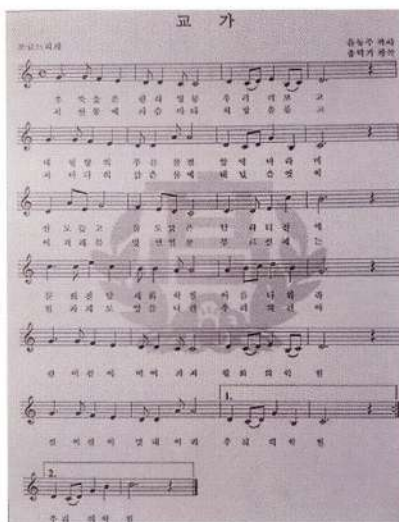


그림 2-170. 세화고등학교 교가

〈우도면 관내 학교〉



그림 2-171. 우도 초·중등학교 교가(통합교가)



그림 2-172. 제주도의 노래

제주도내 학교 교가를 조사하여 가사 속에 나타난 ‘한라산’의 용례를 살펴본다. 제주도 학교의 교가에 나타나는 ‘한라산’의 용례는 다음과 같다.

- ‘한라산 정기 받은~’(57개교) : 토산초, 신례초, 남원초, 하례초, 서귀포 산업과학고, 서귀포고, 새서귀포초, 대정중, 대정여중, 대정여고, 대정고, 대정중, 신창초, 고산중, 저청초, 제주영송학교, 어도초, 구엄초, 광령초, 한국뷰티고, 금릉초, 수원초, 저청중, 한림공고, 한림중, 한림공고, 제주시중, 하도초, 한동초, 평대초, 함덕초, 함덕고, 함덕중, 조천중, 북촌초, 조천초, 사대부고, 오현고 응원가, 제주고, 제주일고, 한천초, 이도초, 동광초, 한라초, 제주시초, 외도초, 동여중, 중앙여중, 중앙중, 제주동중, 탐라중, 제주중, 노형중, 제주시중, 오름중, 신암중, 남녕고

■ ‘한라영봉’(22개교) : 풍천초, 수산초, 위미중, 서귀여자중, 서귀여고, 서귀포중, 서호초, 서귀포초, 무릉초, 귀일중, 금악초, 한림초, 한림고, 세화고, 삼양초, 아라초, 제주대 부속초등, 영평초, 남광초, 도남초, 귀일중

■ ‘한라의 높은 기상’(13개교) : 온평초(3절), 흥산초, 도순초, 대신중, 표선고, 대정서초 등, 대흥초, 대흘초, 동화초, 삼화초, 이도초, 해안초, 제주도

■ ‘한라의 장한 얼’(1개교) : 제주동초

■ ‘한라산 넓은 품’(3개교) : 의귀초, 서귀중앙여중, 도련초(한라의 얼)

■ ‘한라의 기슭’(2개교) : 한마음초, 남원중

■ ‘한라의 줄기 뻗어’(9개교) : 신산초, 가마초, 성읍초, 효돈초, 대정초, 애월중, 장전초, 추자초등, 봉개초

■ ‘한라의 우뚝 솟아’(4개교) : 도순초, 중문고, 더덕초, 제주중앙여고

■ 우람한 한라산’(3개교) : 서귀북초, 김녕중, 제주중앙초

■ 기타(한라의 품, 고상한 한라산, 의연한 한라산, 수려한, 한라산 높은 봉, 영주산 등, 30개교) : 동남초등, 중문초, 삼성여고, 남주중고, 서귀서초등, 표선중, 무릉중, 고산초, 중문중, 남읍초, 세화초, 김녕초, 함덕초, 제주대, 과학고, 대기고 응원가, 대기고, 중앙고, 제주고 응원가, 신광초(3절), 일도초, 백록초, 화북초, 월랑초, 신제주초, 제주북교, 제주여중, 제주일중, 한라중, 애월고

■ ‘한라산’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학교(42개교) : 시흥초, 성산고, 성산중, 성산초, 표선초, 위미초, 태흥초, 창천초, 남주중, 서귀온성학교, 법환초, 서귀중앙초, 보성초, 안덕중, 예례초, 안덕초, 하원초, 귀덕초, 하귀초, 하귀일초, 물메초, 애월초, 곽금초, 추자중학교, 한림여중, 세화중, 종달초, 신촌초, 신성여고, 제주여상, 제주여고 응원가, 제주여고, 제주여중, 신성악(응원가), 영주고, 오현고, 인화초, 삼성초, 도평초, 아라중, 영지학교, 신성여중

※ 186개 학교의 교가와 응원가, 대학, 제주도의 노래 등을 대상으로 분석했으며, 다만 홈페이지에 교가를 올리지 않은 학교는 조사 대상에서 누락 되었음을 밝힌다. 또한 도내 유치원과 외국학교 교가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위의 조사 결과를 통해 ‘한라산의 정기’가 등장하는 노래들이 가장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한라산의 정기를 받고 자란 제주도민으로서의 긍지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 기타 ‘한라산’을 그린 작품들

제주국제합창제 창작 작품

제주국제합창제는 ‘한라산’이 주제가 되거나 제주가 주제가 되는 작곡 축제를 개최했다. 전국의 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한 작곡 콩쿠르를 통해 제주 또는 한라를 내용으로 하는 가곡과 합창곡들이 발표되었다. 연주는 기성 성악가들과 국내에 손꼽히는 합창단에게 공연을 부탁했다. 당시 발표된 곡 중에서 ‘한라산’을 내용으로 한 곡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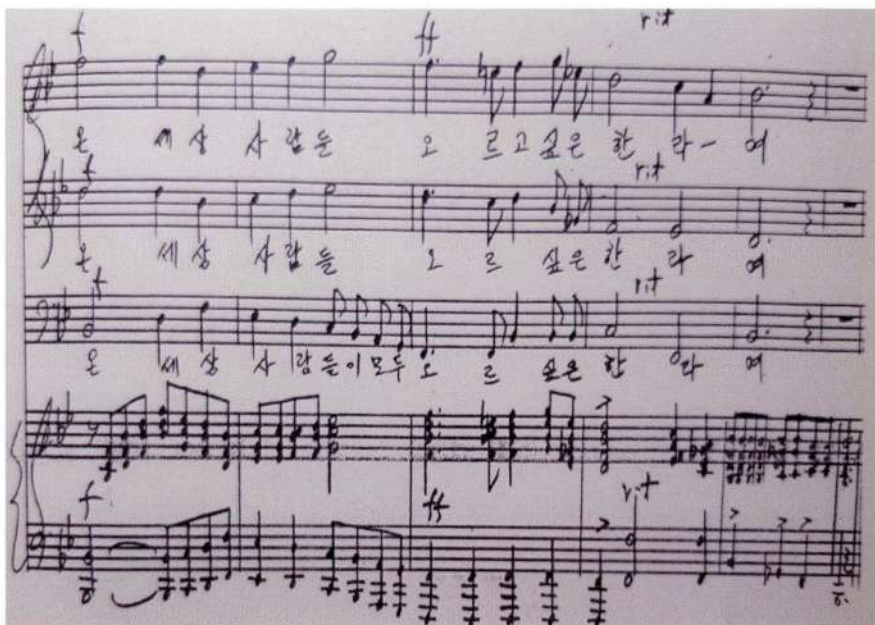


그림 2-173. 〈한라는 한라산으로 빛나라〉 악보 (이항숙 작사, 최현숙 작곡)

2001년 시작된 ‘탐라전국합창축제’는 전국의 시인과 작곡가들에게 작곡을 위촉하여 가곡과 합창곡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2005년 처음으로 작곡된 작품들로 공연했다. 2005년 7월 제주도문예회관에서는 <먼 바다 푸른 섬 바다>(한기팔 작사, 한정임 작곡), <들꽃의 향기처럼>(서공식 작사, 이안삼 작곡), <한라는 한라산으로 빛나라>(이향숙 작사, 최현식 작곡), <그림도 꽃이 되는(산굼부리에서)>(한여선 작사, 최영섭 작곡), <숫아라 한라여!>(김필연 작사, 임궁수 작곡) 등의 공연이 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 7월 14일에는 창작가곡경연대회가 열렸다. 이때 6곡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서 임승천 작사, 안영준 작곡의 <우리의 제주도라네>라는 곡에는 2절에 ‘푸른 물결 따라 밀려 오는 / 한라산 푸른 모습’이 그려지고 있다. 또한 합창경연대회 지정곡 중에는 <산아, 산아, 한라산아>(임승천 작사, 정덕기 작곡)라는 곡도 있었다.

이처럼 탐라전국합창축제를 통해서 많은 제주적인 가곡과 합창곡들이 탄생했다. 전국창작가곡 위촉곡 중에는 12곡이 발표되었는데, 4번째로 발표된 <아름다운 한라산>(함기선 작사, 신귀복 작곡)과 12번째 곡인 <한라산>(김원석 작사, 김현욱 작곡)이 있다.

<아름다운 한라산>의 가사를 보면, ‘푸른 바다 헤쳐 나와 / 높이 솟은 한라산은 / 하얀 이불 두른 듯’으로 이어진다. <한라산>은 ‘제주도라 한라산아 / 태양이 밝히려 / 은하수가 높더냐 / 우리 명산 한라산’이 등장한다. 다음 해인 2006년에는 창작가곡 위촉곡으로 13곡을 발표했는데, 모든 곡이 제주도를 주요 내용으로 했다. 창작합창곡 위촉곡집에는 7곡이 실렸는데, 2번 곡은 <이어도 산아>(홍일중 작사, 이안삼 작곡)와 마지막 곡인 <제주여 한라여>(김순진 작사, 정영택 작곡)이다.

제주국제합창제가 제주에서 펼치는 목적과 이유는 분명하게 나타난다. 전국의 시인들에게 제주나 한라산을 주 내용으로 한 가사를 써 달라고 의뢰한다. 그래서 행사가 있기 훨씬 전에 시인들을 섭외해 시를 받고 전국의 작곡가들에게 가곡이나 합창곡(여성, 남성, 혼성)의 장르는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해서 해마다 달리 작곡을 의뢰하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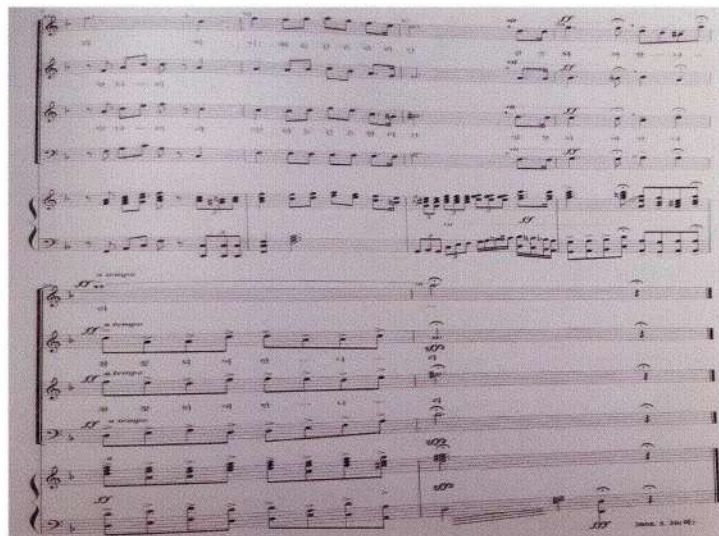


그림 2-174. <한라산의 참꽃되어> 악보 (장장식 작사, 강문칠 작곡)



그림 2-175. <제주여 한라여> 악보 (김순진 작사, 정영택 작곡)

또한 연주자들은 국내, 제주도 내의 성악가들을 망라해 무대에 서게 하였으며, 합창단인 경우는 전국의 전문 합창단으로 하여금 창작곡 공연과 함께 합창제에 참가해서 공연도 하게 했다. 합창에 익숙하지 않았던 제주도민들은 점차 합창축제의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게 되고, 공연에 대한 반응도 좋아지게 되었다.

2008 제주국제합창제에서도 창작곡 위촉곡이 다수 발표되었다. 이 해에는 여성 합창, 남성합창, 혼성합창곡들이 발표되었는데, 그중에 혼성합창곡인 <한라산의 참꽃되어>(장장식 작사, 강문칠 작곡)은 대구시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제주도 문예회관에서 7월 16일 오후에 발표되었다. 2008년 전국합창경연대회 지정곡(혼성합창곡)에는 4곡이 선정되었다. 집행부(제주국제합창제 조직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작곡을 의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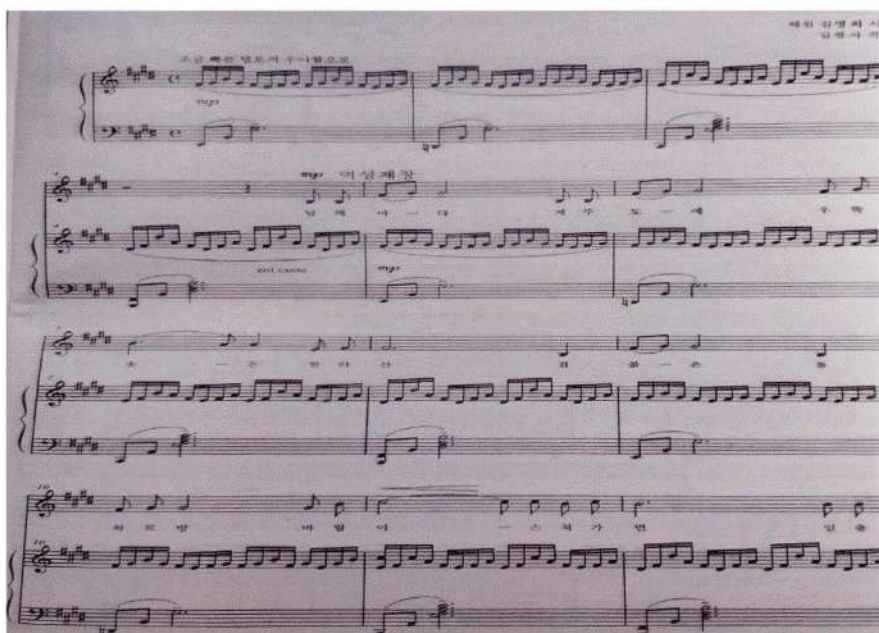


그림 2-176. <제주도 이야기> 악보(김명희 작사, 김광자 작곡) 일부

한다. 당연히 주제와 가사의 내용은 제주가 들어가게 했다. 경연곡으로 선정된 곡들을 살펴보면, <구름도 꽃이 되는>(한여선 작사, 최영섭 작곡), <숫아라 한라여>(김필연 작사, 임금수 작곡), <제주 공항에서>(박경선 작사, 허결재 작곡), <제주도 이야기>(김명희 작사, 김광자 작곡)가 발표되었다.

2009년을 마지막으로 제주국제합창축제는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 그해에도 제주와 관련된 곡들이 다수 발표되었다. 창작합창 위촉곡(남성합창) 3곡이 선정되었는데, 그중에 <한라산 겨울>(송창선 작사, 하순봉 작곡)의 가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산 짐승들이 살아가는 자취가 / 호젓이 나무 사이에 / 길을 내고 기우는 햇살 / 옛 생각들 길어내는 / 늦은 오후의 한라산을 가노라니~”

(〈한라산 겨울〉 가사 일부 발췌)

제주국제합창제에서 발표한 창작곡과 위촉곡, 콩쿠르 곡들은 모두 제주를 주 내용으로 작곡되었다. 100여 곡이 발표되었는데, 그중 일부가 한라산을 일부 표현하거나 한라산을 주 내용으로 작곡이 이루어졌다.

한라문화제 음악제 공연 작품

1993년 10월 ‘한라문화제’(현재는 탐라문화제) 음악제는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졌다. 당시 마지막 곡이 <한라산>(김순이 작사, 강문철 작곡)이었는데, 제주도립합창단의 공연으로 선보였다. 이 곡은 1993년 9월 제주도립(당시에는 시립)합창단에 의해 제20회 정기연주회에서 다시 발표되었다. 2008년 창작합창곡 위촉 작품 현황을 보면, <비양도 해녀>(고광자 작사, 정희치 작곡), <비치미 오름에 핀 겨울들꽃>(고병용 작사, 최병석 작곡), <오조리의 노래>(강중훈 작사, 임우상 작곡), <아영 고영>(고훈식 작사, 안현순 작사), <가장 오래 뜨는 별하나>(한기팔 작사, 김창재 작곡), <제주도 7실>(고훈식

작사, 홍요섭 작곡), <대금 산조>(권재효 작사, 우종익 작곡), <초봄에>(김광수 작사, 박진향 작곡), <한라산의 참꽃되어>(장장식 작사, 강문철 작곡), <도깨비 도로에 상사화 피었어요>(양전형 작사, 김승후 작곡), <내 마음의 바다>(고성기 작사, 조치노 작곡), <선작지왓>(김순이 작사, 이현근 작곡), <별>(양전형 작사, 권태복 작곡), <순비기꽃>(안정업 작사, 류항무 작곡), <약천사 북소리>(문상금 작사, 이정훈 작곡), <제주섬>(김정자 작사, 강석중 작곡), <한라산 노루>(김용길 작사, 김정길 작곡), <선돌마을>(강문신 작사, 강문철 작곡) 등이 발표되었다.

<제주교육의 노래>

1986년 3월 4일에는 전 제주도 교육감을 역임한 고봉식 선생이 대구에서 작곡 활동을 하던 강문철에게 편지를 보냈다. 서신의 내용은 자신이 <제주교육의 노래>를 작곡했는데, 한번 살펴봐 달라는 내용이었다. <제주교육의 노래>가사는 다음과 같다.

【1절】한라의 힘찬 고동 메아리 치고 / 태평양 큰 물굽이 / 세계로 뻗어 / 우렁찬 그 성역 / 지축까지 울려라 / 힘차게 즐기며 / 푸른 꿈을 키우며 / 찬란한 역사 위에 / 금자탑을 세우자 / (후렴) 아! 부지런히 바로 배워 / 겨레와 나라 위해 빛이 되리 / 제주교육 영원하라 영원하라 / 길이 빛나라 /

【2절】탐라의 장한 기상 / 우러러 보며 / 가슴을 활짝 열고 / 앞을 나가자 / 學究에 불타는 열 / 하늘 높이 솟쳐라 / 굳세게 훈훈하게 / 삼무정신 받들며 / 보람찬 배움으로 / 밝은 내일 가꾸자 / (후렴) /

1절의 가사 서두에는 ‘한라’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한라산’은 아니지만 ‘한라(漢羅)’라는 단어의 의미는 ‘저 멀리 구름 위로 우뚝 솟아 있는 검푸른 산’이라고 한다. 높이가 1,947m의 산이 높아 산정에 서면 은하수를 잡아당길 수 있다는 뜻이다. <제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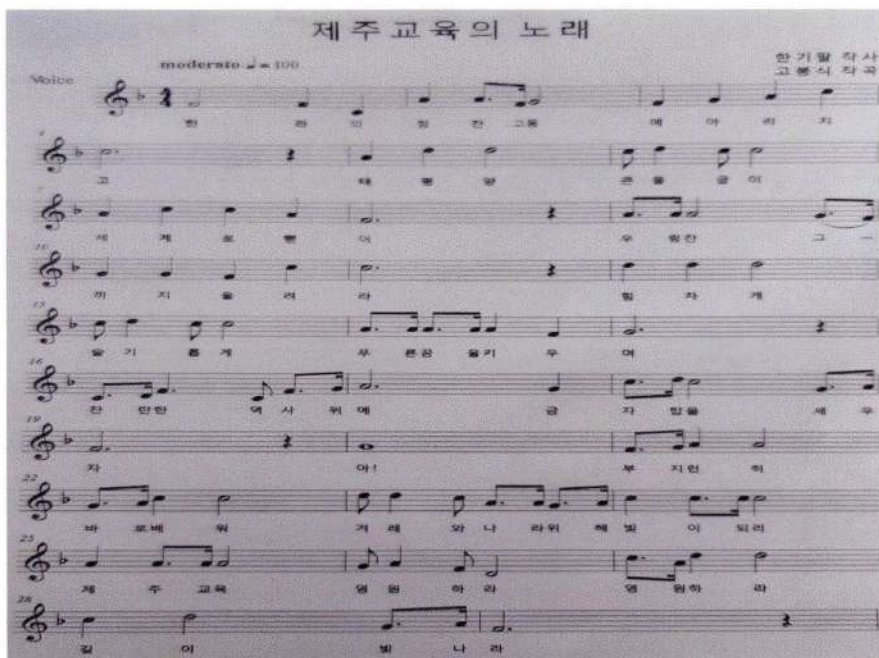


그림 2-177. <제주교육의 노래> 악보 (한기팔 작사, 고봉식 작곡)

교육의 노래>가 현재도 사용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고봉식 전 교육감의 열정을 살펴볼 수 있다.

<서귀포시 노래>

다음으로 ‘한라산’이 등장하는 노래로 <서귀포시 노래>를 들 수 있다. 이 노래는 서귀포 출신 시인인 김광협 시인이 작사를 맡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했다. <서귀포시 노래>는 처음부터 ‘한라의 멧부리가 굽어살피고~’로 시작이 되고 있다.



그림 2-178. <서귀포시 노래> 악보(김광협 작사, 김동진 작곡)

이교숙의 <한라산>

1990년 5월 12일 제주도 문예회관에서는 제주도 내 작곡가들의 연주회가 열렸다. 1996년 10월에는 한국에서는 작곡가로 유명하신 이교숙 선생께서 제주관악단을 위해서 <한라산(Mountain Halla)>이라는 제목의 Festival 곡을 써 주었다.

강문칠 창작 작품

2007년 12월 강문칠의 다섯 번째 창작 가곡 발표회가 있었다. 그날의 맨 마지막 곡목은 강문칠 작사, 강문칠 작곡의 〈한라산〉이었다. 2007년 11월 1일 작곡한 곡이다. 〈한라산〉은 2009년 3월 23일 서울 삼성문화센터 7층 대공연장에서 작곡가의 음성으로 발표되기도 했다.

【1절】한라산 기슭 따라 걸으면 / 새소리 물소리 / 무성한 나무들은 / 수천 년을 지난 듯 /
구름이 머물다가 간 자리엔 / 선조들의 숨결 가득 / 조국의 역사 품에 안은 / 아름다운 한
라산아 / (후렴) 조국의 희망과 평화 / 미래를 축복하듯이 / 언제나 우뚝 솟은 / 우리의 자
랑 한라산아 / 포근한 마음의 고향 / 우리의 명산 한라산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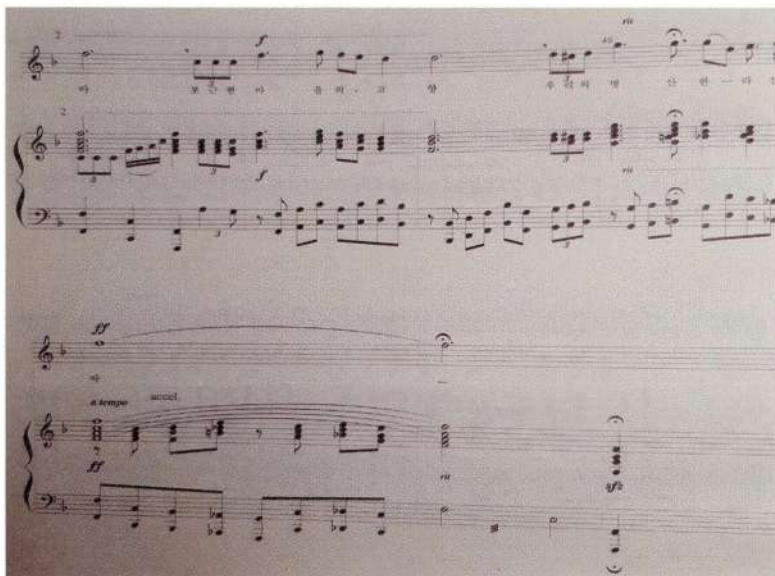


그림 2-179. 가곡 〈한라산〉 악보(강문칠 작사, 작곡)

【2절】한라산 정상에 올라보면 / 발 아래 구름이 / 하늘은 푸르러 / 만질 듯이 가깝다 / 한
 라산 굽이 굽이마다 / 푸르름이 만연하다 / 조국의 끝자락에 섰는 / 아름다운 한라산아 /
 (후렴) 우리의 명산 한라산아 /

강문칠은 1997년에는 서귀포시 효돈중학교에서 음악 교사로 3년 동안 근무를
 하는 동안 여러 번 한라산을 등반했다. 밤이 되어서 같이 간 동료 교사인 이영운 선
 생(후에 제주중앙여고 교장으로 퇴임)이 쓴 ‘영실’을 한라산에서 작곡하기도 했다(1,2
 곡). 2002년 <영실 1>을 발표하고, 여섯 번째 창작 가곡발표회(서귀포 예술의 전당)에
 서는 <영실 2>를 발표했다.



그림 2-180. <영실> 악보(이영운 작사, 강문칠 작곡)

1991년에 강문철은 제주도 관악협회 사무국장이었다. 당시 한국관악지도자 협회장은 남궁요열이었는데, 제주도에서 대회가 열린다고 해서 서울에서 제주까지 내려와 대회가 열리는 제주제일고등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제주관악인의 노래>는 강문철이 작사, 작곡했다.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 B-M’에서는 매해 강문철에게 창작곡을 의뢰해서 발표를 하고 있다. 《한라산의 사계》는 제주도 내에서는 흔치 않은 사례에서 등장한 작곡 작품이다. 강문철과 클라리넷 앙상블을 지도하고 있는 임대홍 선생과는 오현고등학교 음악부 동문이다. 동문회에서는 해마다 신년이 되면 신년 음악회를 진행하고 있었다. 연주회가 가까워지면 매일 저녁 모교 음악실로 모인다. 연습 시간 중간에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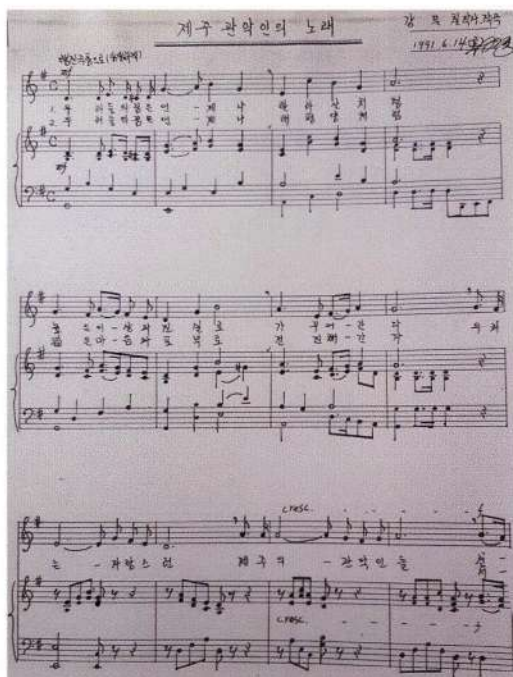


그림 2-181. <제주관악인의 노래> 악보(강문철 작사, 작곡)

대흥 선생이 강문철에게 “선배님! 우리 앙상블(B-M, Baroqu-Modern) 팀을 위하여 클라리넷 곡을 써 주십시오”라고 부탁했다. 그래서 탄생한 곡이 <한라산의 4계>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해마다 한 곡씩 작곡해서 발표하고 있다. 첫 발표회는 2017년 5월 제주대 아라무즈홀이었다.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을 위한 곡이었다. 연주자들은 대학에서 음악을 전공한 성인들로 구성이 되었다. 현대음악인데, 무조(無調)로 작곡이 된 곡은 제주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곡이다. 2017년~2019년까지 매해 봄, 여름, 가을을 발표했고, 2020년 겨울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연주를 개최하지 못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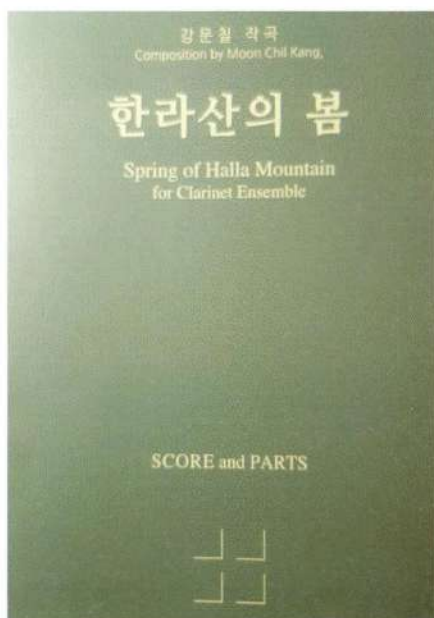


그림 2-182. 제주 클라리넷 앙상블 정기연주회 위촉 작품(강문철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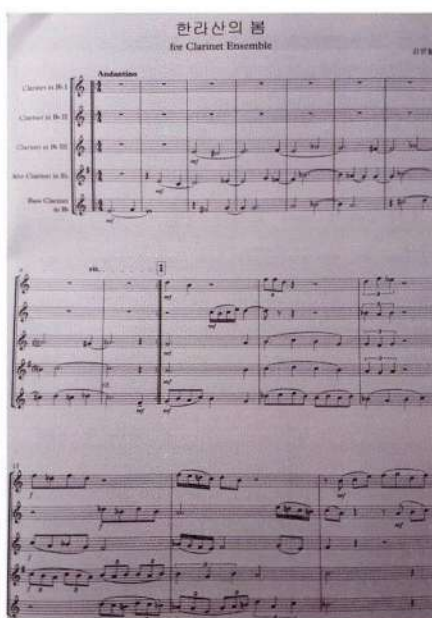


그림 2-183. 《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봄> (강문철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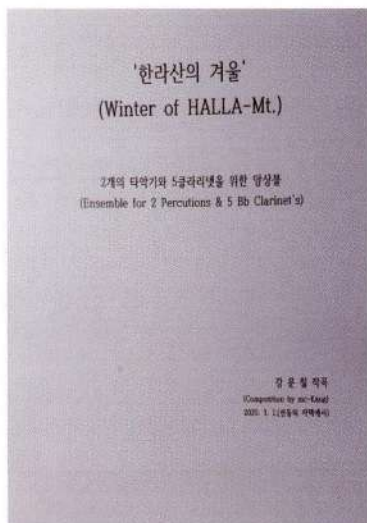


그림 2-184. 《한라산의 사계》악보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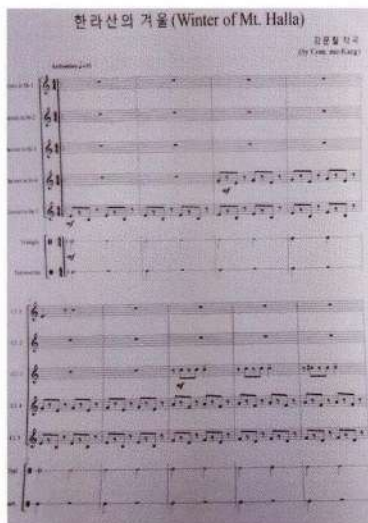


그림 2-185. 《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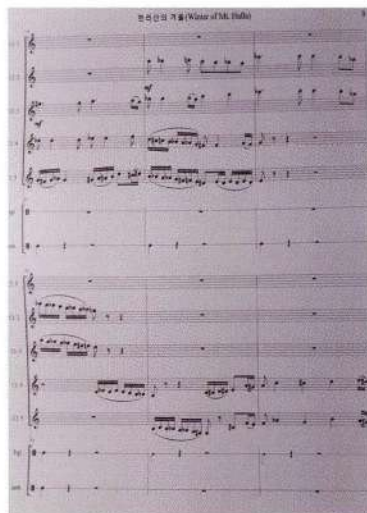


그림 2-186. 《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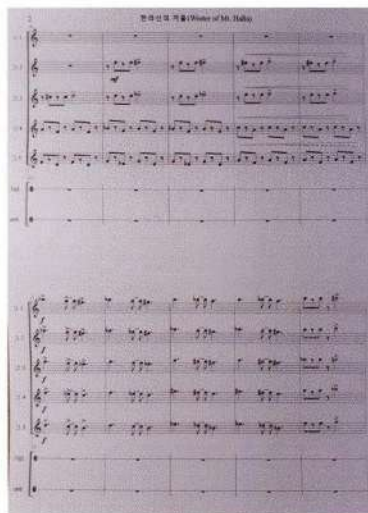


그림 2-187. 《한라산의 사계》악보 중
〈겨울〉4악장 일부

한라산홍서 7

한라산의 문학과 예술



제 3 장

한라산을 소재로 한 그림



여 백

현재 기록상 전해오는 가장 오래된 제주도 기록화는 고려 목종 때 태학박사 전공지가 그린 <화산도(火山圖)>일 것이다.

《고려사(高麗史)》에 ‘목종 5년(1002) 6월 탐라는 산이 네 구멍에서 빨간 물이 용출했는데 5일 만에 그쳤다. 그 물은 모두 돌로 변했다. 다시 목종 10년(1007)에 탐라 서산(瑞山)이 바닷속에서 용출했는데 탐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산이 처음 나타나고 운무(雲霧)는 어두컴컴하고 땅 흔들림이 우레와 같았다. 대개 7주야(晝夜) 동안 계속 됐다. 산 높이가 가히 100여 장(丈)이 되고, 둘레는 40여 리에 이르렀다. 초목은 없고 연기가 그 위를 덮었다. 이를 바라보니 돌유황과 같았다.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접근하지 못했다.’ 태학박사 전공지가 그 장면을 자세히 관찰하여 그림으로 그려 조정에 바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화산도>는 남아 있지 않지만 제주 화산폭발 장면을 매우 상세하게 그렸을 것으로 여겨진다. 전공지는 제주에 파견된 문신(文臣)으로 성종 때 진사에 급제하여 목종 때에 이르러 태학박사가 되었다. 이처럼 화산폭발 장면을 그린 그림이 제주도 기록화의 처음이라면, 그 후 한라산을 그린 그림들에는 언제, 어떤 작품이 전해올까 궁금해진다. 예나 지금이나 한라산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늘 경이로움을 안겨주는 대상이었다.

1. 조선 시대 한라산 그림

한라산의 상징성

한라산은 고대 동아시아에서 매우 잘 알려질 정도로 명산이었으며, 지금은 세계 자연유산의 섬을 만든 몸체로 인식되고 있다. 그래서 한라산이 주는 상징성은 한마디로 신령스러운 산이자 제주 사람의 정신을 지키는 한라산신의 의미로 여겨진다. 설화에서도 한라산은 아름답게 묘사된다. 봄과 가을에는 화려한 꽃과 단풍을 말하는 홍산(紅山)으로, 여름에는 초록의 청산(靑山)으로, 겨울에는 흰 눈이 쌓인 백산(白山)으로 불렸다. 이와 같이 계절마다 다양하게 변하는 한라산의 모습이 그만큼 아름다웠기 때문에 한라산의 자연을 극찬한 것이다.

또 한라산은 제주를 창조한 설문대 여신으로도 상징된다. 옛사람들은 겨울밤 흰 눈이 제주의 모든 오름을 덮으면 하얀 천지를 보면서 한라산신이 자신의 수백의 자식들, 즉 오백장군을 포근하게 이불을 덮어 재웠다고 하여 자식에 대한 어머니 사랑의 징표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위대한 어머니 역할을 한라산에 대입시켜 민간에 전해지는 것으로 볼 때 오래전부터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곧 제주의 설문대 할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문화는 결국 상징으로 귀결된다. 그 상징은 제주를 이해하고 제주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정신세계인 것이다. 비어 고든 차일드(Vere Gordon Childe, 1892~1957)의 말을 빌리면, 문화가 탄생하는 배경에는 먼저 식량에 대한 추구하고, 다음으로 제조할 수 있어야 하며, 세 번째는 그것의 교역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 사회에 사회적·종교적 제도가 만들어진다. 다시 말해 문화의 형성과정으로 이것들을 통합하는 것은 경제가 바탕이 되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마치 꽃이 피듯 그 땅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정신세계는 바로 이러한 터전 위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결국은

상징화되는 것이다. 정체성은 이 상징화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제주사람들의 상징이라고 하는 한라산은 제주사람들에게 생존으로 다가온 생산력 그 자체로서, 그것이 목축이라는 산업으로 이어졌다. 또 그것을 기반으로 한 농업과 어로의 삶을 이루게 하였고, 해양 교역으로 섬의 실질적인 생존력이 확보되었으며, 무속으로 고단하고 불안한 정신세계를 다스렸던 것이다. 한 사회를 이해할 때 매우 복잡한 정치적 관계까지 고려하게 되면 탐라국 시대 이후 한라산이 어떤 역사의 경로를 거쳤는지 알 수 있다. 결국 제주사람들에게 한라산은 생산지이기도 했지만 고려, 조선, 일제강점기까지 외세에 의한 수탈지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것과 함께 그 외세를 극복할 수 있는 근거지이자 항쟁지가 되었던 것이다.

현대에 와서는 한라산의 의미가 관광이라는 3차 산업에 힘입어 문화상징으로서 세계인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선조들이 물려준 아름다운 자연의 이미지인 영주십경의 중심에 한라산이 있는 것이다.

한라산의 회화적 의미

한라산은 자연이지만 회화적으로 말하면 하나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은 중세 때보다 현대에 와서 그림의 소재로 자주 다루어진다. 중세가 안고 있는 세계관과 물질적 생산성은 제주의 사상을 무속, 신선사상, 불교, 유교보다 아래로 놓고 순환적으로 지배했었으나 미술사적으로 볼 때 조선 시대에는 국가로부터 충분한 후원은커녕 오히려 성리학에 의해 무불(巫佛) 탄압이 자행되면서 옛 제주 회화들이 전해질 수 없었다. 그림보다는 신화, 설화, 전설들이 구비전승되었을 뿐이다. 특히 조선 시대에 이르러 한라산과 관련된 탕화나 산신도가 있을 법하지만 고찰(古刹)이 오래전에 훼손됨에 따라 그곳의 문화유적과 유물들이 거의 파괴되었고, 양반사대부 화가들의 문인화 취향이 지배하면서 북종화나 실경산수화를 배척함에 따라 한라산을 그린 회화가 부재하게 되었다. 겨우 실용적 지도화, 기록화에 보이는 단편

적인 한라산과 관방지도의 탐승(探勝)의 한 부분으로, 영주십경을 그리는 정도의 회화식 지도만이 전해올 뿐이고, 그것마저도 안타깝게도 타지역의 기관이나 본토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스럽게도 유교 제도권 아래 제작된 《탐라순력도》가 제주에 남아 있어 300여 년 전 조선 시대의 회화에 관한 정보와 여러 제도를 비롯한 제주의 물산과 풍광을 전해주고 있다.

그러나 현대에 들어와서 한라산이 남한 최고봉이라는 민족의 영산으로 불리면서 화가들의 관심도 높아져 여러 화가에 의해 한라산이 즐겨 그려졌다. 특히 제주 출신 화가들은 한라산을 마음의 고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다른 풍경보다는 한라산 풍경을 아주 각별하게 생각했다. 제주를 찾는 화가들 또한 한라산의 모습을 한 점이라도 화폭에 담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다. 한라산을 보는 화가들의 미학도 다양한데, 미적인 대상으로서 아름다운 한라산의 풍경을 보는 화가도 있지만, 한라산을 수호신적 의미로 보는 경우와 제주인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경우가 있다. 한라산의 표현 방법도 서양화, 한국화, 판화, 드로잉, 수채화 등 매우 다양하다.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

《탐라순력도》는 1703년에 그려졌는데 제주의 군사, 관방, 지리, 풍속 등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록화이다. 이 《탐라순력도》는 제주 목사(牧使) 겸 제주병마수군절제사(濟州水軍兵馬節制使)로 부임한 병와 이형상이 17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20일까지 22일 동안 제주도 전역을 순력한 뒤 화공 김남길을 시켜 그린 도첩(圖帖)이다. 《탐라순력도》는 제주도 지도 1면, 순력 장면 40면, 서문 2면 등 모두 43면으로 구성돼 있고 그림의 재료는 장지(壯紙)에 먹, 채색이고, 크기는 세로 55cm × 가로 35cm로 제주시 소장이나 국립제주박물관에 위탁 보관되어 있다. 이 그림은 18세기 초 제주 문화와 지방 군사 행정을 이해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서 보물 652-6호로

지정돼 있다.

《탐라순력도》는 3성 9진의 순력을 다니며 그린 기록화로서 “순력(巡歷)이란, 매번 봄과 가을에 절제사가 직접 방어의 실태와 군민의 풍속을 살피는 것(每番春秋節制使親審防禦形正及軍民風俗謂之巡歷)”이라고 이형상이 서문에서 밝히고 있다. 후에 어사 이증(李增), 제주 목사 이원진(李元進) 등이 정기적으로 관방을 위해 순력을 다녔는데 3성 9진 체계를 중심으로 군민(軍民)을 점검했다.

《탐라순력도》에는 한라산이 몇 장면 나오는 데 주로 평원법 시점의 배경으로 그려졌다. 섬 중앙에 솟은 한라산의 산세와 하천, 목장, 오름의 지형을 그리려면 어느 장소건 한라산을 통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탐라순력도》를 그린 김남길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화공도 장인에 속하는데 장인에는 경공장(京工匠)과 외공장(外工匠)이 있었다. 경공장은 서울에서 활동하는 장인이고 외공장은 지방의 장인이다. 《경국대전(經國大典)》의 외공장 가운데 제주목(濟州牧)을 살펴보면 제주목과 대정현·정의현으로 장인들이 구분되어 있다. 제주목은 8개 공장에 9명이 배치됐고, 대정·정의현에는 모두 5개 공장에 10명이 있었다. 그러나 화공과 관련된 화아장(畵兒匠)은 보이지 않는다.

19세기에는 매우 많은 장인이 있는데 특이한 것은 외공장에 나타나지 않는 장인들이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장인 중 화아장 2명이 배치된 것이 눈에 띈다. 이들이 군인인지 민간 화공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조선 시대 병영이나 수영 등 중요한 진관(鎭管)에는 관방지도를 그리거나 군사 용도로 쓸 그림을 그리는 화사(畵史) 군관이 배치돼 있었다. 아마도 화아장은 제주 병영의 그림을 도맡아 그렸던 제주의 지방 화공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지방은 딱히 왕실에 소속된 도화서(圖畵署)와 같이 화공을 양성할 제도가 정착되지 않아 전문 화공이 있을 리 만무하지만 그래도 그림 솜씨가 좋은 이들로 하여금 화공을 대리케 하였다. 한 예로 1841년 제주 목사 이원조의 부탁을 받고 옛 지도를 보완하여 새 탐라지도를 그렸던 고경옥(高敬旭)이라는 선비가 있었다. 고경옥은 그림 솜씨가 뛰어나서 이원조 목사로부터 부탁을 받고 채색지도

를 그려주자 칭찬을 받기도 하였다. 도화서 화원들이 궁궐의 세화(歲畵)·연회도(宴會圖)·영정(影幀)·단청 등을 담당한 것처럼, 지방 화공들도 그 규모나 그림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지방 관아에도 실용적으로 필요한 그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와 유사한 일을 했을 것이다.

《탐라순력도》의 회화적 가치

《탐라순력도》에는 몇 가지 중요한 회화적 가치가 들어있다. 풍속화적인 요소, 실경산수화적 요소, 계화(界畵)적인 요소가 그것이다.

첫째, 풍속화적인 요소를 살펴보면 300여 년 전 당시 제주 사회에서 행해졌던 다양한 습속과 제도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다. 테우리(牧者) 문화, 수렵도 모습, 감귤 포장하는 광경, 행렬에 있는 서민 여성, 경노 잔치 광경, 뱃놀이 모습, 물질하는 모습, 활쏘기 시합, 투시도법으로 그려진 동굴 광경, 신당과 절간의 파괴 모습, 과수원 안에서 벌이는 연회, 진상마 점검 등 눈으로 직접 보는 듯 파노라마를 연출하고 있다. 이 그림 때문에 복식(服食)·의장(儀仗)·지명·생활 습속·제도 등 기록에 의존하던 제주 풍속사를 올바르게 재현할 수 있게 됐다.

둘째, 실경산수적인 요소가 풍부하다. 기록화는 다큐멘터리식 그림이기 때문에 화공은 화면 배치에 보이는 풍경을 그리거나 생략하기도 한다. 한라산, 산방산, 단산이나 멀리 보이는 오름의 산세를 표현한 것은 상상에 의하기보다는 실제 현장 스케치에 의해 그려졌다고 볼 수 있다. 평원법(平原法)을 적용해 그려진 실경은 거리감 있게 보이기도 한다. 가령, 한라산을 그릴 때 중첩되는 봉우리의 모습과 계곡의 표현은 보다 사실적인 느낌을 강조하고자 하였고, 우거진 나무 표현의 입체적인 느낌, 바람에 휘날리는 대나무, 산의 사실적 양괴감은 화법을 암기하고 그리던 관념 산수의 단계를 벗어나, 조선 초기 광희풍의 흔적, 조선 후기 한국적인 사실주의 산수라고 부르는 진경산수의 도래를 예견하는 듯하다.

셋째, 계화란 궁궐, 읍성이나 누각 등의 건축물을 자로 대고 그리는 그림을 말한

다. 《탐라순력도》에 그려진 계화의 특징은 다시점(多視點)으로 그려졌는데 18세기 서양식 원근법이 한국에 도입되기 이전의 그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18세기 초라는 사실로 미루어 도화서 화원들이 단일 시점과 원근법을 적용하기 직전인 것이다.

이 밖에도 《탐라순력도》는 매우 복합적인 회화의 요소를 띠고 있다. 연회도(宴會圖), 반차도(班次圖) 등 의궤도(儀軌圖)의 구성 요소, 그리고 조선 중기까지 유행했던 계회도(契會圖)의 3단 구성법을 계승하고 있다는 점에서 18세기 초 조선의 지방 화공이 조선의 회화사적 맥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으며, 실용적인 기록화를 어떻게 이해했는지 알 수 있게 해준다.

<한라장축(漢拏壯囑)>

<한라장축>은 《탐라순력도》에서 첫 부분에 해당하는 지도로 조선 후기 삼읍을 소개하는 도입부에 해당한다. 중요 포인트인 제주목, 대정현, 정희현 등 3성에 해당하는 장소와 아홉 곳의 진성(鎭城)인 9진(鎭)은 붉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다. 하천, 포구, 목장 등 제주도의 생산력과 산업에 관련된 지리에 관한 지명의 정보를 담고 있으며, 섬 주위에 제주도와 관계 있는 육지의 중요 섬과 다른 나라가 표시되어 있다. 구성은 화면에 표제, 지도, 좌목 등 3단 구성으로 이루어 있다. 좌목에는 판관의 이름, 지리정보, 군사정보 등 장졸(將卒)의 인원, 무기 수효 등이 기록되어 있다. <한라장축>의 한라산은 오름을 거느리고 있으며, 발목(發墨)을 이용해서 지형들을 그린 푸른빛이



그림 3-1. 김남길, 《탐라순력도》
<한라장축>, 한지에 담채, 55x35cm,
장지에 먹, 채색, 1703년, 제주시 소장

도는데, 이는 다른 장면에서도 부분적으로 농묵을 쓰고 오름 지형에는 발묵으로 약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그림지도는 일명 회화식 지도라고도 하는데 조선 시대 관방도나 군현도 등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방식이다.

<건포배은(健浦拜恩)>



그림 3-2. <건포배은>

<건포배은>도 한라산을 먼 거리에서 바라보는 평원시(平遠視)로 사용한 지도이다. <건포배은>은 말 그대로 이형상이 재임 중 무·불(巫佛) 탄압을 실행하고 제주도 유생들이 건입포에 모여 그 은덕을 임금에게 돌리고는 칭송하며 배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좌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때 이형상에 의해 실행된 불교와 무격(巫覡)의 탄압은 당시 중앙정부의 군·현 지배체제를 위해서 유교원리주의를 강화시키려는 조선의 정책과 다름없었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모든 불상과 사찰 5곳, 신당 129곳을 파괴했으며, 무당 285명을 농민으로 만들었다.

<건포배은>에는 한라산과 오름이 먹으로 그려졌고, 11개의 지붕 있는 신당이 불타는 모습과 제주목성 앞에서, 임금의 성은에 보답하기 위하여 북쪽을 향해 머리를 조아린 유학들이 개미처럼 그려져 있다. 이 그림에 사용된 색채는 흑(墨), 황(黃), 자(紫)이고 인물은 주대종소(主大從小)로 그려져 목사, 판관 등은 크게 그려졌고, 장졸과 유생들은 작게 그려졌다.

<병담범주(屏潭泛舟)>, <호연금서(浩然琴書)>, <제주조점(濟州操點)>

<병담범주>, <호연금서>, <제주조점> 등은 <건포배은>과 마찬가지로 평원시로 그려져 한라산이 주제의 배경으로 처리되었다. <병담범주>, <호연금서>는 먼 거리에서 본 풍경으로, <제주조점>은 비교적 가까이에서 그려져 제주성에서 본 우람한 한라산을 표현하려고 고원법(高遠法)의 시점(視點)이 보이기도 하는데 제주목의 위엄을 드러내려는 의도로 가까이에서 올려다본 그림이다. <제주조점>의 한라산은 거리감을 나타내기 위해 발목을 점묘로 사용하여 준법 처리한 것이 특이하다. 수지법(樹枝法)도 흐리고 애매하게 사용하여 정통 화법을 익힌 화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다. 색채 또한 적·청·황(赤靑黃) 등 삼색을 주로 복식, 건물, 깃발 등에 사용하고 있다.



그림 3-3. <병담범주>



그림 3-4. <호연금서>



그림 3-5. <제주조점>

<산장구마(山場驅馬)>

<산장구마>는 말을 몰아 목장 안으로 넣은 후 점검하는 그림이다. 지방관은 정의현감이고 말몰이 군사를 동원하여 목마장의 상황을 점검하는 것을 그린 것이다. 한라산 백록담은 푸른색 기운이 돌고 있고 그 너머에 단풍이 든 숲이 보인다. 청록의 수림 사이에 목책으로 말을 유인하기 위한 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며, 군데군데 오름의 초원에는 벌써 가을이 물든 황색으로 그려졌다. 말몰이 군인들 사이에 사슴과 노루를 사냥하는 군인들이 보인다. 많은 수의 군인과 말떼우리들을 동원하여 감목관 김진혁의 책임하에 정의현감이 점검하고 있다. <산장구마>는 다른 그림들에 비해 한라산 중앙의 산속을 그린 것으로 백록담만 보이고 다른 곳은 목장 한가운데여서 오름도 평야로 보인다. 가을 초원을 표시하려고 황색과 청색을 섞어 목자임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다.



그림 3-6. <산장구마>

<제주목도성지도(濟州牧都城之圖)>

<제주목도성지도>는 12폭으로 구성되었는데 <제주목도성지도>라는 표제 아래 맨 첫 장에 제주목도성을 그리고 있다. 이 지도는 다른 지도들처럼 첫 장면에 제주도 전도를 그리지 않고, 제주목도성을 그린 것이 특이하다. 다음으로 <화북진>, <조천관>, <별방진>, <성산>, <서귀진>, <백록담>, <영곡>, <천제담>, <산방>, <명월진>, <취병담> 등 11폭의 진성과 경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지도는 관방지도와 특별한 곳의 경관지도를 합친 군현지도의 맥락으로 볼 수 있다. 9진의 진성 중 모슬진과 차귀진, 애월진, 수산진이 빠지고 대신 명소를 그린 것으로 보아 이익태와 이형상의 지도들을 절충하면서 형성된 영주십경의 한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이 지도가 다른 것은 ‘영주십일경’의 등장이며, 기존의 영주십경에는 없었던 화북진이 새로 포함되었다. 화폭의 구성 방식은 2단 구성으로 좌목을 상단에 쓰고, 그림



그림 3-7. <제주목도성지도> 서귀진 부분의 한라산 (조선 후기, 가나문화센터 소장)

을 하단에 배치하고 있다. 여기에 그려진 한라산은 <서귀진>에 그려진 그림이다. 마치 실경을 보지 않고 그린 듯 뽀족하게 우뚝 솟은 두 개의 한라산 머리 사이로 백록담이라는 글씨를 썼다. 그 능선으로는 줄지어 선 오백장군의 석상(石像)들이 사람 형상으로 그려졌는데, 백록담 중턱으로 햇살같이 붉은 원으로 그려진 주홍굴(朱紅窟)이 그려져 있다. 그 옆으로 일곱 개의 돌무더기는 칠성대라 표시했다. 숲을 지나 내려오면 쌍계암(雙溪庵)이라는 두 개의 바위는 일명 각시바위(角氏岩)라고 쓰여 있다. 주변에는 숲이 그려진 사이에 말 목장인 구소장(九所場)이 있으며, 서쪽 고근산(孤近山)에서 동쪽 첩오름(葛岳)까지 점선으로 잣성이 표시되어 있어 한라산이 목장이었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종이에 채색으로 그려졌으며, 붉은색이 원으로 그려졌다. 좌목에 이익태의 탐라십경의 글이 보이니 이익태의 영향을 받은 지도로 추정된다.

윤제홍의 <한라산도(漢拏山圖)>

윤제홍(尹濟弘, 1764~1840)의 자는 경도(景道), 호는 학산(鶴山), 찬하(餐霞), 파평인이다. 영조 때 문과에 급제하고 벼슬은 청풍부사, 승지에 이르렀다. 윤제홍은 1825년 제주에 경차관으로 왔는데 어떤 사건 때문에 제주에 왔는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그가 경차관 때 도과시관(道科試官)을 겸하면서 거두었던 시권(試券)이 표류 중에도 온전하였다. 이에 왕은 윤제홍을 만난 다음 날인 1825년 12월 15일 홍희준을 홍문관 제학으로 삼아 제주 유생들의 과차(科次, 합격자)를 명했고, 그 결과 제주 유생 김유와 박경신을 전시(殿試)에 직부(直赴)하도록 했다.

윤제홍이 경차관으로 오기 두 해 전인 1823년에 제주 위유어사(慰諭御使) 조정화(趙庭和)의 별단(別單)에는 “우도 목장을 백성들이 개간하도록 허가하시고, 도민 남녀는 내지(內地, 육지)에 왕래하면서 혼취(婚娶, 혼인)하는 것을 허락.” 하라는 내용, 그리고 1824년 3월 “장흥·영광·제주에 표도한 중국인 50명을 육로를 따라 호송하라.”는 내용 등은 윤제홍이 경차관으로 왔던 제주의 전후 사정을 이해하는 데 다소도

움이 된다.

윤제홍이 한라산에 오른 것은 제주 경차관으로 왔던 1825년 9월이었으며 한라산 정상에 오르니 운무 때문에 캄캄해 지적을 분간할 수가 없었다고 적고 있다. 그가 그린 <한라산도>는 81세 때인 1844년에 옛 기억을 더듬어 한라산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이 <한라산도>는 지두화로 그려졌다. 지두화란 ‘붓을 사용하지 않고 손가락, 손톱, 손바닥으로 그리는 그림’을 말한다. 동양의 전통 모필화법(毛筆畵法)과는 다른 매우 독창적인 미감을 표출하는 과격적인 화법이다.



그림 3-8. 윤제홍, <한라산도> (종이에 먹, 지두화)

<한라산도>는 한라산 정상을 그린 그림이다. 화면 상단과 하단에는 화제가 빼곡하게 적혀있다. 화면 위쪽 부분에 아홉 봉우리가 거친 터치로 그려졌고, 그 바위 앞에는 두 명의 선비와 두 명의 노비가 있는데 한 선비가 돌벽에다 그림을 그리고 있다. 오른쪽 큰 돌벽에는 ‘옛 이름은 구봉암(九峰岩), 고친 이름은 구화암(九華岩)’이라고 적혀 있다. 오른쪽 구석의 작은 바위에는 ‘조씨 기명(趙氏起名)’이라고 해 1777년 제주에 유배 왔던 ‘조정철(趙貞喆, 1751~1831)의 마애명’을 표시해 놓았다.

화면 중앙에는 백록담(白鹿潭)이라는 제명(題名)이 있고 모자를 쓰고 사슴을 탄 신선과 작은 사슴이 그려져 있다. 사슴은 백록담의 물을 마시고 있고 화면 좌우에는 ‘월관봉(月觀峰), 일관봉(日觀峰)’이라고 적어놓아 달과 해의 보는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였다.

이 <한라산도>는 아홉 봉우리를 중심축으로 하여 S자 구도를 취하고 있다. 백록담 가운데는 아담하게 부풀어 오른 작은 언덕과 그곳에 자라는 잡목을 그려 화면

의 이음새 역할을 하고 있다. 화면 아래쪽에는 물을 그려 넣고 돌무더기로 백록담의 경계를 구분했다. 전체적으로 <한라산도>는 윤제홍 자신의 등반 경험과 한라산 전설을 상징적으로 묘사하면서 실제 한라산의 경치를 그렸다는 점에서 문인화이지만 실경산수라는 점이 주목된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瀛州十景圖)>

춘원 정재민에 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정재민은 1922년부터 1944년까지 23회 기간 동안 열렸던 조선미술전람회에 입선했다는 기록이 있고, 이 <영주십경도> 병풍과 <송학도> 등 몇 점의 작품이 전해온다. 태생이 어느 곳이며 생몰 연대가 언제인지 알 길이 없다. 하지만 그의 그림이 제주에 남아 있다는 것은 어느 시기인지 모르지만 제주에서 작품 활동을 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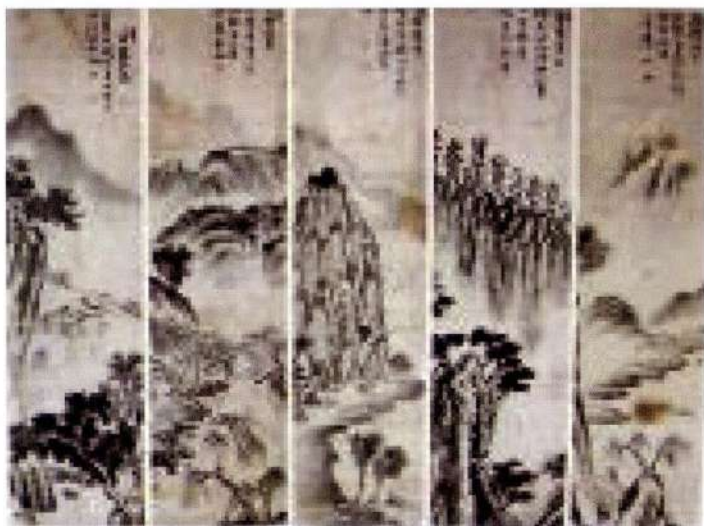


그림 3-9. 정재민, 영주십경10곡병 5폭(115x28.5cm, 한지에 수묵, 20세기 중반, 제주대학교 소장)

춘원이 그린 <영주십경도>는 제주대학교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영주십경도>는 이한진, 김양수, 김희정, 이용식 등 문인들이 즐겨 운(韻)을 떤던, 당시의 제주의 빼어난 경치를 두루 살펴볼 수 있다. <영주십경도>는 실경을 근거로 해서 그렸다는 점에서 흥미롭다. 비록 과장되게 그려지긴 했지만 경치마다 그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실경산수화는 조선 후기에 크게 유행하였다. 실경산수화란 ‘실제 아름다운 경치를 그린 그림’으로 진경산수화(眞景山水畵)라고도 한다. 겸재 정선이 이 화풍의 형성과 발전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는 성산일출·사봉낙조·고수목마·산포조어·굴림추색·영구춘화·녹담만설·영실기암·정방폭포·산방굴사 등이 담겨 있다. 이익태 목사가 지정했던 조천관·별방소·성산·서귀포·백록담·영곡·천지연·산방·명월소·취병담 등의 십경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춘원 정재민이 그린 <영주십경도>에는 조천관·별방소·천지연·명월소·취병담이 보이지 않으며, 성산을 성산일출, 서귀포를 정방폭포, 백



그림 3-10. 정재민, 영주십경10곡병 5폭 (115x28.5cm, 한지에 수묵, 20세기 중반, 제주대학교 소장)

록담을 녹담만설, 영곡을 영실기암, 산방을 산방굴사로 재구성해 특정 장소를 부각시키고 있다.

정재민의 <영주십경도>에서 '성산일출'은 일출봉 위로 해가 떠오르고 한가로운 돛단배가 아침 일찍 조업을 나간다. 바위에 앉아 해를 가리키는 사람, 물가에 지어진 집 안에도 아침을 맞는 사람들이 있다. 제주 본섬과 끊길 듯 가늘게 이어진 길이 인상적이다. '사봉낙조'는 사라봉에서 지는 해를 바라보는 풍경이다. 제주성 서북쪽 50리에 있는 작은 화탈섬과 북쪽 100리 지점에 있는 큰 화탈섬 뒤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두 선비가 대화를 주고받고 있다. 저너 바다에는 종종히 모여 귀로하는 고깃배가 길을 재촉한다. '고수목마'는 제주의 말 문화를 생각나게 한다. 패랭이를 쓰고 무심히 앉아 무료한 듯 하늘을 쳐다보는 목자의 두 눈이 초롱초롱하다. 다섯 마리 말들은 웅기종기 모여 목자의 마음을 헤아리기라도 하듯 그 곁을 떠날 줄 모르고 서 있다. '산포조어'는 산지천에서 고기를 낚는 모습을 그렸다. 나룻배 뒤로 홍교(虹橋)인 산짓내다리(山底橋)가 보이고 늘어진 버드나무가 바람도 없는 고요한 봄의 정경을 연출하고 있다. '굴림추색'은 제주 가을의 대명사이다. 집 사이 굴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풍경이 가을의 풍요로움을 더해준다. '영구춘화'는 들렁귀(登瀛邱)의 꽃피는 봄을 그린 풍경이다. 큰 바위가 굴처럼 뚫려있어 4~50명은 거뜬히 앉을 수 있다. '녹담만설'은 한라산에 눈이 쌓인 정취를 그렸다. 백록담의 눈은 5월까지도 녹지 않아 잔설이 남아 있을 정도다. '영실기암'은 한라산 서남쪽의 가파른 낭떠러지 위 기괴하게 생긴 바위를 그렸다. 이 바위를 오백장군, 또는 돌 나한(羅漢)이라고도 한다. '정방폭포'는 한라산에서 발원해 바다로 떨어지는 폭포다. 떨어지는 물소리가 우레와 같고, 차갑게 뿜어 나오는 물보라에 무지개가 비친다. 우렁찬 폭포 소리도 잊은 채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는 어부는 별천지에 있는 듯하다. '산방굴사'는 산방산 중앙의 동굴을 그렸다. 산 정상에는 동백나무를 그렸다. 동굴의 옛 절은 황폐해 인적이 끊긴 듯하다. 산 아래에 작은 초가집이 몇 채 있고 멀리 두 척의 돛단배가 꿈결인 양 아득하다.

한라산을 소재로 그린 그림은 <녹담만설>과 <영실기암>이다. <녹담만설>은 한라산 정상을 연한 먹을 우점준(雨點皴)으로 찍으며 산세를 표현하고 있고, 화면 하단에 버드나무 사이로 낚싯대를 들고 가는 사람을 그려 마치 강촌의 풍경처럼 그 배경으로 한라산을 그렸다. <영실기암> 또한 오백장군 부분에서는 겹재풍의 바위 선묘 표현이 보이고 진한 수묵의 나무로 계곡을 그렸다.



그림 3-11. 정재민, 영주십경 중 <녹담만설>



그림 3-12. 정재민, 영주십경 중 <영실기암>

2. 현대의 한라산 그림

박생광의 <녹담만설>

박생광(1904~1985)은 경상남도 진주시에서 2남 1녀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1914년 진주보통학교, 1917년 진주농업학교에 입학하였고, 농업학교 일본인 교사의 소개로 일본 교토에 건너가 미술학원에 입학하여 3년간 수학하였다. 1923년 교토시립회화전문학교(현, 교토예대)에 진학하여 당시 근대 교토파의 선구자였던 스승들에게 새로운 유형의 일본화를 배웠다. 이후 일본에서 활동하다 해방과 함께 귀국하여 1957년 백양회 창립회원이 되었다. 1983년 대작 <혜초스님>, <명성황후>, <청담(靑潭)스님> 등을 그려 화단의 관심을 끌었다. 1984년 7월 후두암 판정을 받았고, 이 해에 프랑스 르.살롱전 초대 작가로 선정되었다. <전봉준>, <역사의 줄기> 등을 프랑스 그랑팔레전에 출품키 위해 제작했다. 1985년 마지막 작품인 <피리 부는 노인>을 남기고 82세를 일기로 타계했다. 제주도 무신도를 자신의 색채화에 중요한 모티브로 삼았으며 한라산 관련 작품을 남겼다.

박생광이 언제 제주도에 왔다 갔는지는 정확하지가 않다. 다만 1954년에 그린 <녹담만설>이라는 작품이 전해오고 있다. 이 작품은 한라산 백록담 정상에 눈이 쌓이고 주변 오름과 나무에도 눈이 내려 온 세상이 하얗게 된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산 위로 겨울 철새가 떼 지어 날고 하늘은 잔뜩 흐려 있어 금방이라도 흰 눈을 쏟아낼 것 같은 스산한 분위기이다. 종이에 수묵 담채로 그려진 이 작품은 실경산수임에도 여전히 일본 화풍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그 밖의 박생광이 한라산을 그린 작품으로는 1967년에 그린 <탐라풍경>이 있다. 이 작품은 종이에 수묵 담채로 그렸는데 한라산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한라산은 뭉게구름 위에 올라 있어 평평한 반석과도 같고 각지게 이어지는 오름



그림 3-13. 박생광, <녹담만설> (종이에 수묵, 20세기 중후반)

의 연속적 배치는 한라산의 위용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인다. 또 한라산 머리 위로 해가 뜨는 모습을 그려 민족의 영산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 작품 역시 일본화의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70년에 그려진 <탐라산경>은 영주십경을 그린 작품이다. 도록에는 <성산일출>, <영구춘화>, <산방굴사>, <녹담만설>이 실려 있다. 이 작품들 또한 실경산수가 아니라 관념 산수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데 박생광이 영주십경의 시를 읽었거나 그것에 대해 들었던 내용을 상상해서 그린 그림으로 추정된다. 짙은 먹을 주조로 하여 그려낸 이 작품은 오래 놀렸던 일본 화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들이 보인다.

양창보의 <설경>

한라산을 관념 산수로 그렸던 대표적인 제주 출신 화가는 양창보(梁昌普, 1937~2007)이다. 호는 호암(湖巖), 서울대학교 회화과를 졸업하였고, 제주대학교 인문대학 미술학과 교수를 역임하였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회장과 한국예총 제주도지회장 등을 역임. 제주도미술대전 심사위원과 제주도문화재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등을 두루 거쳤다. 그의 일생에서 개인전 22회의 경력으로 볼 때 작가로서의 역량을 알 수 있다.

1973년 제주대학 미술교육과 설립에 참여하여 제주도 미술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한국화의 불모지였던 제주도 화단에 한국화의 길을 개척한 공로가 있고, 제주도 미술교사들을 배출하여 제주미술교육에 이바지하였다.

한국예총지회장 재임 시, 서귀포시 대정읍의 추사 적거지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추사관을 건립하는 데 앞장서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대의 도인(道人)을 꿈꾸었던 호암은 2007년 향년 70세에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2008년 5월 25일, 1주기를 맞아 양창보 유작전이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에서 열렸다.

양창보는 누구보다도 한라산을 즐겨 그린 화가이다. 그가 그린 <한라산>이라는 이름으로 제명을 삼은 작품만도 3점이고, 한라산을 그리되 제목이 다른 <한라산 잔설>, <한라산 설경>, <영주십경>도 있다. 한라산의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백록담을 소재로 한 작품인 <녹담오월>, <백록담>, <녹담만설> 등이 있으며, 한라산 자락을 그린 <정방하폭>, <일출봉 해안> 등이 있다. 또 <오백장군>, <소나기>, <심산 추경>, <삼의악>, <정방하폭>, <천지연>, <영실기암>, <한라일우>, <계산무진>, <한라추색>, <춘>, <추> 등은 한라산의 깊은 계곡의 산맥과 계곡을 그린 작품들로 한라산의 내부를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라산의 심산유곡에는 숨겨진 비경이 많다. 중산간 아래로부터 해안에 이르면 일상의 풍경이 되지만, 양창보는 먼저 한라산의 심장을 이해하려는 듯 아흔아홉골,

영실기암 등을 그림으로써 한라산의 전모를 알고자 하였다.

양창보는 원래 실경산수에서 출발하였다. 그러나 실경이 주는 그림의 의미가 자신이 추구하는 정신세계를 담아내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현실을 있는 그대로 그리는데보다 자신의 마음을 담아보려고 사의(寫意)를 중시여기는 길을 선택하였다. 충실한 데생이 주는 백묘법의 정교한 선묘보다는 즉흥적인 먹의 번짐의 무작위성을 정신의 극치로 여긴 미학으로의 경도(傾倒)라고 할까. 만년의 양창보는 문인화의 호방함으로 한라산을 구심점으로 삼아 제주를 잃어내기 시작하였다.

양창보에게 있어서 정신적인 지주이자 그의 마음속에 웅장하게, 혹은 굳세게 버티고 선 한라산이야말로 작은 섬이라는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남한 제일봉의 영적인 존재였다.



그림 3-14. 양창보, <설경> (한지에 수묵담채)

강용택의 <한라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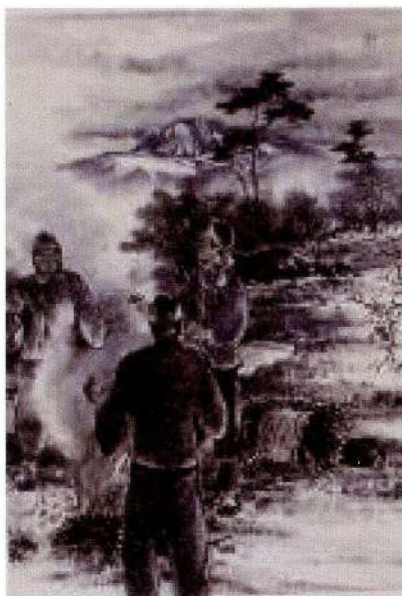


그림 3-15. 강용택, <꽃자월의 밀담>
(한지에 수묵담채, 30호 변형, 1992)

강용택의 호는 녹전(祿田), 1931년 제주 안덕에서 출생하였다. 1950년 국립체신 학교 졸업, 제주 전신전화국무선통신사, 제주어업무선국장을 역임하였다. 1969년 서양화에서 동양화로 전환, 한국화 개인 전 3회, 2009년 제주특별자치도예술인 상 수상, 한국미술협회, 제주한국화협회 회원이다.

강용택은 해방공간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술을 전공하지는 못했으나 그림의 꿈을 버리지 않고 독학으로 꾸준히 작업하였다. 처음 서양화를 그리다가 한국화로 전환하여 본격적인 독학 화가의 길을 걸었다. 물론 생업은 무선통신사였지만 특이하게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작품 <꽃자월의 밀담>도 한라산 아래 꽃자왈 현장을 그린 그림이다. 꽃자왈은 제주사람에게 매우 요긴한 장소이다. 사람들에게 꽃자왈은 열매, 땀감, 사냥터이기도 하다. <꽃자월의 밀담>은 초겨울 꽃자왈에서 땀감을 하다가 손이 시려 불을 피우고 몸을 녹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세 명의 남성이 언 손을 녹이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멀리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인다. 꽃자왈은 마을의 보고로서 특히 땀감의 산지가 된다. 요즘은 이상한 일이겠지만 1980년 이전까지만 해도 겨울을 나기 위해 종종 땀감을 마련하였다. 강용택은 바로 그 시기를 기억하며 그린 것이다.

이와 같은 구도의 그림 중에 <농원>이라는 작품이 있다. 멀리 흰 눈 쌓인 한라산이 보이고, 초가 앞 과수원에서 두 여인이 꿀을 따고 한 남자는 상자에 담긴 꿀을 운반하는 것이다. 강용택은 겨울 한라산을 여러 장 그렸다. 그만큼 눈 덮인 한라산이 그에게는 매우 인상적인 풍경이었다. 한라산은 섬 중앙에 있어서 제주도 어디를 가나 보이기 때문에 <한라설경>, <모록발 추경> 등과 같이 그림의 배경에 자주 등장한다.

부현일의 <한라산, 서귀포에서>

부현일의 호는 남도(南島), 1938년 제주도 제주시 구좌읍 출신으로 1964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를 졸업하였다. 제주대 미술교육과 교수, 제주도립미술관장, 한국미협 제주도지회장을 역임하였다. 2009년을 중심으로 개인전 9회, 한국미협, 제주한국화협회, 정연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청



그림 3-16. 부현일, <한라산, 서귀포에서>
(한지에 수묵담채, 30호, 2007)

록 산수를 바탕으로 실경을 그리지만 남종문인화, 사군자에도 능하다. 주로 제주의 소소한 일상의 풍경을 화폭에 담고 있으며, 수묵에 청색을 즐겨 쓰고 화풍은 검박하고 서정적이다.

부현일의 한라산은 고요한 자연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른다. 언제나 그 자리에서 모든 기후 조건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인내의 산으로 상징된다. 그의 한라산은 서두르지 않고, 중심을 잃지 않으며, 세월이 가도 큰 변화가 없는 듯이 안정되게 서 있는 자태이다. 화가의 성격이 차분하고 조용한 탓에 한라산마저도 그리 비치고 있

다. 한라산은 여름 장마철 같은 느낌인데 금방 신록 위로 비가 지나간 듯 활력이 있어 보인다. 구름 또한 희고 두텁게 산마루에 걸려 장마가 끝나면 더욱 열기가 찾아올 여름을 준비하는 듯 물기를 머금은 형상이다.

김인지의 <한라산>

김인지(金仁志, 1907~1967)는 서귀포시 예래동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부터 그림을 좋아했던 김인지는 일본인 화가와 교류하였고, 1934년 일본 동경으로 건너가 '동광회도화강습회'에서 1개월간 수채화를 배웠다. 김인지는 조선미술전람회전에 입선하여 제주도 출신으로 유일하게 서양화 부문에 입선함으로써 '제주도 최초의 서양화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 1948년 2월 제주북공립국민학교에서 제주의 풍물을 그린 30점으로 양화 개인전을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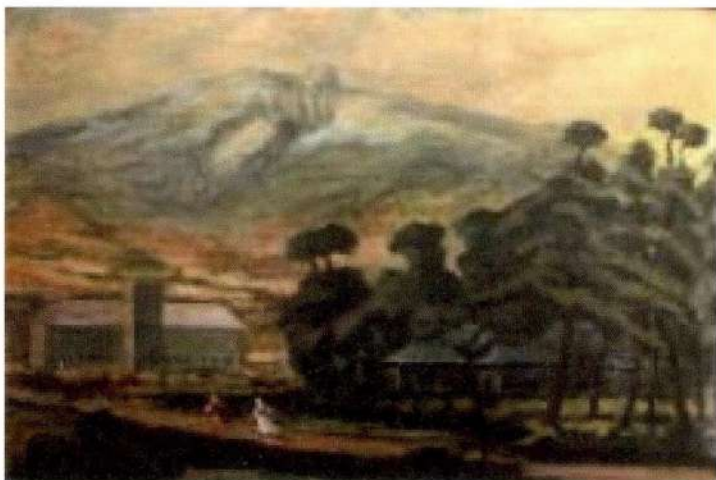


그림 3-17. 김인지, <한라산> (유채, 60호, 1953)

김인지가 그린 한라산은 제주시에서 본 풍경이다. 제주시에서 보는 한라산은 장대한 느낌이 들고 북쪽을 향하고 있어서 동·서·남쪽에서 보는 한라산보다 남성적인 느낌이 훨씬 강하다. 동쪽에서 보는 한라산은 숨어드는 느낌이고, 서쪽에서 보는 한라산은 막 나오는 듯한 자태이다. 남쪽 서귀포에서 보는 한라산은 매우 안정적인 모습으로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한라산임을 알 수 있다.

김인지의 <한라산>은 삼성혈에서 본 풍경으로 마치 기록화처럼 삼성혈 옆길을 따라 걸어가는 구덕 진 두 여인이 보인다. 삼성혈 울창한 숲 너머 옛 제주도청사가 보이고 다시 그 너머 삼의양악 위로 장대한 한라산이 솟아있다. 김인지는 초록색과 황토색을 많이 쓴다. 작품 스타일이 서양 고전주의 변형인 일본식 고전주의인 송진파의 영향을 받았다. 송진파란 일본에서 네덜란드를 통하여 서양화가 들어온 이후 고전주의 계열의 화파를 말하는 것으로 주로 무채색을 중심으로 어둡고 무거운 그림을 그리는 데 황토색을 많이 쓰며, 두껍게 물감을 칠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에서는 초기 서양화단을 구성한 주류 화파로서 송진파가 있었고, 후에 그것에 대응되는 화파로서 구로다 세이키식의 인상파가 있었다. 구로다 세이키가 도입한 맑고 경쾌한 그림을 그리는 프랑스 인상파의 영향으로 생겨난 일본식 인상파가 바로 보라파였다. 보라파란 그늘지고 어두운 부분을 탁한 검은색 또는 고동색이나 황토색으로 처리하는 대신, 보라색으로 처리하는 화가 그룹을 지칭하는 것으로, 송진파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본 화단에 도입된 일본식 인상파를 총칭하는 말이다.

양인옥의 <한라산의 봄>

양인옥(1926~1999)은 제주 출신 서양화가이다. 제주에서 태어나 전라남도 화단에 이름을 떨친 그는 1926년 8월 24일 제주시 다호동에서 태어났다. 현재 다호동은 도두동에 속한 마을로 제주공항 남쪽에 위치한다. 그곳에서는 한라산이 언제나 날개를 펼친 듯 장대하게 보인다. 후일 한라산 설경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유년 시절 머



그림 3-18. 양인옥, 〈한라산의 봄〉 (유채, 100호, 1980년)

리가 하얗게 덮인 한라산을 보았던 기억 때문이다. 양인옥은 종이가 귀했던 유년 시절 서당에 다니며 종이 대신 서판(書板)에 글씨와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하였다.

1938년 보통학교를 마치고 13세 때 부친을 따라 일본으로 도향하였다. 후에 오사카미술학교 서양화부에 진학했는데 당시 오사카미술학교에는 강진 출신 굴원(橘園) 윤재우와 제주 출신 변시지가 재학하고 있었다. 이 둘은 후에 한국화단에서 이름을 날렸다. 양인옥은 빛의 변화에 주목하였다. 오사카미술학교 시절 렘브란트를 좋아했던 것이 그 이유이다. 그가 작품에 구사하는 강렬한 빛 처리는 바로 렘브란트의 영향이라고 할 수 있다. 오사카미술학교 입학 시 일본은 태평양 전쟁 말기로 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었고 2학년 때 연합군에 일본이 무조건 항복함으로써 해방을 맞았다.

다시 해방 2년 뒤인 1947년 5월, 오사카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전쟁의 후유증으로 피폐해진 일본에서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판단, 전후 혼란을 피해 급기야 바다 빛이 검푸른 고향 제주로 돌아왔다. 후에 그는 전남지역에서 활발한 작품 활동을 벌

였다. 현재 목포화단의 증견화가 그룹인 '삼목회'의 초대회장이면서, 목포미술협회의 고문으로 20여 년간 활동하면서 많은 후배를 지도했다. 여러 차례 교직을 옮기면서 광주 제일고 교사, 목포교육대학, 호남대 학장 및 총장을 역임하였다.

1963년 목우회 공모전 최고상 및 국전 입선 12회, 국전 14회 국무총리상, 국전 15회 문교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국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양인옥은 가난한 화가로 시작하여 대학교 총장이 된 인물인데 제주 출신으로 호남화단은 물론, 한국화단에 이름을 남겼다. 1999년 제7회 '오지호 미술상' 수상은 그가 평생 구상회화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한 성과라 할 수 있다. 1999년 6월 향년 74세의 나이로 화가이자 교육자였던 인생을 마감하였다.

양인옥은 1980년에 한라산 설경을 스케치하여 이듬해 제주에서 그 작품들을 선보였다. 1981년 2월 28일부터 3월 6일까지 남양미술회관 초대전으로 열린 '양인옥 서양화전'은 양인옥의 작품세계를 단편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이때의 전시작품들은 제주 풍경이 주류를 이루었다. 제주의 풍경 작품은 고향의 정취를 그리워하는 듯 향토적인 서정주의가 묻어난다. 오후의 햇살을 받으며 평화롭게 모이를 찾는 닭의 무리, 정낭이 내려진 올레, 눈에 덮인 채 의연한 한라산, 인적이 없는 마을의 초가 등의 풍경들이 고요한 느낌을 준다.

양인옥이 1970년대 그린 <한라산>은 광양에서 본 한라산인데 청색과 녹색이 주조색인 것으로 보아 시기적으로 여름이 다가오는 5~6월에 그린 것 같다. 1980년 작 <한라산>은 소품인데 흰 눈이 쌓인 겨울 산을 그린 작품이다. 한라산 기슭은 갈색의 풀밭에 군데군데 눈이 쌓여있고 상산은 온통 하얀 세계가 돼 그 몸체를 드러내고 있다. 아마도 그린 지점이 어승생 자락쯤 되는 것 같고 산세가 매우 둔중한 느낌을 받는다. 겨울바람은 불지 않은 듯 산야가 고요하다. 1980년 작 <한라산의 봄> 역시도 대작으로 한라산 윗세오름 부근에서 본 풍경이다. 겨울이 물러간 5월의 백록담 봉우리가 밝은 표정으로 세상에 나왔다. 한라산을 상징하는 고사목은 철쭉 피는 능선에 조형물처럼 서 있다. 하늘은 푸르러 흰 구름이 떠가고 부드러운 기운이 천지에 가득하

니 색채의 화사한 느낌에서 온화한 봄의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다. 신비감이 드는 이 한라산 그림에서는 마치 관광 온 것 같은 화가의 시선을 느끼게 한다.

송영옥의 <제주도 한라산 풍경>

송영옥(宋英玉, 1917~1999)은 1917년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서 태어났다. 1929년 13살 때 다른 형제들과 함께 측량기사였던 아버지를 따라 일본으로 건너갔다. 송영옥은 도일 후 일본 유리 공장을 다니며 동물상 등 여러 가지 유리 조형품을 만들었다. 당시 유리공예품으로 적지 않은 수입을 올릴 수 있었다. 야간 상업학교를 다닐 때 초상화 그리는 법을 배워 생활비를 충당하였다. 야간 상업학교를 마치고 24세 때인 1941년에 오사카미술학교에 입학하여 1946년 본과, 전공 과정을 마치고 졸업하였다. 전시체제에서는 전사자(戰死者)의 초상화를 주문받아 그렸다. 이런 경험으로 관서(關西)지역 초상화 연맹의 회장이 되었고, 제9회 신동아미술전에 일본 해군 대장의 초상화를 그려 출품하였다.



그림 3-19. 송영옥, <제주도 한라산 풍경> (종이에 펜과 크레파스, 1983)

송영옥의 일본식 이름은 미야모토 히데요시(宮本英義). 이 이름을 해방 전까지 사용하다가 해방과 더불어 본명을 찾아 일본에서 작품 활동을 하였다. 송영옥은 젊은 시절을 오사카에서 보내다가 1950년대 후반 도쿄로 거주지를 옮겨 작품 활동을 하였다. 그는 1943년~1950년 오사카시미술전 가작상, 간사이 종합미술전 다나상, 시장상을 수상하였다. 유리공예 작품이 미국의 《라이프지》에 소개되었다.

송영옥이 고향 제주를 처음 찾은 것은 1982년. 재일동포추석성묘단의 일원으로 고국을 방문할 수 있었다. 그 후 한국과 일본을 오갈 수 있었는데 1990년 성산일출봉을 그린 <조광(朝光)>이라는 10호짜리 유화작품을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 박물관에 기증하였다. 1999년 4월 9일 한밤 오전 2시 송영옥은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하였다.

송영옥의 <제주도 한라산 풍경>은 수채화 작품인데 일본에서 그리워했던 고향의 산이다. 이 한라산 풍경은 제주를 찾았던 감회가 같이 녹아든 그림이자 현장에서 빠르게 그려진 수채화 작품이다. 한라산을 선묘 위주로 하여 사실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즉흥적 감정의 격정이 느껴진다. 55년 만에 찾아온 고향, 꿈에 그리던 한라산을 보는 작가의 감회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 같다. 그것은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감격 그 자체일 것이다. 생각하면 일본은 제주와 가까워 쉽게 오갈 수 있는 거리이고, 제주사람들이 육지보다 더 쉽게 갈 수 있는 땅임에도 분단이 가로막고 있었다. 55년 인생 대개의 시간을 디아스포라의 삶으로 살았던 송영옥의 한라산은 어쩌면 꼭 찾아야 될 하나의 이상향이었는지 모른다. 그래서 그가 그린 한라산은 마치 꿈속에 비친 잔영처럼 어른거리는 선묘로 나타났다.

변시지의 <폭풍>

변시지는 1926년 5월 29일 서귀포시 서홍동에서 5남 4녀 중 4남으로 태어났다. 변시지는 6세 되던 해인 1931년, 아버지를 따라 일본 오사카로 떠났다. 1932년, 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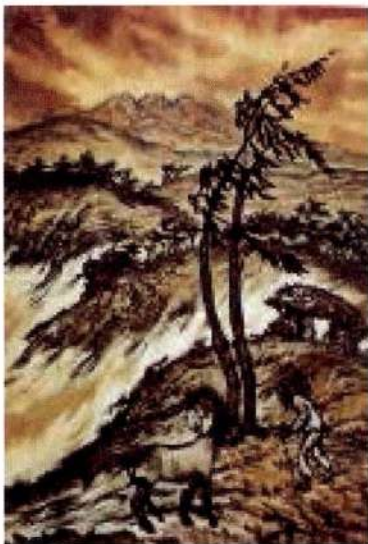


그림 3-20. 변시지, <폭풍> (100호, 유채, 1983)

사카(大阪) 하나조에진조고등소학교(花園尋常高等小學校)에 입학하였다. 변시지는 소학교(초등학교) 2학년 때 씨름을 하다가 다리를 다쳤다. 3학년 때 아동미술전에서 오사카시 장상을 수상하였다. 변시지는 수상을 계기로 그림 그리기에 한껏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오사카 미술학교를 1945년 졸업하는 해에 도쿄의 아테네 프랑세즈 불어과에 입학하였다. 새로운 스승을 만났다. 일본 현대 서양화의 대가 데라우치 만지로(寺内萬治郎, 1890~1964)였다.

데라우치 만지로의 문하에서 그림을 배운 지 2년이 되던 해인 1947년 그는 처음으로 광풍회전에 응모하여 입선하였다. 그때 출품작은 <겨울나무> A, B였다. 심사위원들은 큰 상을 줄 만큼 높이 평가했으나 무명 화가 변시지에게 입선을 주는 것으로 그쳤다. 《광풍회사(光風會史)》에 의하면, 변시지는 이듬해(1948년) 광풍회 제34회전에서 광풍상(光風賞)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베레모의 여인>, <만돌린을 가진 여자>, <조춘(早春)>, <가을 풍경> 등 모두 4점이었다. 이 공모전에서 변시지는 23세라는 최연소 나이로 '광풍상'을 수상하면서 일본 전역에 그 이름이 알려지게 되었다.

변시지는 1950년 작품 <오후>로 일전(日展)에 입선, 1951년 7월 제2회 작품전을 긴자의 시세이도 화랑에서 개최했다. 1953년 3월 제3회 개인전은 오사카 판큐(阪急) 백화점 화랑에서 개최하는 등 왕성한 활동을 벌이다 가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1957년 귀국하였다. 1975년 서울 생활을 접고 다시 제주로 귀향하였다.

변시지의 폭풍은 변시지 화풍의 백미이다. 이 작품은 1983년 작으로 폭풍의 분위기를 잘 말해주는데 황토색과 검은 선 갈필이 주는 어둡고 무거운 색조는 음산하게

보임으로써 더욱 제주다운 바람의 땅을 표현하고 있다. 거센 바람에 요동치는 파도가 육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나무는 금방 부러질 것 같이 활처럼 휘었다. 초가는 날아갈 것만 같고 말은 불안한 듯 고개를 돌리고는 파도를 바라보고 있다. 자화상으로 등장하는 화가 자신은 구부정하게 폭풍이야 늘 있는 것인 듯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배경으로 멀리 한라산이 폭풍을 견뎌내고 있다. 파편처럼 날리는 바람의 리듬은 마치 소리를 내는 것같이 사방 천지를 뒤흔들고 있다. 천지가 진동하고 바다가 울음을 그치지 않는 혼돈의 시간인 것이다.

역시 한라산은 굳건히 자기 자리에 있고, 폭풍이야 시간이 가면 다시 잠잠해지겠지만 작가의 감성은 그대로 화면에 남아 보는 사람을 불안하게 한다. 예술의 생명이 잠든 우리의 감각을 일깨워주는 것이다.

김택화의 <한라산>

김택화(金澤化, 1940~2006)는 1940년 제주시 용담 2동에서 출생하였다. 1962년 제11회 국전 서양화 부문에서 특선, 제1회·2회 신상회전 y씨상과 특선, 오월신인에 술상전 장려상을 수상하였다. 김택화는 상경하여 홍익대에 입학했으나 1964년 홍익대 서양화과를 중퇴하였다. 그는 홍익대 재학시절 데생을 잘하기로 정평이 나 있었다. 1963년 김택화는 오리진(ORIGIN)의 창립 회원이 되었다. 한국 추상미술의 선두 그룹 중 하나인 오리진은 9월 중앙공보관 화랑에서 1회전을 열었다. 그 후 제주에 내려온 김택화는 외로운 화가의 길을 걸었다. 고향의 풍광을 화폭에 담기 시작하였다.

현장 스케치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 그에게 제주는 더 이상 작은 섬이 아니라, 솟아나는 물이 멈추지 않는 용천수 같은 창작의 땅이었다. 개인전을 준비하기 위해 그는 섬 전체를 헤집고 다녔다. 고향 제주는 그를 추상회화의 영역에서 구상 회화로 귀착하게 만들었다. 제주에서의 생활은 자연에 대한 새로운 탐구와도 같았다. 생활

을 위해 신성여고 미술교사와 제주대학교 미술학과 강사를 하면서 제주의 미학을 형상화하는 데 온 힘을 쏟았다. 쉽지가 않았을 창작열을 불태운 결과 20여 회의 개인전과 수많은 국내외 초대전에 참가할 수 있었다.

김택화는 제주예술을 빛낸 공로로 1988년 제주도문화상을 수상하였다. 제주도 미술대전 심사위원장과 신천지미술관장, 2006년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장을 역임하였고,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회장을 2번 역임하였다. 김택화는 2006년 6월 25일 숙환으로 별세하였다. 향년 66세. 제주미협장으로 장례가 치러졌다. 이듬해 그를 기리고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김택화 유작전을 마련하였다.

김택화의 <한라산>은 산남에서 그린 한라산인데 상산(上山)이 과장되어 남성적인 강건미가 돋보인다. 해안 절벽 위에 마을이 보이고 한라산 중턱에 구름이 걸려 있어 신비감을 더해준다. 이 작품의 주조색은 청색이다. 절벽 아래 바다와 한라산 기슭은 온통 강한 청색의 기운으로 가득하다. 흰 구름 아랫마을은 강한 빛을 받는 듯 스폿 조명처럼 강조되고 있다. 한라산의 신비감은 밝은 하늘과 흰 구름, 그리고



그림 3-21. 김택화, <한라산> (유채, 1981)

검고 높은 절벽, 푸르고 깊은 바다와의 이분(二分)으로, 마치 이국의 섬인 양 보이고 있다. 아마도 화가의 마음에는 항상 한라산이 이어도에 있는 산으로 자리하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남쪽에서 본 한라산 정상은 과장되게 표현함으로써 높고 거친 느낌을 주고 있으며, 구름 위에 솟아 있어 높고 푸른 민족의 영산으로 보인다.

조영호의 <한라산의 잔설>

일본에서 유학한 제주 출신 화가 조영호(趙英豪, 1927~1989)는 1927년생으로, 일본 오사카시립미술전문학교 3년 과정을 졸업하였다. 조영호는 1954년 9월 10일부터 15일까지 제주시 오아시스다방에서 개인전을 개최하였다. 당시에는 전시공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시회는 관덕정이나 제주북초등학교, 학교 강당에서 주로 열렸다. 조영호는 1957년 10월 관덕정에서 열린 '서양화 개인전'에서는 <여인상> 등 47점을 선보였으며, 그 후 단체전에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빠른 선 터치와 활기찬 시선으로 소개하였다. 서라벌예대, 대구사범대 강사, 서울 진명여고, 제주여중고,



그림 3-22. 조영호, <한라산의 잔설> (100호, 유채, 1987)

신성여중고 교사 등을 역임하였다.

조영호의 <한라산의 잔설>은 제주의 한라산의 웅혼한 자태를 청색과 녹색 주조의 후기인상파 표현주의 화풍으로 해석하면서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을 예찬하고 있다. 예술지상주의를 꿈꾸는 낭만주의자로서 섬의 풍광을 그렸던 조영호는 제주 미술을 향토적 서정성으로 토착화시키는 데 기여한 화가로 기억될 것이다. 그가 그린 한라산은 북쪽에서 본 용진골 계곡의 풍경과 한라산의 고사목을 어우러지게 한 작품이다. 한라산에는 봄이 왔지만 아직도 흰 눈이 남아 찬 기운을 전하고 있다. 4월까지도 잔설이 남아 산 정상에 흰색 모자에 청색 기운이 흐르는 계곡의 청록색과 어우러져 여전히 겨울의 한기를 느끼게 하지만, 화면의 중앙에는 어느덧 봄의 기운이 급방 번질 것처럼 생명의 용트림이 시작되었다. 한라산 계곡에서 느낄 수 있는 거친 감정적인 표현이 여성적인 한라산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조영호 자신이 느낀 한라산이 거칠고 강렬한 야성의 세계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태석의 <한라산>

강태석(姜泰碩, 1938~1976)은 1938년 제주시에서 출생했다. 1954년 오현중학교를 졸업하고 화가 홍종명을 따라 상경하여 서울 예술고등학교에 입학하였다. 서울에 고 2학년 때 학생 신분으로 제주시 남궁 다방에서 양화 15점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1957년 서울대 미대 회화과에 입학했다. 1963년 제주시 남궁다방에서 <강태석 스케치전>을 열었고, 1964년 산지천 광제교 북측에 붙어있던 목조건물 2층에 '아트리에 1964'를 개설하였다. 이후 '아트리에 1964'는 탐동의 옛 제주신문사 근처로 옮겼다. 강태석은 문인들과 자주 어울렸고 제주산악회 창립멤버가 되어 제주산악회 깃발을 그렸다. 강태석은 제주의 자연에 세계적인 미술가들의 작품 경향을 대입시키고 있다. 이것은 강태석의 뜨거운 정열이자 야망으로서 미술에 대한 낭만적이면서 표현주의적인 그의 본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생각은 38세로 요절한 그의

짧은 생애 전 작품에 녹아있다.

강태석이 한라산을 그린 작품은 <대화>와 <전설> 등이다. <대화>는 한라산을 배경으로 사슴에 안장을 걸고 앉아 있는 남자가 피리를 불고 있는 여성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보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이 작품은 사랑을 소재로 그린 작품이다. 강태석은 매우 다양한 서양미술의 형식실험을 시도한 화가로도 유명하다. 피카소 풍의 작품만이 아니라 <전설>이라는 작품은 샤갈 풍의 스타일을 적용한 작품이다. <전설>은 화가 자신이 모델이다. 한라산 백록담에 붉은 물고기가 떠 있고, 하늘에는 사슴이 마치 주례처럼 기분 좋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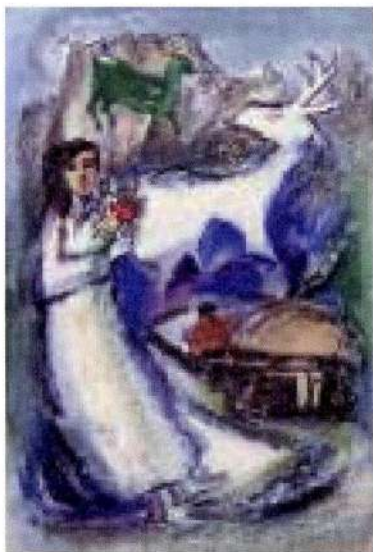


그림 3-23. 강태석, <사슴과 여인> (수채, 1970)

표정으로 신랑, 신부를 지켜보고 있다. 남녀는 방금 결혼식을 치렀다. 결혼식 장소로는 실제로 그가 결혼식을 치렀다는 왕관릉이다.

한라산이 신화의 장소, 전설적인 장소가 된 이유도 강태석이 이 한라산을 매우 존중하고 유토피아의 성소로 여겼기 때문이다. 한라산이 나오는 강태석의 작품으로는 1970년에 수채화로 그린 <사슴과 여인>도 있다. 한 여인이 하얀 드레스를 입고, 손에는 동백꽃을 들고 서 있다. 초가 위에 백록이 초록 사슴을 보고 있다. 백록담을 배경으로 한 이 그림은 여인=초록사슴, 백록=작가자신, 평화로운 제주의 마을을 그린 것으로 흰색과 청색, 초록, 붉은색의 조화가 아름답다. 샤갈의 영향으로 보이는 이 작품은 러시아 민담을 그렸던 샤갈을 떠올리면서 본인과 여인을 주제로 현대의 신화를 생각하면서 그린 것이다. 꿈은 아름다운 것이고 현실은 냉혹한 것이다. 30대였던 화가에게는 어떤 가혹한 현실도 이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김병화의 <한라산>

김병화는 1948년 4월 13일 제주시 삼도 1동에서 태어났다. 제주북초등학교, 오현중, 오현고, 1977년 제주대학교 미술교육과를 졸업했다. 제주도미술대전 대상, 제주도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하며 다수의 단체전에 참가했다. 1993년 마지막 개인전까지 모두 5회의 전시회를 열었다. 한국미술협회 제주도지부회원, 제주여자고등학교 미술교사로 재임하다가 1994년 2월 20일 젊은 나이에 숙환으로 타계하였다. 그의 작품에는 장중하거나 엄숙한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차분한 정서에서 우아한 아름다움이 피어난다. 김병화는 격동보다는 평정을, 심리적 표현보다는 객관적인 대상의 사실적인 미를 찾으려고 하였다. 즉 충동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서정(抒情)을 표현하였다. 제주미술의 2세대답게 1세대 선배 세대의 화풍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김병화의 한라산은 겨울인데 한라산 중턱은 억새가 바람에 날리고 상산(上山)만 흰 눈을 이고 있는 모습이다. 화가의 성격인가 한라산은 조용하고 차분한 느낌으로



그림 3-24. 김병화, <한라산> (수채, 연대 미상)

다가온다. 갈색 톤의 평원법 풍경은 안정적인 구도인데, 세월의 무상함을 아는 듯 말 없는 한라산은 마치 제주사람의 묵시록처럼 침묵하는 산이다. 수채화로 그려진 이 한라산은 음영에 보라색 기운이 도는 것으로 보아 인상주의 기법을 차용한 것이다. 삼나무가 초원의 중간에 열 지은 것으로 보아 서부지역의 어느 목장 풍경 너머에서 본 한라산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요배의 <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

강요배는 1952년 제주시 삼양에서 태어나 서울대 회화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였다. 창문여고 교사로 재직 중에 1981년 현실과 발언 회원이 되어 제2회 동인전에 출품하였다. 3년간의 교사 생활을 접고 금성사 계열 회사에서 일러스트 작업을 하였다. 1988년 한겨레신문이 창간되고 소설가 현기영의 《바람 타는 섬》 삽화를 그렸다. 삽화 작업을 마치고 덕은리의 한 농가를 빌려 3년간 제주 43 그림 50점을 그렸다. 이 그림으로 1992년 학교재 화랑에서 '강요배 역사 그림-제주항쟁사'전을 열었다.

전시회를 마친 강요배는 제주 한림읍 옹포리로 귀향하였다. 1994년에 옹포리에서 1년과 외도에서 1년을 지내는 동안 그린 그림으로 '제주의 자연'전을 개최하였다. 이후 하귀에서 작업을 하다가 1998년 금강산을 다녀온 후 '금강산'전을 열었고 현재 귀덕에서 작업하고 있다.

강요배는 4.3민중항쟁사전에서 한라산을 그렸는데 <한라산 산자락 아래>라는 그림이다. 그림은 1948년 4.3이 발발하자 한라산으로 피신 간 사람들의 모습을 그렸는데, 그 인파 사이에 매우 작게 죽창을 들고 보초를 선 청년이 보인다. 그의 역사관과 세계관을 엿볼 수 있는 <한라산>은 늘 제주사람과 함께 하는 역사의 산이었다. 2007년에 그린 <한라산>은 흰 눈에 덮인 백산이다. 2017년 <항산(恒山)>은 귀덕에서 본 저물어가는 한라산이다.

1994년 <제주의 자연>전에는 한라산이 보이는 작품 한 점이 있다. 바로 <산국 있



그림 3-25. 강요배, 〈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유채, 72.8x116.8, 1992)

는 가을밭>인데 가을 추수가 끝나고, 돌무지에 핀 노란 산국화와 억새, 멀리 돌담 선들이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이루고 있다. 멀리 완만하고 작게 보이는 한라산 정상은 숨은 듯 희미하게 보인다. 이 구도로 보아 아마도 제주도 서부지역에서 보이는 한라산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생각된다. 노란색과 갈색 주조의 <산국 있는 가을밭 풍경>은 풍경을 보는 관점에 따라 풍경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작품이다. 역사적 풍경은 곧 일상의 누적된 시간의 풍경일 것이다. 가을밭 너머로 은은하게 보이는 한라산이 제주다움을 더 부각시키는 것은 아마도 숨겨져 있는 모습을 상상으로 알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제주 화가들의 <한라산> 그림

현재 제주에서 작업 활동을 하고 있거나 제주 출신 화가들의 그림 소재로써 한라산은 여전히 인지도가 높다. 한라산을 그림의 소재로 삼은 화가들은 채기선, 강술생, 고보형, 고순철, 김산, 김성오, 김순관, 김연숙, 문창배, 박성배, 박주우, 소희진, 양민희 오건일, 오민수, 오승익, 이경재, 이명복, 이옥문, 이미선, 채기선, 홍진숙 등이다.

이외에도 많은 이들이 한라산을 그렸다. 프로에서 아마추어 할 것 없이 한라산은 그야말로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화가들의 전시 때마다 등장한다. 그 이유는 뭘까. 바로 제주사람이라면 한라산을 예사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일생을 제주에 살다 보면 한라산에 대한 이야기와 멀리 바라보이는 풍경에 익숙해질 것이고, 산세 또한 사계절 기후마다, 또 각도마다 달라서 변화가 무쌍하니 화가라면 누구나 마음에 두고 있고, 실제로 학창시절 산행이나 개인적으로 한라산에 다녀온 경험 때문에 각자 한라산을 바라보는 의미 또한 다르기 때문이다. 섬 어디서나 병풍이 되어주는 한라산은 제주도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음에 두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3. 그림 속에 표현된 한라산의 의미

그림은 시대마다 당시의 경제적 측면과 국가 이념, 사상, 그리고 문화 풍속적 의미를 담아낸다. 그림 속에 표현된 한라산을 보면, 중세 때에는 카메라 대신 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기록화와 아름답거나 유명한 산수를 탐방하는 탐승(探勝)의 목적으로 그리기도 하고, 또 군사적인 목적으로 군현의 관방을 위해 방문하여 지역 군민을 점검하는 실용화의 기능도 있다.

또한 그것과 병행하여 제주의 명승과 함께 한라산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선비 정신의 인격적 도야를 목적으로 한 명산대천의 경치가 그것이다. 당연히 한라산은 제주에 부임한 목사나 점검 차 내려온 어사와 같은 관리들이 한라산을 매우 신성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또 유배인들도 한라산에 관한 시문을 많이 남긴 것으로 보아 화가는 아니었지만 마음에는 관리나 죄인이어도 꼭 한라산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의 시대적 한계는 분명, 성리학의 문화적 인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인다. 유교 국가였던 조선은 장인(匠人), 화사(畫師)들을 중인 이하로 여겨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풍토를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채색화의 중흥을 꽃 피우지 못하였고, 양반 사대부 중심으로 소위 먹그림의 시대가 조선 시대 내내 대세가 되었다.

중세는 왕조 국가라는 한계로 말미암아 민주주의 이전의 사회라는 문제로, 오늘날의 시선처럼 감성적으로 한라산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기록화나 실용화의 측면에서 신선사상의 장수의 세계로 한라산을 본 면이 강하다.

현대에 와서 한라산 그림들은 다양해지기 시작하였다. 화가들의 감성도 다르고, 미술 재료와 기법 등이 다양해지면서 한라산을 그린 그림들 또한 자유롭고 다양해졌다. 물론 화가의 입장마다 한라산을 그린 이유가 달라서 어떤 화가는 여행자 시점에서, 어떤 화가는 자신의 고향 명산이기에 어머니 같은 대상으로 그리기도 하였

으며, 조국을 찾아온 어느 화가는 고향 산천을 보는 것만으로도 감동적이어서 즉흥적으로 그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한라산 그림에는 그것을 그린 화가들의 인상(印象)과 마음이 투사되어있기 때문에 한라산 그림마다 새로운 의미로써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사람들은 인류가 남긴 문화의 흔적들과 만난다. 그것은 시대마다 혹은 사회마다 다른 미의식을 보여준다. 화가의 영혼이 담겨 있는 작품에는 그의 삶과 그가 살았던 사회가 투영되어 있다. 비록 ‘한라산’을 그린 화가들이 현존하지 않더라도 그가 남긴 ‘한라산’을 소재로 한 작품은 일반인들이 한라산을 예술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한다는 점에서도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다.

참고 문헌

- 김유정, 《통사로 보는 제주미술의 역사》, 파피루스, 2007.
 전은자, 《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대학교탐라문화연구원, 2015.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미술인조사자료집》, 2012.
 제주시, 《제주시문화예술인인명사전》, 2016.
 (사)한국미술협회제주도지회, 《제주미협40년사》, 1999.
 제주대학교박물관, 《옛 그림과 글씨》, 2013.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60년사》, 2008.

제7권 저자들

제1장 허영선

제민일보 편집부국장, 제주민예총 이사장 역임

제주4·3연구소장, 제주대 강사, 5·18기념재단 이사

시집 《추억처럼 나의 자유는》《뿌리의 노래》《해녀들》 산문집 《탐라에 매혹된 세계인의 제주오디세이》

역사서 《제주4·3을 묻는 너에게》외 다수

제2장 강문철

제주도 예총 회장 역임

한국음악평론가협의회 부회장

창작발표회(작곡) 8회 등 작곡, 공연 다수

뮤지컬 〈자청비〉작곡

클라리넷 앙상블 ‘한라산의 4계’ 작곡 발표

제3장 전은자

이중섭미술관 학예연구사

제주일보 필진(논설위원, 시론)

저서 《제주바다를 건넌 예술가들》, 《제주 표착과 제주인의 표류》

논문 〈제주도 효제문자도 연구〉, 〈제주인의 일본 도항 연구〉

한라산의
문학과 예술

한라산홍서 7



9 791197 735561

ISBN 979-11-977355-6-1

ISBN 979-11-968758-9-3 (세트)